

6-15-2004

일본선교의 장애요인과 효과적인 일본선교: 사례를 통해 본 선교전략

Jong Yoon Baik 백종윤

Follow this and additional works at: <https://digitalcommons.fuller.edu/kdmin> Part of the [Missions and World Christianity Commons](#)**Recommended Citation**

백종윤, "일본선교의 장애요인과 효과적인 일본선교: 사례를 통해 본 선교전략." 박사학위논문, 풀러신학대학원, 2004.

This Project is brought to you for free and open access by the Korean Studies Center at Digital Commons @ Fuller. It has been accepted for inclusion in Korean Doctor of Ministry Projects / 한인 목회학 박사 졸업 논문 by an authorized administrator of Digital Commons @ Fuller. For more information, please contact archives@fuller.edu.

Ministry Focus Paper Approval Sheet

This Ministry Focus Paper entitled

A PROPOSAL FOR AN EFFECTIVE MISSION STRATEGY IN JAPAN, BASED ON SOME CASE STUDIES OF KOREAN MISSIONARIES IN JAPAN

written by

JONG YOON BAIK

and submitted in partial fulfillment of the

requirements for the degree of

Doctor of Ministry

has been accepted by the Faculty of Fuller Theological Seminary

upon the recommendation of the undersigned readers:

Ho Jin Jun

Moon Sang Kwon

Seyoon Kim

June 15, 2004

**A PROPOSAL FOR AN EFFECTIVE MISSION STRATEGY
IN JAPAN, BASED ON SOME CASE STUDIES OF KOREAN
MISSIONARIES IN JAPAN**

MINISTRY FOCUS PAPER

SUBMITTED TO THE FACULTY OF THE
SCHOOL OF THEOLOGY
FULLER THEOLOGICAL SEMINARY

IN PARTIAL FULFILLMENT
OF THE REQUIREMENTS FOR THE DEGREE OF
DOCTOR OF MINISTRY

BY

JONG YOON BAIK

JUNE 2004

일본선교의 장애요인과 효과적인 일본선교

- 사례를 통해 본 선교전략 -

이 논문을 풀러 신학교
목회학 박사학위
논문으로 제출함

지도
전 호 진 교수

백 종 윤

2004년 3월

ABSTRACT

A Proposal for an Effective Mission Strategy in Japan, Based on Some Case

Studies of Korean Missionaries in Japan

Jong Yoon Baik

Doctor of Ministry

2004

School of Theology, Fuller Theological Seminary

Even though there are many missionaries at work in Japan, the strong barrier of the 1 percent (Christian populations of Japan) has not been overcome yet. While many reasons for the barrier or obstacles to the mission works in Japan can be stated, in this paper we shall consider this matter particularly in relation to the cultural climate of Japan and the mission strategy. And a special attention will be given to the Korean missionaries who are working in Japan. The aim of this study is to develop a strategy to enhance the effectiveness of their mission works in Japan and provide practical materials for them and the missionary candidates who want to commit themselves to the mission for Japan.

In this study we shall first overview the mission history of Japan and analyze the problem of the Christianity in Japan.

Second, we shall survey the mission strategies or approaches taken by the foreign missionaries currently at work in Japan and diagnose the weaknesses of these strategies. This kind of critical review on the mission strategy is necessary because there have been suggested virtually no detailed assessment of it.

Our diagnoses of the mission strategy is primarily based on three questionnaires. In the first questionnaire we asked the Korean missionaries who are randomly chosen about their mission works and the obstacles to them. In the second questionnaire we asked the Korean missionaries currently at work for the

Japanese people (not Koreans) in Japan about their mission works and strategies and the cultural climate of Japan. In the third questionnaire, we asked the Japanese pastors and Christians about the strengths and weaknesses of the Korean missionaries.

Third, in view of the ever-changing situation of the Japanese mission, we shall attempt to propose an effective mission strategy which can be not only suitable to the current situation and cultural climate of Japan but also enhance the strengths of the Korean missionaries and the effectiveness of their mission works.

Fourth, we shall suggest that Korea and Japan can be in a good partnership with each other for the world mission in the 21st century.

We hope this study be helpful to the Korean missionaries in Japan and missionary candidates who want to work in Japan. We also look forward to seeing the further developments of this study by many others.

Theological mentors: Ho Jin Jun, Ph. D.

Moon Sang Kwon, Ph. D.

Seyoon Kim, Ph. D.

감사의 글

목회학 박사과정을 시작하게 하시고 은혜 중에 마치게 하신 하나님께 먼저 감사드립니다. 그동안 가르침을 주신 김세운 박사님, 엄예선 박사님과 Fuller의 교수님들께 감사드립니다. 특히 이 논문을 쓰는데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자상하게 지도해 주신 전호진 박사님과, 자료수집에 많은 수고를 더해 준 일본의 윤성혜 선교사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사실 저는 Nepal선교사로 사역하던 95년도에 입학하고 졸곧 Nepal선교에 대해 논문을 쓰려고 준비해 왔었으나 Nepal사역 11년을 마치고 귀국하여 일본복음선교회의 대표로 섬기게 된 2001년 7월부터 일본선교에 대한 전략개발 차원에서 이 논문을 쓰게 되었습니다.

선교의 원리가 같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제가 사역했던 나라가 아니고, 일본에 대해 공부할 수 있는 기간도 짧아서 저 혼자 힘만으로는 마무리 할 수 없는 일이었기에 지도해 주신 전호진 박사님과 도움을 준 일본의 여러 선교사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밤마다, 새벽마다 담임목사를 위해 기도하는 우리 길갈교회 당 회원과 교우들에게 감사를 드리고 기쁨을 함께 하고 싶습니다.

2004년 5월

백 종 윤

목 차

ABSTRACT	ii
감사의 글	iv
 제 1 장 서 론	1
제 1 절 연구의 배경과 목적	1
제 2 절 연구의 방법과 범위	4
 제 2 장 일본인에 대한 이해	6
제 1 절 일본인의 종교이해	6
1. 신도	9
2. 불교	13
3. 유교	15
4. 신흥종교	16
제 2 절 일본인의 의식 이해	18
1. 혼네(本音)와 타테마에(建前)	18
2. 집단 의식과 직업 의식	20
3. 조화 중심 사상	21
 제 3 장 일본의 기독교 역사와 일본교회의 장단점	23
제 1 절 일본의 기독교 역사	23
1. 초기 선교사의 시대(1549-1850)	23
2. 개신교 선교와 개국(1850-1900)	29
3. 침체기와 대부흥기(1900-1950)	37
4. 제2차 세계 대전과 일본교회 성장의 후퇴(1950-1970)	44
5. 회복, 성장, 새로운 시대로(1975년 이후)	46

제 2 절 일본 교회의 장점과 단점	49
1. 일본교회의 장점	50
2. 일본 교회의 단점	51
제 4 장 최근 일본의 기독교와 일본선교의 장애요인 분석	53
제 1 절 최근 일본 기독교	53
1. 일본 기독교회의 현황과 과제	53
2. 일본 복음화 현황	55
3. 일본 기독교의 신학과 신학교육	56
4. 일본 기독교회들의 전도운동	58
5. 책임적 신자와 명목상 신자가 공존하는 일본 교회	59
제 2 절 일본선교의 장애요인 분석	60
1. 화혼양재	61
2. 일본인의 배타주의와 민족주의	62
3. 현실주의적 종교관과 가치관	63
4. 종교 다원주의의 도전	65
5. 영적 장애	66
6. 진화론 사상으로 인한 장애	68
제 5 장 한국 선교에 대한 분석과 제안	71
제 1 절 한국교회의 선교 현황과 일본선교 현황	71
1. 최근의 한국교회 선교 현황	71
2. 한국 교회의 일본선교 현황	72
제 2 절 일본에서 성공한 선교 사례들	73
1. 제자 훈련	73
2. 찬양 사역	75
3. 홈리스 사역	76
4. 청소년 및 청년 사역	77

5. 미디어 사역	78
6. 전문인 사역	79
7. 개척교회 사역	82
8. 일본 교단에 소속 선교사역	82
9. 기타 주목할 만한 사역	83
제 3 절 한국선교사들이 개선해야 할 점	84
제 4 절 효과적인 일본 선교를 위한 제안	85
 제 6 장 결 론	88
 부록	91
 참고 문헌	100
 VITA	104

표 목 차

<표 1> 각 종교별 종교단체수와 교사, 신도 수	8
<표 2> 명치 15-33년의 교회 성장	38
<표 3> 일본의 교단 22년간 성장률	48
<표 4> 기독교계통별 교단 수 및 성장률	56

제 1 장 서 론

제 1 절 연구의 배경과 목적

선교는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가 수행해야 할 중요한 사명 중의 하나이다.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는 선교의 대 사명(the Great Commission)은 열두 사도들에게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지상의 모든 교회에 주어진 최고 명령이다. 선교는 초교파적 선교회(para church)나 특정 그룹이나 개인의 전유물이 아니라, 모든 믿는 자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이다. 선교란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들에게 구원의 복음을 전하여 자립, 자치 자력전파의 교회를 설립하는 것이다. 이 선교개념은 19세기 서구 선교가 공통으로 실시한 선교 사상이었다. 19세기 서구 선교는 선교사상에서 협의가 있었다. 현재 전 세계의 모든 국가들은 대부분 유형교회가 거의 존재한다. 일본은 물론 약 8천개의 교회가 있을 정도이다. 그러나 국가 전체적인 면에서 자립교회는 아직도 요원한 셈이다. 이제 한국교회 선교는 교회 개혁의 선교도 해야 하지만 기존의 교회가 스스로 전도하고 선교하도록 돕는 선교가 되어야 한다. 이점에서 일본 선교는 어디까지나 한국 보다 선교 역사가 오래된 일본 기독교의 자존심을 건드리지 않는 범위에서 겸손한 선교가 요구된다.

일본은 기독교 인구를 일반적으로 100만인으로 말하지만 실제로 주일 오전 교회 출석하는 인구는 30만을 조금 넘는다고 한다. 일본선교는 역사가 오래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기독교 신자가 전 국민의 1퍼센트가 되지 않으며 그나마 출석자는 전 크리스천의 0.42퍼센트에 지나지 않다.¹⁾ 세계 미전도 운동은 일본을 미전도 종족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동질집단의 한 인종은 아니다.²⁾ 이렇게 일본은 선진국 가운데는 유일하게

1) CIS 뉴스, 2002년 6월호, No. 55.

기독교가 뿌리내리지 못한 나라이다. 이점에서 일본은 아직도 선교에서는 땅 끝이다. 한국과 지리적으로 매우 인접해 있는 일본은 460년의 천주교 선교역사와 140여년의 기독교 선교역사를 가지고 있지만, 중소도시 및 마을의 68퍼센트가 교회가 전무한 아시아 최대의 미전도 종족이다.³⁾ 일본의 복음화율이 이렇게 낮은 이유 중의 하나가 일본인 특유의 의식구조와 사회적 상황에 기인한 것이라고 지적하는 연구가 많이 있다⁴⁾.

변재창은 “아시아의 로마”라는 주제로 고신의 회보 해외선교에서 “일본에 부흥이 올 것인가?”이라는 주제를 통해, 21세기의 선교 전략적인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궂임을 말하고 있다. 왜냐하면 오늘날 당당히 ‘아시아의 로마’로 자리를 굳히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세계 2위에 있는 일본경제의 상황을 보고 어떤 경제학자는 2000년대에는 태평양시대가 될 것이며, 중국과 일본이 그 주역이 되어 세계를 주름잡게 될 것이라고 전망하였다. 물론 현재 일본이 거품경제로 인해 많은 실업자와 미취업자들, 가정경제의 문제 등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여전히 세계 2위의 경제대국으로 그 자리를 유지하고 있다.

지리적으로 한국과 가장 가까운 나라인 경제 대국 일본, 혈통으로는 한국계 피가 가장 많이 섞인 민족, 이해할 수 없는 특유의 집단주의, 왕을 비판할 수 없는 신성불가침의 천황주의와 불교, 유교, 신도가 혼합된 기이한 일본 종교, 일본의 많은 가정문제 이중에서도 직장으로 인해 홀로 직장의 지시에 따라 전근 등으로 가족과 떨어지는 것을 일컫는 단신후닌이라는 용어가 생길 정도로 직장을 최우선으로 두고 있는 것이 큰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이러므로 인해 많은 이혼 가정들이 늘어나며, 아이들과 부모와의 의사소통의 부재현상 그리고 아동학대등의 깨어지고 상처가 많은 가정들이 늘어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또한, 성도덕이 문란한 사회, 그러면서도 국민들의 묵묵한 순종적 근면성과 책임감은 참으로 불가사리한 일이다. 그러므로 이러한 일본의 이중성은 복음화 되지 않으면, 제2의 제국주의, 군국주의 나라로 나타나게 되어 많

2) 전호진, 인종갈등시대와 미전도 종족 선교 (서울: 도서출판 영문, 2000), 36.

3) 미전도종족의 개념은 기독교 신자가 인구의 2퍼센트 미만으로 스스로 자기인종을 전도할 수 없는 종족이나 나라를 의미한다. 미전도 종족 운동은 일본을 미전도종족의 범주에 포함시킨다. Ibid., 21.

4) 서양의 일본전문가 볼프강은 일본을 “수수께끼의 나라”라고 말한다. 전호진, “한국교회, 일본신사를 넘어 세계로 2”, 23.

은 사람들에게 큰 어려움을 줄 것이다. 그러나 예수그리스도의 복음이 일본 땅에 전파된다면 일본인 특유의 근면성과 정직성과 친절함으로 인해 세계선교에 주요한 역할을 감당할 수 있을 것이다.

현재 일본은 많은 선교사들이 활동하고 있다. 그러나 복음화율은 낮다. 전 세계 33여 개국 245개 선교단체에서 3,500여명의 선교사가 파송되어 있다. 세계기도정보 2002년도 판에 의하면 일본에 한국선교사가 546명이 나가있는 것으로 보고되어 있다⁵⁾. 그러나 보고되지 않은 선교사까지 고려한다면 700~800명 정도로 추정된다. 일본은 지난 1980년 이후 10여 년간 복음화율이 감소추세를 보여 왔으나, 1990년대 들어와서 선교단체의 활발한 활동으로 선진국에서는 보기 드물게 소폭이나마 매년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아직도 인구 10만이상의 8개 도시와 읍, 면의 2,400개 도시 중 1,700개 소도시에 교회가 전혀 세워져 있지 않은 아시아 최대의 단일 미전도 종족집단이다. 그렇다면 한국교회에 있어서 일본 선교의 의의는 무엇인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첫째로 한국 교회의 부흥을 일본교회에 나누어 주어야 한다. 일본 기독교는 처음부터 지식층에 접근하였다. 따라서 학문적, 교리적 차원에서는 발전하였으나 영적으로는 한국교회와는 다르다. 한국교회는 성령운동으로 인한 풍부한 영적 은혜를 체험하였다. 물론 불건전한 부흥운동이 있으나 기독교회는 영적 자원이 있어야 한다. 일본교회는 영적 다이내믹이 필요하다. 둘째로, 21세기 세계 선교는 동북아 국가들의 상호 파트너십이 필요하다. 중국, 일본, 한국 교회는 아시아 선교를 위하여 서로 협력해야 한다. 한 일 두 나라 교회는 교류와 용서를 통해 한·일간의 정치·사회적인 긴장과 갈등을 선구적으로 해결해 나가는데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한다. 셋째로, 잃어버린 자를 구원하라는 주님의 명령을 준행하여 교회가 아직 없는 지역에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도록 해야 한다. 지역 교회는 자기 지역의 복음화를 책임지도록 해야 한다. 그러나 일본은 시골 지역의 경우 교회 개척도 더 시급한 것은 목회자가 없는 무목 교회가 많이 있어서 한국교회의 도움을 요청하고 있다. 넷째는, 한국교회의 일본 선교는 영적으로 중요한 의미가 있다. 선교는 대체로 문명이 앞선 나라의 교회가 문명이 뒤 떨어진 나라에 복음을 전하였다. 그런데 한국은 경제, 사회, 모든 분야에서 일본에 뒤지는 나

5) Patrick Johnstone, 세계기도정보 (서울: 죠이 출판사), 600.

라이다. 그러나 기독교회만은 예외이다. 이점에서 한국교회가 일본에서 효과적 선교를 할 때 복음의 능력을 증명할 수 있다. 주님이 택한 사람은 이 세상에서 부자이고 학식이 많거나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않았다. 주님은 낮고 천한 자를 택하여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신다(고전 1:20-31). 한국 교회의 일본 선교는 이런 점에서 그들 선진 국민들의 자존심을 건드리는 것 같으나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 주게 되는 것이다.

이런 현실적인 상황에서 본 논문은 지금까지 일본선교의 전략을 분석하고 성장요인을 발견하여 21세기 새로운 일본의 상황에 맞는 선교 전략이 수립되어야 하는데 아직까지 이러한 연구가 미진한 상태에 있으며, 이렇게 많은 선교사가 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1퍼센트의 벽이 무너지지 못하고 있는 장애요인을 분석하고자 한다. 그러므로 본 논문은 복음의 수용지로서의 일본의 풍토의 문제와 전략상의 문제로 접근하려한다. 그리하여 21세기를 사는 이 시대에 좀 더 일본의 복음화를 앞당기는 데 필요한 구체적인 전략을 제시하고자 한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첫째, 일본선교의 역사적인 고찰을 통하여 일본 기독교의 문제점을 연구 분석한다. 어느 나라의 교회든지 지상 교회는 나름대로의 장점과 단점이 있다. 둘째, 기존 선교사들의 일본 선교 전략 혹은 방법에 대한 것을 고찰함으로써 외국 선교사들의 선교적 한계나 약점을 연구 분석하고자 한다. 일본에는 많은 선교사들이 있으나 이들의 선교에 대한 구체적인 분석이나 성찰이 없었다. 따라서 한국 선교사의 실제적인 선교의 사례를 선교유형별로 살펴봄으로 성장의 요인들을 분석하는 것과 일본의 목회자와 성도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을 통해 앞으로 한국선교사들이 지양해야하며 준비하고 보완해야 할 점이 무엇인지를 제시하고자 한다. 셋째, 지속적으로 변화해 온 일본선교의 상황들을 고려하여, 일본의 현지상황에 적합한 전략들을 제시함으로써 일본선교를 준비하고 있는 선교 헌신 자들과 현재 일본에서 사역하고 있는 선교사들에게 일본선교의 효과적인 전략들을 통해 선교사역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돕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넷째, 21세기 세계선교의 일환으로 세계 선교를 위해 한국과 일본이 하나 되어 협력하는 파트너로서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하고자 한다.

제 2 절 연구의 방법과 범위

본 논문의 연구 방법으로는 선행연구를 검토하여 일본선교의 현황과 성장유형을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문헌연구, 앙케트 조사와 현지답사를 통하여 일본에서의 효과적인 선교전략을 모색한다.

본 논문의 연구 범위는 우선 일본선교의 역사적 사실을 고찰하고, 한국 선교사들의 사역상황과 사역의 유형들을 살펴보고, 성장하는 한국선교사가 섬기는 일본교회의 사례를 분석하여 일본선교의 장애요인과 방향성을 제시하며 이를 통하여 21세기 일본선교의 전략을 제시하고자 한다. 여기서 한국선교사의 대상으로 선정됨에는 한국인 대상 사역은 제외시키는 것이 본 논문의 논지에 맞기 때문에 선교사중에 일본인 중심의 선교를 하는 것으로 제한하였다.

본 논문의 구성은 1장에서는 일본선교의 전략을 연구하는 목적과 연구방법에 대해 명확하게 한다. 2장은 선교지인 일본의 종교상황과 일본인의 의식구조를 통해 복음의 수용지로서의 일본인을 연구하며 분석한다. 3장은 일본 기독교의 역사적 사실들을 고찰해 봄으로써 일본 기독교의 장단점을 고찰한다. 4장은 일본의 복음화 현황과 장애요인 분석을 살펴본다. 아울러 최근 일본선교의 동향을 분석하여 변화하고 있는 일본의 영적 상황과 그에 대응하는 전략적 방법을 모색한다. 5장은 한국교회의 일본선교역사를 고찰하여 21세기 일본선교의 전략을 도출하고, 한국의 역할을 모색하고자 한다. 또한 일본에서 사역하고 있는 선교사들의 사례 연구와 일본목회자와 성도들의 설문을 통해 일본선교에서의 한국선교사의 나아갈 방향과 효과적인 방안들을 제안한다. 마지막으로 6장에서는 본 연구의 전체적인 요약과 이를 통한 결론을 제시한다.

제 2 장

일본인에 대한 이해

일본에서 기독교는 실패한 것으로 말하고 있다. 그 이유는 주로 일본 특유의 종교와 문화와 사회 구조 및 의식구조에서 원인을 찾는다. 그 중에도 일본 기독교에 가장 중요한 장애 요소는 다신론적 신관을 중심으로 하는 일본의 종교이고, 다음으로 일본인의 의식 구조와 사회구조를 들 수 있다. 그러나 의식 구조나 사회는 종교나 종교로 인한 세계관과 가치관에 의하여 규정되고 형성되는 것이다. 따라서 한 사회의 문화와 사회는 먼저 종교연구에서 시작해야 할 것이다.

제 1 절 일본인의 종교 이해

종교적으로 보면 일본은 정통종교가 없는 나라라고 정의할 수 있다. 일본경도대학 교수인 노다 노부오는 일본은 정통종교가 없는 나라이고 유물론적 무신론국가여서 항상 서양기독교나 다른 종교로부터 공격의 표적이 된다고 개탄하였다.⁶⁾ 사실 서양의 종교학자들은 일본을 불교국가 혹은 신도의 나라로 말하지만 종교학적으로 말하면 일본의 불교는 한국에서 건너간 정통적 불교가 아니라 변질된 불교이고 일본화된 불교이다. 신도 역시 정통적 종교가 아닌 샤머니즘, 불교, 유교가 일본의 민족주의와 결합된 혼합종교이다. 유교 역시 전통이 아닌 셈이다.

현재 일본은 종교의 천국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수많은 종교가 난무하고 있다. 그러나 일본 사회에서는 타인의 종교를 묻는 것이 실례로 인식되고 있어 서로 믿는 종교에 대해 묻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 이유는 지금까지 일본사회에서 종교

6) 노다 노부오, 文明衝突時代の政治と宗教 (동경: PHP 출판사, 1995), 17.

로 인한 사회문제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이다. 대표적으로는 2003년 11월까지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오음진리교 사건이 있다. NHK설문조사에서는 “1990년대 후반 모든 연령층에서 신앙, 신심이 급감했던 것이 오음진리교 사건에 의해 초래된 일종의 종교 알레르기⁷⁾에 의한 가능성이 높고, 거의 모든 연령층과 모든 신앙과 관련된 것에 광범위하게 영향을 미쳤다”⁷⁾고 지적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은 종교의 나라라고 하여도 과언은 아니다. 일본에는 전체인구수보다도 종교인수가 더 많다는 아이러니컬한 통계가 있다. 이는 일본 문화청이 매년 종교에 대한 조사결과를 살펴보면 알 수 있는데, 2001년 일본의 전체인구수는 12,628만 명인데 비해, <표 1>에서와 같이 전체 종교인구 수는 21,475만 명으로 전체인구의 1.7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종교인수의 내역을 살펴보면 신도 신자 수는 10,678만 명으로 집계되며, 불교 신자는 9,549만 명, 기독교 182만 명, 기타가 10,653만 명이다.⁸⁾ 이것은 한 사람이 여러 종교를 갖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그 이유로는 일본인들의 종교관이 다원론적이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즉 한 사람이 하나 이상의 종교를 가진다는 뜻이다. 일본인에게는 다른 나라에는 볼 수 없는 조금 특별한 종교적 활동이 행해지고 있다. 그것은 정월에는 신사에 가서 첫 참배를 하고 추석에 절에 성묘하러 가고, 한해의 막바지인 크리스마스를 축하하는 생활습관이다.⁹⁾ 또한 가정이나 자녀문제에 관한 것은 신도에서, 교육과 결혼문제는 기독교에서, 노인과 죽음에 관한 문제는 불교에서, 질병에 관한 것은 신흥종교에서 해결을 받고자 한다.¹⁰⁾ 즉, 생활 전반에 다양한 종교적 활동이 행해지고 있는 것이다. 일본의 주요종교의 통계는 다음과 같다.

<표 1>은 헤이세이 13년 12월 31일 현재이다. 그리고 신자수가 일본의 총인구를 상회하는 것은 이증소속 등에 의한다. 여기서 교사총수란 및 불교계란에 있어서 남녀별 수와 합계와의 사이에 차이가 발생하는 것은 진언 종어실파, 조동종 및 입정교성회의 교사남녀별통계가 불분명하기 때문에, 남녀별 란으로부터 진언 종어실파 교사총

7) NHK방송문화연구소 편, 현대 일본인의 의식구조-제5판 (동경: 일본방송출판협회, 2000), 136.(자료사용 목적으로 JEM 출판 편집팀 번역)

8) 참조, 종교연감, “종교에 대한 조사 결과” (동경: 문화청, 2002).

9) NHK방송문화연구소 편, 현대 일본인의 의식구조, 140.

10) 유기남, 일본을 알자 (서울: 한국기독교학생회, 1992), 18.

수 1,138명, 조동종 교사총수 16,614명 및 입정교 성회 교사총수 77,748명이 빠져있는 것에 의한다.

<표 1> 각 종교별 종교단체수와 교사, 신자 수(단위: 명)

구분	합계	신도계	불교계	그리스도계	기타
종교 단체 수	225,885	89,082	86,647	9,330	40,826
신사	81,312	81,234	19		59
사원	77,160	17	77,110	2	31
교회	33,201	5,778	2,615	6,886	17,922
포교소	26,876	1,233	2,520	1,319	21,804
그 외	7,336	820	4,383	1,123	1,010
교사 수	655,463	80,634	311,982	27,993	234,854
남자	302,275	51,983	134,839	23,872	91,581
여자	257,688	28,651	81,643	4,121	143,273
신자 수	214,755,485	106,786,648	95,492,812	1,822,357	10,653,668

전통적인 일본인은 다신론의 종교관을 가지고 신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요즘 젊은 세대는 자신의 집안이 어떤 종교를 가지고 있다고는 말하지만, 본인은 특별한 종교를 갖고 있지 않다고 말을 한다. 즉, 젊은이들 가운데에서 진정한 의미의 종교인은 찾아보기 어렵다. NHK방송문화연구소에서 실시한 1998년도의 설문 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종교라든지 신앙이라든지 관계하고 있다고 생각되는 사항은 아무것도 믿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 사람이 20년 만에 급격하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¹¹⁾ 이러한 결과를 종합해 보면 사회가 현대화 될수록 종교에 대해서 관심이 적어진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일본의 종교는 크게 분류하면 일본 고유의 종교인 신도와 외국 종교인 불교, 유교, 기독교와 최근에 우후죽순처럼 계속 증가하고 있는 신흥종교가 있다. 통계에 의하

11) NHK방송문화연구소 편, 현대 일본인의 의식구조, 132.

면 신흥종교가 약 10만 정도나 된다고 한다. 이처럼 신흥종교가 계속해서 생겨나는 이유는 사회구성원들의 불안심리가 증가하고 있다는 것을 나타낸다고 한다. 일본의 주요 종교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1. 신도

일본에서 발생한 일본의 가장 전통적인 종교라고 할 수 있는 신도는 특별히 창시자가 밝혀져 있지 않으며, 경전이나 교리가 있는 것도 아니다. 그것은 신도가 전통적인 조상숭배와 종교적인 관습들을 기초로 해서 만들어진 종교이기 때문이다. 즉 불교, 유교, 기독교 등 외래 종교사상이 전래되면서 그것에 자극을 받아 다양한 형태로 신도사상이 형성되었다. 그 최초의 형태는 신불습합(神佛習合)사상이다. 히라이 나오후사는 “신도란 일본에서 발생한 전통적이고 종교적인 관습들로서 이러한 관습들의 기초가 되어온 삶의 태도와 이데올로기와 함께 일본국민 사이에서 발전한 것”이라고 했다.¹²⁾ 또한 일본 고대로부터 내려온 민족종교로서 일본의 사상, 문화, 사회, 정치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면서 오늘의 일본을 만든 정신적 지주가 되었다.¹³⁾

신도란 ‘신의 길’이란 뜻으로 중국어의 ‘셴따오’(Shen-tao)라는 말에서 유래된¹⁴⁾ 것으로 ‘신들의 도’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다. 신도는 기원이 명확하지는 않지만 대략 조오몽시대 말기와 야요이 초기인 BC 3-4C경, 농경사회의 성립과 동시에 풍작을 기원하는 농경의례로서 원시적 형태의 신도가 형성된 것으로 보고 있다.¹⁵⁾

처음엔 신에 대한 개념도 없는 원시 신도가 출발했으나, 외래종교의 영향으로 신의 개념을 정립해 나갔다. 고대국가에서 대왕으로 불리던 왕이 7세기 들어서면서 천황으로 바뀌었는데, 천황을 일본신화에 나오는 아마테라스 오오카미의 자손으로 간주되며 천황 자신을 신이라고 하기에 이르렀다. 6세기경에 한반도로부터 일본에 불교가 전래되자 그 수용을 둘러싸고 반세기에 걸쳐 소가 일파와 모노노베 일파 사이에 격렬

12) 平井尙房 종교사적으로 본 신도의 특질 (동경: 출회, 1969), 40.

13) 전호진, 종교다원주의와 타종교 선교전략 (서울: 개혁주의 신행협회, 1994), 316.

14) ‘신도’라는 한자는 BC 800년경에 기록된 주역에서 처음 사용되었다고 한다. ‘신의 길’(the way of god) 혹은 ‘신령한 길’(Spiritual way)로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15) 김문길 편, 일본문화 이해 (부산: 부산외국어대학교 출판부, 1999), 177.

한 종교전쟁이 벌어졌다. 그 결과 불교 수용에 적극적이었던 소가 일파가 승리를 거두었고 이 후 쇼오토쿠 태자를 거치면서 불교가 번성하게 되었다.

그리고 고도의 형이상학 체계를 지닌 불교가 널리 퍼지게 되자 이에 자극을 받아 신도사상이 형성되기 시작한다. 이와 같은 불교 전래 초기 단계에서 신도와 불교는 대체로 대등한 관계를 유지했다. 이 때는 외래종교인 불교측에서 신도에 접근하는 형태로 균형관계가 형성되었는데, 그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신궁사(신사 경내에 세워진 절)와 신전독경(신사에서 불경을 낭송하는 것)의 관례이다. 그러다가 나라 도다이지(東大寺)의 대불 건립을 위해 이세신궁에서 의식을 행하고 우사 하치만신이 상경한 8세기 중엽에 이르면 서서히 힘의 균형이 기울기 시작한다.

그리하여 절을 수호하기 위한 신사가 불교 사원 경내에 세워지고 신도의 가미들에게 보살호가 수여되는 역현상이 일어난다. 신도에 대한 불교의 이와 같은 우위성은 본지수적설(불보살이 중생 구제를 위해 임시로 일본 신도의 가미가 되어 나타났다는 주장)에서 그 정점에 이른다. 이리하여 불교가 주도권을 장악하게 되고 그에 따라 중세에는 불교의 교의체계에 입각한 습합신도설(텐다이신도와 신곤신도)이 형성되는 등, 본지수적설은 에도 시대에 이르기까지 장기간에 걸쳐 널리 사람들 사이에 침투해 들어갔다. 이상의 내용을 좀 더 상술하자면, 신불습합사상은 대체로 7세기말에서 13세기 중엽에 이르기까지 다음 세단계로 전개되었다고 볼 수 있다.

가. 제 1단계

7세기 말 8세기 초에는 신도의 가미를 위해 승려가 독경을 하는 절이 신사 경내에 세워지기 시작했다. 이를 신궁사라 한다. 신궁사 건립은 불교 승려들이 신도에 접근하기 위한 방편이었다고 볼 수 있다. 이 신궁사는 처음에 지방을 중심으로 발생하여 점차 전국적으로 퍼져나갔고 근세에 들어서면 대부분의 신사에 신궁사가 세워지게 되었다.

나. 제 2단계

8세기에서 10세기에 걸쳐 신불융합사상의 전형적인 형태라 할 수 있는 본지수적설이 등장하여 11세기에 이르러 널리 퍼졌다. 여기서 '본래의 근원적인 모습'을 의미하는 본지란 부처를 가리키고 수적이란 신도의 가미들을 뜻한다. 다시 말해서 일본의 중생들을 구제하기 위해 부처가 신도의 가미로 현현했다는 것이다. 이런 관념의 원형은 인도불교에서 찾을 수 있다. 즉 기원후 4세기경부터 불교가 인도에서 서서히 쇠퇴하고 힌두교가 성행하게 되자, 이에 대항하기 위해 불교 승려들은 힌두교의 신들이 부처의 현현이라고 설하게 된다. 이런 관념이 일본에 전래된 것이 바로 본지수적설이다. 형태상으로는 부처와 가미가 하나임을 내세우지만 내용상으로는 가미에 대한 부처의 우위성을 함축하고 있는 이 본지수적설은 수많은 유력 신사에서 채택되었고 오랫동안 일본인들의 신불관에 결정적인 영향을 끼쳤다.

이 본지수적설이 등장하기에 앞서 일본의 가미에게 보살호를 부여하는 관행이 생겨났다. 가령 큐우슈우 지방 우사 하치만구 제신에게 부여된 보살호인 '하치만 대보살'의 사례는 지금도 일본인들 사이에 널리 알려져 있다. 한편 본지수적설이 등장한 이후에 나타난 현상으로서, 신도 가미에게 권현호를 부여하는 경우가 있었다. 이 때 '권현'이란 "불보살이 일본의 중생들을 구제하기 위해 임시로(權) 이 세상에 나타났다(現)"는 뜻인데, 가장 유명한 사례로서 구마노 권현을 들 수 있다.

다. 제 3단계

이와 같은 전개 과정에 있어 불교 색채를 띤 신도설(혹은 신도 색채를 띤 불교설)이 등장하기에 이른다. 텐다이 신도와 신곤 신도가 그 대표적인 사례라 할 수 있다. 텐다이 신도는 일명 산노 신도라고도 불리우며, 사이쵸(766-822)에 의해 창시된 텐다이슈와 융합한 신도설이다. 이 텐다이 신도를 대표하는 책으로서 작자 미상의 요천기를 들 수 있다. 이 책에 의하면, 일본은 아마데라스를 비롯한 수많은 가미들이 황실을 수호하고 백성들을 품어 기르므로 신국이라 불리는데, 이는 석가가 일본의 중생들을 불법으로 인도하기 위한 방편이라는 것이다. 혹은 석가가 일본 산노의 가미로

현현했다고도 한다. 한편 신곤신도는 일명 료부신도라고 불리우며, 쿠카이(774-835)에 의해 창시된 밀교의 일파인 신곤슈와 습합한 신도설이다. 이 신곤신도를 대표하는 저작으로서 나카토미노하라에(신도 기도문의 일종)에 대한 주석서인 증신불혼해를 들 수 있다. 이 책에 의하면, 신도의 나카토미노하라에는 부처의 가르침이자 방편이며, 아마데라스는 곧, 다이니치노라이와 하나라는 것이다.

신도 전문가들의 분류방식에 의하면 신도는 매우 다양하게 분류되어진다.¹⁶⁾ 즉, 일본 각지의 많은 미신적 관습들을 총괄하는 의미의 민족 신도, 역사적 창시자들과 경전, 조직화된 구성원들과 체계화된 교리 및 특유의 의식을 가지고 있는 분파신도, 일본의 모든 지역에서 발견되는 신전들과 관련된 신사신도, 가정에서 행해지는 특별한 의식인 가정신도, 천황궁내에서 천황족이 지키는 황가신도, 오곡백과의 풍작을 비는 집단적인 제사로서의 원시신도, '일본은 신의 나라'라는 신국사상을 이론화하게 한 이세신도 등이 있다. 그러나 크게 분류할 경우에는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교파신도와 신사신도이다. 이들의 신도는 많은 차이가 있다. 교파신도의 경우 이러한 다양한 신조에 의해 교파를 나누기도 한다. 반면 신사신도는 자신만의 교리 등에 구애받지 않고 일본 곳곳에 설립되어 있는 신사에 가서 의식을 행한다.¹⁷⁾

일본의 모든 구조는 천황중심으로 사회의 질서와 국민의 안정, 탄탄한 경제력을 기본으로 한 종교인 신도가 전 국민을 결속시키고 있었다. 그러나 1998년에 NHK 방송문화연구소에서 실시한 설문조사의 결과를 보면 천황에 대한 감정에 대한 질문의 답을 살펴보면 '존경' 19퍼센트, '호감' 35퍼센트인 반면 '무감정' 44퍼센트, '반감' 1퍼센트의 결과로 '무감정'이 가장 높으며, '호감'이라고 답한 사람이 '존경'이라고 답한 사람보다 높았다. 매 조사의 결과 '존경'이라고 답한 일본인이 점점 감소추세에 있다는 것은 젊은이들 가운데 천황을 포함한 신도에 대해 그다지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지 않다고 생각되어진다.¹⁸⁾ 그렇지만 천황을 비롯한 신도는 일본인의 정신세계의 기본바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기독교적인 사상과는 대립되는 측면이 많다. 일본인의 정신적 지주인 신도는 일본선교의 커다란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16) Norman Anderson, 세계의 종교들, 민태운 역 (서울: 생명의 말씀사, 1985), 284.

17) Josh McDowell & Don Stewart, 이방종교, 이호열 역 (서울: 기독지혜사, 1989), 149.

18) NHK방송문화연구소 편, 현대 일본인의 의식구조, 126-127.

2. 불교

불교가 처음 공식적으로 일본에 전해진 것은 552년 백제 성명왕 때인데, 그 당시 일본의 훗미 천황에게 불상과 불경이 전해지면서 시작됐다고 한다.¹⁹⁾ 불교는 본래 무신론을 토대로 한 사상이나 정치적 이데올로기가 아닌 보편철학의 종교이다. 그런데 일본에서는 이것이 조상숭배, 장례식 등과 연결되면서 일본인의 생활을 지배하는 국가 종교가 됐는데 그 이유는 지배자들이 교묘한 정치적 수단 내지 도구로 이용했기 때문이다.²⁰⁾

594년에는 불교가 마침내 국교로 인정이 되었고, 그 이후 불교는 일본 사회에 매우 강한 영향력을 끼치며 존재해 왔다. 이렇게 전해진 일본불교의 종파는 나라시대인 7세기경에 법상종, 삼론종, 화엄종, 율종, 구사종, 성실종의 6개종이 있어 남도 육종이라 불리며 모두 번성하였다.²¹⁾ 7, 8세기에 불교와 신도는 신불습합이라고 말하는 신도와 불교를 혼합시켰다. 이 신불습합으로 인해 불교는 일본사회로 쉽게 뿌리내릴 수 있는 계기가 됐다. 이것은 불교 측에서 주도하여 불을 신의 상위에 놓고 신도의 신들은 부처의 가르침을 받아 보살이 된다고 하였다. 그래서 불교인들은 신도의 신들에게 불교식의 이름을 붙여 주었다. 그 대표적인 것으로 천조대신(아마테라스 오오카미)을 대일여래라 하였다.

불교는 일본에 들어와 점차 확장되면서 일본식의 불교로 자리잡아가게 되었다.²²⁾ 그러나 이러한 계급과 신분을 초월한 불교도 14세기에 이르러서는 교리적인 면보다 교단의 확장과 발전을 목적으로 하여 권력과 결합하여 세속화되는 경향이 현저하였고 본래의 성격이 많이 변화되어져 권위종교, 특권종교가 되어버렸다.²³⁾ 이렇게 된 이유는 불교를 막부의 국가통치에 적합한 형태로 만들기 위한 도쿠가와 막부의 야심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²⁴⁾ 도쿠가와 막부는 고유 종교인 신도와 조상숭배가 내용에 있어서

19) 무라카미 시게요시, 일본의 종교, 최길성 역 (서울: 소화출판사, 1995), 38.

20) ひらさちや、佛教と知識百科 (東京:主婦と生活社, 1985), 35.

21) 유기남, 일본을 알자, 27.

22) 민두기, 편, 일본의 역사 (서울: 지식 산업사, 1980), 56-57.

23) 김경희, “선교를 위한 신도이즘의 종교사회학적 연구” (석사학위논문, 아세아연합신학대학원, 1983), 25.

교의적인 면과 조직적 체계가 약했고, 추상적이며 애매모호한 사상이었기 때문에 기독교를 대항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²⁵⁾ 그래서 기독교를 탄압하기 위한 것으로 모든 국민을 필히 어느 한 절에 소속하게 했고 반드시 불교식으로 장례식을 해야 하는 사창제도를 제정하였다.²⁶⁾ 또한 이 시기에 신사와 같은 사찰이 일본의 전역에 세워졌으며, 일본의 대다수의 가정에 카미다나와 불단이 존재하게 되었다.²⁷⁾

이러한 번성기를 지나고 불교도 1868년 막부시대가 무너지고 메이지유신시대가 되면서 탄압을 받기 시작하였다. 그 이유는 일본정부가 새로운 국교로서의 신도를 만들려고 한 것도 있었지만, 그것보다는 불교의 부정축재와 정부와 결탁한 세속화로 인하여 민중들의 불만이 팽배해 있었기 때문이다.²⁸⁾ 일본 불교는 기존 종교인 신도를 적극적으로 수용하여 꾸준히 불교신자를 확보해 나갔다. 일본 불교가 기존종교인 신도와 다른 특징은 첫째로 타종교를 포괄적으로 모두 수용하여 협력한다.

둘째로 조상숭배의 종교라는 것을 강조하여 죽은 조상들을 모시는 조상숭배를 통하여 일본인들의 관습을 잘 이용한 것과 더불어 장례를 불교식으로 거행하여 일본인들 생활에 밀접하게 다가갔다. 셋째로 현실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산 속이 아닌 도시 안에 위치하여 일반시민들에게 휴식을 줄 수 있도록 시민공원 등을 만들어 누구나 쉽게 불교와 접할 수 있게 하였다.²⁹⁾

이런 시기를 겪은 일본의 불교는 2001년 통계에 의하면 사원의 숫자가 77,110개나 되며, 또한 불교의 신자 수는 일본 인구의 약 76퍼센트 정도의 9,549만 명이나 되는 큰 교세를 이루고 있다. 이렇듯 일본에서는 대부분의 국민들이 신도와 불교의 영향력을 받아 왔기 때문에 유일신을 주장하는 기독교가 신도와 불교를 배제하며 자리를 잡는 것은 어려울 수밖에 없는 것이다.

24) 존 워노로프, 일본은 망한다, 고유석 역 (서울: 우마당, 1981), 30.

25) 데라다 유이찌, 데라다 리사, 일본선교의 비밀을 벗긴다, 광명옥 역 (서울: 베다니, 1995), 133-134.

26) ひろさちや、 37.

27) 오가다 마모루, 한일 문화비교와 기독교사, 황바울 역 (서울: 갈렙리, 2002), 51.

28) 김경희, “선교를 위한 신도이즘의 종교사회학적 연구”, 25.

29) 이미라, “제자훈련을 통한 일본교회 성장” (석사학위논문, 총신대, 1999), 25 재인용.

3. 유교

레슬리 리알(Leslie Lyall)이라는 선교사³⁰⁾는 유교는 종교라고 하기보다는 윤리로 보는 것이 옳다고 하였다. 그 이유는 유교에는 신에 대한 개념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유교가 강조하는 점은 사서에 표현되어 있는 대로 밝은 덕을 밝히는 것이며 이 법(理法)에 따른 자연의 질서와 엄격한 윤리적인 법에 입각한 사회질서를 존중하는데 있다. 따라서 국가는 학식과 윤리적인 지혜의 소유자에 의해서 통치되어야 한다.³¹⁾

일본에 유교가 전래된 것은 4세기 말, 백제에서 논어와 천자문을 들여온 왕인과 아직기에 의해서라고 하지만, 본격적인 유교의 전래는 불교와 거의 같은 시기인 6세기 초 백제에서 오경박사가 오면서부터이다.³²⁾ 이렇게 전래된 유교에 대해 일본인의 관심은 종교적 측면보다 유교가 지닌 현실적인 측면, 즉 중국이라는 거대한 나라를 다스리는 정치 시스템이라는 데 있었다. 그래서 유교의 영향력은 그 성격상 불교보다는 작지만 정치체제, 사회기관, 윤리, 도덕 면에서는 큰 영향력을 지니고 있다. 유교가 조상숭배에 준 영향력은 유교의 예의, 윤리, 도덕, 천명이라는 원리를 통해 눈에 안 보이는 영적 세계에 눈에 보이는 질서와 의식적인 요소를 가져다줌으로써 권위와 조직을 세우게 한 것이다.³³⁾

전래된 초기에는 불교에 가려져서 겨우 명맥만을 유지할 뿐이었지만, 17세기 중엽집권적인 도쿠가와 막부시대에 이르러서는 유학이 유력한 세력으로 받아들여져서 그 영향은 교육이나 정치이론 분야에 커다란 자극제가 되었다. 에도시대에도 조선과 마찬가지로 주자학을 관학으로 승인함으로써 유교가 공식적으로는 일본의 사상계를 독점할 수 있는 상황이 전개되었다. 에도시대의 유교사상은 265년간 이어져 내려온 사농공상의 신분질서를 정당화하는 체제상의 가치규범이었다. 유교사상은 무사계급뿐만 아니라 서민 교육기관을 통해 국민들에게까지 깊숙이 침투하여 그들의 일상생활의 전반을 규제하고 있었다. 그러나 일본은 그들의 전통종교인 신도와 중국과 조선으로

30) 레슬리 리알은 중국 오지 선교회의 간사이며 중국내륙 선교회에 소속되어 1951년까지 23년간을 지냄.

31) 채필근, 비교종교론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1980), 219.

32) 무라카미 시게요시, 일본의 종교, 48.

33) 데라다 유키찌, 데라다 리사, 일본선교의 비밀을 벗긴다, 135-136.

부터 전래된 불교, 그리고 토쿠가와 시대의 국가윤리인 유교가 한데 섞이면서 신·불·유가 서로 상해하지 않고 공존하는 종교·도덕의 다원적인 사상 구조를 유지했다.

특히 유교의 인생철학과 우주론에 의하면, 우주에는 사람과 물질로 이루어진 세계를 만들어 내는 도리가 있어 사상 층에 작용하고 있다. 이러한 유학의 가르침이 중요한 이유는 오랜 동안 사상과 행동, 철학과 정치체제에 새로운 통일성을 마련해 주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유학자들의 가르침이 막부통치를 뒷받침해 주는 근거가 되며 국내의 평온을 유지하기에 적절하다고 평가되어 도입되었던 것이다.³⁴⁾

유교사상은 19세기에 이르러서 유럽의 서구사상에 의하여 점차 사라져서 이제는 유교인들이 거의 사라져 버렸다. 한 가지 남은 것은 일본의 사회구조와 가치관, 윤리관 등에 유교적인 요소가 잔재하고 있다.³⁵⁾ 즉 일본의 유교는 한국처럼 유일 일원적 통치 이데올로기로서 군림한 적은 없었다. 그러나 21세기를 바라보는 현대의 일본에게도 유교 예교제(禮敎制)의 근간인 충과 효의 가치관만은 남아 있다. 이것이 바로 같은 유교문화로서 우리나라와 일본의 본질적인 공통점이라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불교가 지니는 사상적 배경과 유교가 지니는 의식적이고 조직적인 배경을 통해 천황제와 조상숭배는 어떤 의미에서 완벽한 체계를 갖추게 된 것임을 알 수 있다.³⁶⁾

4. 신흥종교

신흥종교는 주로 사회적인 변혁이나 재난의 시기에 가치관의 붕괴와 혼란을 극복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발흥되었다. 패전으로 인한 국가 이념의 붕괴나 세속화로 말미암아 기존의 제도나 상징체계를 벗어나려는 욕구가 일어나자 이를 보다 개인적인 면에서 현실적인 필요를 채워 주고자 발생하게 되었다.³⁷⁾ 신흥종교연구를 개척한 사

34) 존 워노로프, 일본은 망한다, 고유석 역 (서울: 우마당, 1981), 210.

35) 민두기 편, 일본의 역사, 174. 예를 든다면 일본의 가족생활이 가부장제라는 점과 무사도의 충(忠)과 효(孝)의 강조 등이 그것이다.

36) 이세영, “일본선교의 상황화적 접근방안” (석사학위논문, 침례신학대학원, 2000), 26.

37) 유기남, 일본을 알자, 37.

람으로 사끼 아끼오(佐木秋夫)는 신흥종교의 특색을 종합하여 다음과 같이 밝혔다.

첫째, 현세이익 본위이다. 주술적 성격이 강하다. 셋째, 미신적이다. 넷째, 교리가 빈약하다. 다섯째, 교주를 살아 있는 신으로 높이는 경향이 있다. 여섯째, 샤머니즘의 요소가 보인다. 일곱째, 의식이 간단하다. 여덟째, 대중성이 있다. 아홉째, 열광적인 경향이 강하다. 열째, 권위주의적이다. 열한째, 집단의 조직이 운용된다. 열두째, 매스컴을 활용한다. 열세째, 기업적 성격이 강하다.

이와 같은 특징들을 살펴볼 때 일본의 신흥종교라는 것은 일본인들에게 대중성을 띠고 일본인들에게 잠재되어 있는 샤머니즘적인 세계관을 움직여 접근하고 있음을 발견하게 된다. 또한 일본인들의 조상숭배문제에 대하여서도 교묘하게 교리화하여 회원확보에 성공을 거두고 있음을 볼 수 있다.³⁸⁾

1970년대 초부터 급격히 일어난 신흥종교의 특징 중 하나는 도시의 많은 젊은이들이 영술(靈術)이나 기적을 강조하는 종교단체로 끌려 들어가고 있다는 점이다. 그 이유는 고도의 경제성장으로 도시화가 진행되고, 도시화와 함께 도시로 몰려온 사람들이 도시의 좋지 않은 요소 즉, 공해, 생존경쟁, 대기오염 등의 요인으로 인해 힘들어서 탈출구를 찾으려 하지만 기존의 큰 규모의 종교들은 평안과 위로를 받기에는 너무 부담스러워서 가족 같은 공동체적 특성을 가진 작은 종교단체들이 늘어나고 있는 것이다.

1998년 NHK방송문화연구소에서 실시한 여론조사가 이러한 사실을 뒷받침해 주고 있다. 16-29세의 젊은층의 조사결과 '기적'과 '역학, 점'에 대해서 증가추세가 지속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30-49세의 중년층에서는 '영적인 정신세계'에 대한 모든 항목에서 거의 점차적인 증가 경향을 나타내고 있다. 그러나 처음에도 서술한 것처럼 오음진리교 사건 이후로 종교에 대한 사람들의 마음이 감소하고 있는데 이것이 일과성인 것인지에 대해서는 차후의 조사 결과를 기다릴 수밖에 없다.³⁹⁾

신흥종교들의 교리는 그 내용이 대개 조상위신, 운명론, 인과응보, 현세이익 등으로 사람들의 실생활과 접해 있어서 실제적이며 구체적이다. 한편, 주술을 통한 예언과 병 고침을 포교의 주무기로 사용하여 사람들을 미혹하고 있다.⁴⁰⁾

38) 권운일, "21세기를 향한 일본선교" (석사학위논문, 서울신학대학원, 1995), 7.

39) NHK방송문화연구소 편, 현대 일본인의 의식구조, 134-136.

40) 유기남, 일본을 알자, 63-64.

이상에서 살펴본 것처럼 일본에 토착된 민간종교와 외래종교는 서로간의 긴밀한 관계를 갖고 혼합주의의 성격을 띠고 있다. 자신에게 유리하다면 다른 종교의 필요한 것을 받아들이고 자신의 색깔을 변화하여서라도 교파적인 열세와 교리적인 모순을 극복하여 일본 사회에 정착하거나 영향력을 발휘하게 되었다. 그 대부분은 조상숭배와 생활 습관적인 요소를 통하여 일본사회에 정착할 수 있었던 것이다.

타종교와 달리 기독교는 그런 요소들을 배제하며, 유일신의 교리를 유지하며 일본사회에 정착하려고 하여 어려움을 겪게 되었다. 그런 가운데에서도 뿌리를 내려 정착해 온 기독교와 급변하는 현시대에서 성공하는 기독교에 대해서는 앞으로 제 3, 4, 5장에 걸쳐서 논하도록 하겠다.

제 2 절 일본인의 의식이해

모든 나라에는 민족적인 특성을 나타내는 독특한 의식구조가 있다. 그것은 그들의 역사와 생활습관, 환경 등의 요인으로 인해 그들의 생활이 되어 버렸다. 이렇게 그들의 몸에 배어버린 의식들을 이해하지 못한다면 그들과 가까이하고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는 데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다. 하물며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사랑을 갖고 그들을 이해하고 포용하고 사랑할 수 있어야 하는 데, 그 시작이 그들만의 의식구조를 알고 이해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다.

본 절에서는 일본인만의 의식구조를 살펴보고자 한다. 일반적으로 많이 알려진 것이기는 하지만 그것을 알고 이해한 후에 유일신이신 하나님을 전해야 하는 기독교 이기에 어려운 점과, 그것에 맞게 대처하여 그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방법을 생각해 보고자 한다.

1. 혼네(本音)와 타테마에(建前)

일본인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생각은 혼네와 타테마에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외국인들이 가장 이해하기 어렵고 힘들어하는 부분이기도 하다. 혼네는 대체로 직접 말로 표현하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들의 본심을 뜻하고, 타테마에는 본래 정해져 있는

방침이나 표면적인 태도를 의미한다. 이 의식은 군웅들이 서로의 영토를 넓혀가기 위해 전쟁을 일삼았던 전국시대와 사무라이들이 통치하던 에도막부시대를 통하여 자신의 목숨을 지키기 위해서 생긴 것이라고 한다.

일본인들은 자기 주변의 사람들을 그룹으로 무리를 지어서, 그룹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혼네 즉, 자신의 본심까지도 터놓고 얘기할 수 있으나 그룹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타테마에의 자세로 다가간다. 이렇듯 그룹 안에 있는 사람들은 우찌에 해당하며, 그룹 밖에 있는 사람들은 소포에 해당한다.

우찌에 해당하는 사람들과는 가족관계와 같이 개인의 권리, 의무와 같은 관념이나 인식이 희박할 정도로 밀착된 인간관계를 이루고 있는 데, 이것을 일명 '나카마관계'라고 한다.

일본인들 사회에서는 이렇게 혼네와 타테마에의 양면성을 가지는 것은 대개의 경우 화(和)로써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 좋게 받아들여진다. 그렇기에 일본사람은 대화 속에 타테마에와 혼네를 교묘하게 구분해서 사용하는 것에 대해 대립과 마찰을 해소하고 조화시키려는 것으로도 볼 수 있으나, 나쁘게 보면 표리부동한 이중성격이라고 말할 수 있다.

이러한 이중적인 성격에 대해, 유명한 국화와 칼을 쓴 루스 베네딕트(Ruth Benedict)는 일본인의 성격으로서 전혀 대립되는 국화와 칼 의 성격이 아무런 모순 없이 존재하는 것이 일본인이라고 말하고 있다. 즉 '국화'는 온순, 심미적, 예의, 순응, 겸양이, 진취성을 상징하는 반면 '칼'은 호전적, 군국주의적, 오만, 완고, 용감, 보수적임을 나타낸다고 한다. 즉 혼네와 타테마에라는 두 단어는 개인의 본심과 사회적으로 제한된 의견이라고 하는 대립 개념으로써 사용되고 있는 것이다.⁴¹⁾

선교사들은 이 혼네와 타테마에로 인해 일본인에 대해 자신을 너무 많이 열고 역으로 상대가 그만큼 열지 않는 것에 대해 상처를 받기도 한다. 또한 일본인이 말하는 의도를 파악하는 것을 크게 어렵게 여기며, 갈등을 자아내기도 한다. 그러나 이 모든 것에는 '인내'라는 요소가 필요하다. 선교사 자신이 일본인의 '우찌'에 해당되도록 친밀해 질 때까지 기다릴 필요가 있다. 설부른 행동은 오히려 시간이 오래 걸리게 되기도 한다.

41) 사와 마사히코, 일본기독교사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1979), 53.

2. 집단의식과 직업의식

일본사회와 문화를 형성하고 있는 대표적인 특징 중의 하나가 집단의식이다. 일본사회에 집단의식이 생겨난 이유를 살펴보면 조상숭배를 통해 집, 마을, 국가라는 공동체가 강한 집단성과 결속력으로 맺어지는 데 원인을 들 수 있겠다.

일본인에게 있어서 집단의식은 공동체의 공동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개인의 희생도 자연스럽게 요구되기도 하며, 만약에 희생을 하지 않으면 견디기 어려운 사회적 강제(強制)가 작용한다. 결국 집단에 있어서 개인의 정체성을 상실하게 되는 것이다.

일본은 조직이 매우 발달되어 있는 데 그것은 오래 전부터 분업화가 잘 이루어져 있어서 혼자서 일을 다 감당하는 것이 아니며 집단이 그 일을 나누어서 감당해야 하게끔 하였다. 이 집단의식을 통해서 일본은 혼자의 힘은 약하지만 집단의 힘은 강하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 좋은 의미로는 국가의 기업의 발전을 도모하기도 하지만 부정적 의미로는 집단적 과격행위로 표출되는 데 크게는 제2차 세계대전과 작게는 이 지메(집단따돌림)를 예로 들 수 있겠다.

이렇듯 조직, 집단을 위해서 자신의 개인으로써의 존재가치를 인정하지 않는 그 부분이 선교의 장애요소가 되고 있다. 개인의 존재가치가 없으므로 해서 일본인들은 자신이 소속된 집단의 규율과 윗사람의 말에 대해서 의무적으로 복종하여 집단에서 벗어나지 않으려고 한다. 그러기에 개개인에게 복음을 전하기에는 집단이라는 틀 속의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를 무시할 수 없기에 어려움이 있다. 이러한 일본인의 집단 의식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으로는 개인의 개성을 살려줄 수 있도록 자기정체성에 대해 강조하며, 또한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을 수밖에 없다.

위와 같은 집단의식이 결국 현재 일본의 직업의식을 낳았다고 할 수 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평생직장'이라는 말이 당연하게 받아들여지던 나라가 일본이었고, 잔업이 많은 나라 역시 일본이었다. 물론 지금의 젊은 세대는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있고, 불경기의 일본으로써는 지금까지의 모습을 유지할 수는 없게 되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일을 하는 그 안에서는 직업의식이 자연스럽게 발휘가 된다.

일본인들에게 일을 중요하게 여기게 된 이유는 집단의식을 통해서 볼 수 있듯이

자신이 단체 속에서 필요한 존재가 되기 위해서이며, 결국 자신에게 주어진 일을 통해 인생의 현실감을 느끼게 된다. 만약 자신이 필요 없는 존재가 되어 자신이 소속한 집단에서 버림을 받는다면 자신이 가야할 곳을 잃게 되는 것이다.

결국 이러한 이유로 인해 일본교회 내에서는 교회에 잘 출석을 하다가도 일이 생기기만 하면 결석을 하는 것은 당연하게 여겨야 한다. 물론 일이 바빠지면 교회에 나오는 횟수도 줄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일본사회에서는 주일성수라는 것은 일본인의 의식구조를 뛰어넘는 요구가 되는 것이다. 앞서서도 언급하였듯이 이 일본인의 직업의식에 대한 인식 결여나 무시하여서 주일성수를 못하는 성도에게 무조건적인 질타와 요구는 그들로 하여금 교회에 다닐 수 없다고 느끼게끔 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일본인의 직업의식을 잘 활용하여서 교회 내의 일도 그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일'로서 여기게끔 하면 교회 일에도 열심을 내게 되고, 교회 내에서의 인간관계에도 자연스럽게 형성되게 될 것이다.

3. 조화 중심 사상

앞에서 말한 집단의식은 일본인의 삶에 있어서 다른 사람과의 관계, 즉 인간관계를 무엇보다도 중요하게 만들었다. 그래서 일본인에게는 집단의 의견이나 유익에 자신을 맞추거나 희생하는 화의식이 자리 잡고 있다. 자신이 속한 집단의 유익을 위해서는 자기 자신을 죽이고 충돌보다 타협이나 순응을 택하는 것이다. 속담을 살펴보면 그것을 더욱 잘 알 수 있다. "긴 물건에는 감기면 된다."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같이 간다." "편치 않는 과거는 물에 흘러 잊어버린다." 이 속담들은 화 의식을 잘 드러내 주고 있다.⁴²⁾

이런 화 의식은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는 생각 때문에 집단 안에 어떠한 문제가 발생되더라도 그것을 올바르게 지적하거나 문제 삼지 않고 묻어두어 결국은 더욱 큰 문제가 되게 된다. 만약 집단 안에서 자신의 집단의 문제를 문제화할 경우에는 역탈행위로 간주하여 집단의 구성원들로부터 이지메를 당할 것임은 분명하다.

이러한 화(和)의식은 집단의식과 같이 개인의 개성의 결여로 인해 기독교 선교에

42) 변재창, "일본선교 보고와 전망", 아시아기도, 1986년 11월호, 3.

방해가 되는 요소이다. 개성을 살려주고 인정해 주기 위해서는 '개인'의 철저한 신앙 훈련으로써 제자훈련이 활성화되는 것이 좋다. 우찌무라 간조는 나는 어떻게 그리스천이 되었는가?에서 그도 역시 가족 조직 안에서, 종교의 조직 안에서 생활하였지만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을 때 그의 완고하신 아버지도 예수 믿게 할 수 있었던 것이다. 이렇듯 개인에게 제자훈련을 통하여 자신만의 신앙을 구축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일본 선교를 한다고 하면서 일본인들을 알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한다면 난관에 봉착하게 될 것은 당연한 일이다. 이는 일본인들의 의식의 옳고 그름을 판단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들의 독특한 의식을 알지 못하면 그들에게 다가가지 못하기 때문이며, 일본인들에게 맞는 선교의 방법을 찾을 수도 없기 때문이다.

일본인의 의식을 살펴보면서 그것들을 외국인인 선교사들이 모두 따라해야 한다고 말하는 것은 아니다. 이것들을 이해한 다음에 자신의 입장이나 생각을 전하는 것이 옳은 방법이라고 말하는 것이다. 일본인에게 삶이 되어 생활 전반에 나타나는 이러한 의식들을 완전히 부정해 버린다면 더 이상의 일본인과의 대화는 기대할 수 없을 것이다.

제 3 장

일본의 기독교 역사와 일본교회의 장단점

일본에도 일찍이 당 나라를 경유하여 경교가 들어왔다고 주장하지만 아직도 이 문제는 학문적 논란으로 남아있기 때문에 정식 선교역사로는 많이 취급되지 않는다. 따라서 일본의 기독교 역사는 로마 가톨릭 선교로부터 시작한다. 어느 나라나 마찬가지로이지만 일본의 선교역사는 일본의 정치와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다. 왜냐하면 한 국가의 주도세력이 어떤 정치적인 입장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 기독교 선교에 도움이 되기도 하고 도리어 박해의 원인이 되기도 하기 때문이다. 기독교 선교는 항상 도전을 받는데 일본도 예외는 아니다. 특이한 것은 일본의 기독교 선교는 일본의 개방정책과 근대화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 중국은 서구 문물과 기독교에 대하여 폐쇄적 정책을 취하였고 한국은 중국을 따름으로 근대화에 뒤 떨어지고 말았다. 반면 일본은 임진왜란 이전에 일찍이 개방 정책과 더불어 근대화의 수단으로 기독교를 받아들였다. 그러나 서양문물을 도입하기 위한 수단으로 기독교를 허용한 것이지 정신적으로는 기독교를 아직도 철저히 배제하고 있다. 일본은 종교의 자유가 보장된 나라이지만 사회와 문화구조가 철저히 기독교를 배제하는 특이한 나라이다.

제 1 절 일본의 기독교 역사

1. 초기 선교사의 시대(1549-1850)

일본에 처음으로 기독교가 전해진 것은 1549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최초의 선교사는 천주교의 예수회(Jssuits Order)의 프란시스 사비에르였다. 그는 로마 가톨릭 선교역사에서 영웅적 인물로서 인도에서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일본 등 아시아의

넓은 지역을 선교한 자이다. 특히 그는 토착화 선교를 시도한 최초의 선교사라고 하여도 과언은 아니다. 그러나 그의 토착화 이론은 동시에 가톨릭의 다른 선교단체로부터 도전을 받기도 하며, 그의 배는 대포를 싫었기 때문에 정복적 선교의 대명사로도 통한다. 사비에르에 대하여 선교역사가 스티븐 니일은 다음과 같이 말한다.

그는 로마 카톨릭 선교사들 중에서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교 전체 역사상 가장 위대한 선교사의 한 사람이 되었다. 열정적이면서도 훈련된 성정, 깊은 헌신, 영혼을 구원하려는 열심말고도 사비에르는 정치가의 넓은 식견과 전략가에게서 찾아볼 수 있는 대단위의 조직력을 겸비하고 있었다. 그는 1542년 하나의 평범한 선교사로서가 아니라 포르투갈 왕의 대표로서 상당한 군사력과 국왕에게 직접 교신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인도로 갔다. 동시에 그는 교황 사절로서의 폭넓은 권위를 교황으로부터 위임받았다.⁴³⁾

사비에르는 1506년 스페인의 나바르(Navarre)라는 곳에서 태어난 귀족신분이었다. 그는 파리대학에서 공부하고 신부가 된 후 교황의 명으로 포르투갈령인 인도에서 1542년부터 1548년까지 사역하였다. 사비에르는 백성들에게는 거지 신부처럼, 통치자를 만날 때는 군주와 같은 위세를 가지고 대했으며, 힘겨운 여행을 할 때도 추위와 배고픔에 아랑곳하지 않고 도보로 긴 여행을 하면서 담대하게 복음을 선포하였다.⁴⁴⁾

당시 서구는 일본에 대하여는 마르코 폴로의 견문록을 통하여 약간 알고 있을 뿐이었는데, 좀 과장된 면이 있는 것 같다. 그는 일본을 다음과 같이 서구에 소개한다.

치판구(Chipangu)는 대해의 동편에 있는 섬으로 대륙에서 1500마일 거리에 있으며 대단히 큰 섬이다. 백성들은 피부가 희고 개화되었으며 용모가 아름답다. 그들은 우상 숭배자들이며 아무에게도 의존하지 않는다. 그들이 소유하고 있는 금의 분량은 무진장이다. 더 나가서 궁전의 거리와 방들의 바닥은 모두 넉넉히 손가락 두 개의 두께가 되는 판석(板石)과 같은 평판으로 된 금이었다. 창문들도 금이었다. 그러므로 이궁전의 전 재산은 상상을 초과하는 것이다.⁴⁵⁾

43) Stephen Neill, 기독교 선교사, 홍치모, 오만규 역 (서울: 성광문화사, 1992), 188.

44) 유기남, 일본을 알자, 66.

45) Stephen Neill, 기독교 선교사, 196.

사비에르는 인도에서 사역 중 일본에서 사람을 죽이고 도망 온 야지로라는 청년을 우연히 만나게 된다. 그는 사직 당국의 처벌을 피하여 변칙적인 방법에 의하여 고아로 피신하였었다. 사비에르는 일본에 대한 정보를 듣고 일본 선교를 결심하게 된다. 그는 야지로와 다음과 같은 문답을 한다.

나는 그에게 내가 만약 그와 함께 일본으로 들어간다면 일본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을 환영하겠느냐고 물어보았다. 그 사람은 대답하기를 먼저 나에게 여러 가지 질문을 하고 내가 어떻게 답변하는지, 그리고 얼마나 많이 아는지를 알기까지는 그들이 환영하지 않을 것이라고 하였다. 무엇보다도 그들을 내가 가르치고 신앙하는 것과 일치한 생활을 하는지의 여부를 보려고 할 것이라고 하였다. 만약 내가 그 두 가지를 실천하고 그들의 질문을 만족하게 답변하고 또 내가 처신을 잘하여 그들의 비난 받을 짓을 하지 않으면 그때는 6개월 동안 나를 알아본 이후에 국왕과 귀족들과 사방에 있는 백성들이 그리스도인이 되려할 것이라고 하였다. 이 사람의 말을 따르면 일본 사람들은 전적으로 이성의 법을 따라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이다.⁴⁶⁾

사비에르는 야지로를 통하여 일본에 대한 정보를 청취하였다. 그가 아는 일본인은 매우 긍정적이었다. 일본인은 매우 도덕적이며, 기품 있고 재능이 풍부하고 도리를 추구하는 국민으로 지금까지 발견된 여러 나라 가운데서 가장 뛰어난 국민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이 일본이라는 나라야말로 그리스도를 전하는데 합당한 나라라고 판단하고 야지로와 함께 가고시마에 도착하여 우선 야지로의 가족 및 친척과 친지들에게 복음을 전했다. 그의 전도는 큰 능력이 있어 불교의 종이 변화되어 예수를 믿고 전도자가 되는 역사가 일어났다. 특히 로렌소라고 하는 종이 변화된 후에 일으킨 지방전도의 열풍은 대단했었다고 한다.⁴⁷⁾ 그러나 야지로는 그의 고국에 대하여 거의 아무것도 알고 있지 않았다. 그는 높은 교육을 받은 사람이 아니었다. 그가 일본어로 번역한 그리스도교 용어들은 선교사들로 하여금 과오를 빚도록 하였으며, 이것을 후에 알게 된 선교사들은 비탄해 마지않았다.⁴⁸⁾

46) Ibid., 197.

47) 후루야 야스오, 오키 히데오, 일본의 신학, 권영국 역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1994), 47; 권윤일, 21세기를 향한 일본선교, 7 재인용.

48) Stephen Neill, 기독교 선교사, 197.

당시 사비에르는 일본의 문화와 도덕 및 가치관에 정면으로 도전하였다. 그가 알고 있었던 일본과는 거리가 있었다. 당시 일본은 온갖 부도덕과 우상숭배가 성행했으며 승녀들의 도덕적 타락은 극에 달하였다. 사비에르는 일본의 모든 지역에서 일어나는 온갖 부도덕과 우상숭배를 질타하는 한편, 승려들과 도덕적, 윤리적 문제를 가지고 논쟁을 벌여 그들을 서양적 논리와 학식으로 혼란 속에 몰아넣었다. 아울러 그의 설교는 권위가 있고 확신에 차 있었기 때문에 일본인들을 충분히 굴복시킬 수 있었다.⁴⁹⁾

사비에르의 용감한 도전은 다이묘⁵⁰⁾들을 움직였다. 일본 다이묘들은 기독교에서 보다 발전된 형태의 진리를 발견하고 자신들도 개종하는 한편 인격적 감화에 의하여 혹은 강제로 백성들에게 권하는 정책을 통하여 새로운 변화에 대처하고 있었다. 특히 오다 노부나가는 그 당시 정치에 개입되어 있는 신도와 불교의 세력을 타도하기 위하여 가톨릭을 보호하고 장려하였으며, 선교사로부터 호의를 얻어 새로운 무기, 과학 기술 등 서양의 새로운 지식을 얻는 데 관심을 갖고 있었다.⁵¹⁾

특히, 태어나자마자 죽여 버리는 속아냄의 대상이 되었던 여아들을 선교사들이 데려다 키우므로, 한 영혼을 존중하는 기독교 사상은 서민들에게 더 호소력 있게 파고 들 수 있었다.⁵²⁾ 내세 중심의 종말론적 신앙은 무인 통치의 살벌한 사회 속에서 불안에 떨던 백성들에게 견고한 안정감을 심어주며, 믿으면 누구나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말씀은 일본인들에게 자기 정체감과 소속감을 심어 주었다.

사비에르 선교사를 뒤이어 1579년 일본에 온 알렉산드로 바리냐노 순찰사는 선교사들에게 일본어 공부와 문화 연구를 적극적으로 권하고, 일본인 스스로가 성경 교리를 지도할 수 있도록 일본인 성직자와 신도의 훈련에 주력했다.⁵³⁾

선교사들은 일본 전국을 통일한 오다 노부나가의 포교허가로 인하여, 1576년에 교오포에 난반지 교회당과 1580년에 아즈찌에 신학교를 설립하였다. 그리고 영주들의

49) 유기남, 일본을 알자, 66.

50) Stephen Neill, 기독교 선교사, 198. 당시 일본에는 250여명에 달하는 다이묘라고 하는 지방 군주들에 의하여 전국이 분할되어 있었다.

51) 김수진, 일본 개신교회사 (서울: 홍성사, 1993), 43-44.

52) 사와 마시히코, 일본기독교사, 70.

53) 다케다 기꾸코, 일본선교 전략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서울신학대학원, 1993), 27.

힘에 의하여 급속도로 성장하여 이찌구, 히라도, 야마구찌, 사카이 지역까지 이르게 되었다.

1580년 당시의 전도된 신자 수는 일본선교 역사 중 가장 효과적이었던 것으로 집계된다. 즉 신자수가 당시의 총인구 약 2천500만 명중 1퍼센트가 넘는 35만 명이었고, 1582년에는 신도 수 15만여 명, 교회당은 200여개, 선교사는 59명에 달하였고 1590년대의 신도 수는 당시 일본 총인구의 1.3퍼센트인 30여만 명이나 되었다. 이것은 1600년경에는 60만 명 이상으로 부흥되었으며 교회 수는 200개 이상이고 성직자가 모두 120명 기독교병원이 20여개이고 학교사역도 활발했었다.⁵⁴⁾

이런 성장의 배경에는 통상무역의 이익을 얻기 위해 가톨릭 신도를 우대한 영주들의 실리적 자세가 무엇보다 많은 영향을 미쳤다. 그러나 곧 수난이 따랐다. 상류지도층에서 기독교가 엄청나게 번창하자 여기에 위협을 느낀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키리시탄” 금지령을 발동한다. 영주와 제후들이 주축이 된 기독교 운동을 방치할 경우 자신의 통일노력에 도전이 될 것으로 간주하여 기독교로 개종한 다이묘들을 제거하기 시작하였다.

당시 대표적 다이묘는 노부나가 외에 오무라 스미다다로, 그는 나가사키의 땅을 교회에 바쳐 가톨릭 선교에 큰 공헌을 하였다. 또한 나가사키(長崎)는 일본 전국 복음화를 위한 선교의 중심지로 ‘소 로마’라고 불리기까지 하였다. 그러나 기독교에 호의적이던 오다 노부나가와 살해되고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뒤를 이은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정권을 잡자 그들은 기독교 사상이 중앙집권적 봉건체제에 거스르거나 도전한다고 생각하게 되었다. 그 이유는 크리스천들이 교리교육을 받고 일본 전통사상에도 없는 확고한 신앙사상을 가지게 되었기 때문이었다.⁵⁵⁾

집권자들의 기독교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은 금교와 박해로 나타났다. 초기 기독교의 박해의 주된 요인은 서구 제국들의 영토 확장에 대한 두려움 때문이며 또한 잦은 정변으로 인해 교체된 집권자에 대한 기독교적 대응을 충분히 갖추지 못한 것 때

54) 권운일, “21세기를 향한 일본선교”, 7.

55) 여기의 사상은 인간 평등관, 엄격한 도덕성 및 우주적 교회에 연결되어 있다는 세계성 의식, 그리고 가난한 사람과 박해받는 사람에 대한 사랑, 할복 부정, 권력보다 도리의 중식, 주군의 명령보다 하나님의 뜻에 대한 우선순위, 순교정신 등이었다. 사와 마사히코, 일본기독교사, 52.

문이었다.

더욱이 1593년 이후 예수회 선교사 외에 프란시스코 수도회 선교사들이 필리핀에서 들어오고 이어서 도미니쿠스 선교회, 아우구스티누스 수도회 등 선교회간의 민족감정, 경제적 이익 등으로 마찰이 일어났으며, 이들은 일본의 내부적 사정을 고려치 않은 채 무분별하게 선교를 하게 되어 막부의 신경을 자극하고 말았다.⁵⁶⁾

기독교 탄압은 엄청난 것이었다.⁵⁷⁾ 많은 신자들이 고문당하고 갇히고 사형에 처해졌으며 일부는 마카오와 마닐라 등으로 추방되었다. 대추방령이 있었던 1614년 이후 대부분의 신자들은 모습을 감추었다. 당시 신자들은 숨든지 혹은 외국으로 탈출하는 두 길을 택하였다. 일부 신자들과 선교사들은 베트남으로 탈출하여 베트남에서 신앙생활을 계속하였다. 250여 년간 기독교 포교가 금지됨으로 남은 신자들은 지하에 숨어있어야 했다. 250여년의 쇄국정책이 중국과 영국의 아편전쟁의 영향으로 막을 내리게 되었다. 그러나 이런 탄압에도 불구하고 250년간의 기독교 금지 기간동안에 여러 모양으로 감시의 눈을 피하여 불교와 신도의 복장을 하면서 기독교 신앙을 지켜온 사람들이 있었다. 이들을 ‘숨은’ 혹은 ‘잠복 크리스찬’ 이라고 한다. 이들은 겉으로는 모든 불교와 신도의 신자로 가장하면서 내면적으로는 기독교 신앙을 유지해 가는 생활을 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것들은 어디까지나 ‘위장’이었다.⁵⁸⁾ 그러나, 대부분의 “숨은 크리스천”의 경우 이런 오랜 생활로 인해 습관화되어 나중에는 그것이 그들의 본 모습이 되어 버렸다. 그리고 종교적 혼합(syncretism)에 약한 일본인들의 특성으로 인해 온전한 크리스천으로 다시 살지 못하고 역사 속으로 사라져 갔다.⁵⁹⁾

16, 17세기 동안 일본에서 로마 가톨릭 선교회의 실패라기보다는 신의 섭리라고 보는 게 타당하다. 일본에서 기독교 박해로 기독교는 사라진 것 같으나 놀랍게도 개신교가 들어 올 때 “숨은 크리스천”들이 지하교회로 존속하였다는 사실이 드러나서 세계를 놀라게 하였다. 일본은 기독교는 억압하였으나 서구 문명에 대한 지속적 관심

56) 사와 마사히코, 일본기독교사, 52.

57) 탄압은 5인조를 조직해 서로 감시하는 오인조 제도와 해마다 후미에를 실시하여 신자를 색출하여 제거하였다.

58) 이런 탄압 속에서 위장된 삶을 살아야 했기에 일본인들은 그들의 삶의 방식인 혼네와 다테마에의 이중구조를 갖게 되었다고 본다.

59) 차성화, 한국종교사상의 사회학적 이해 (서울: 문학과 지성사, 1992), 141.

으로 네덜란드와 무역을 계속하였는데, 이것은 후일 개신교에 문을 여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2. 개신교 선교와 개국(1850-1900)

일본의 개신교 선교는 일본의 개방정책과 근대화와 맥을 같이한다. 250년간의 도쿠가와 정권의 쇄국 정책은 19세기에 들어와서 국내외 정세가 개국의 방향으로 전환해야했다. 미국이 1853년 일본에 도착함으로써 서양문화는 급속하게 일본 속으로 들어갔다. 그리고 1858년에는 많은 개신교 선교사들이 일본을 선교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이미 미국은 이전에 미지의 땅 일본에서 선교의 문이 개방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기도와 헌금을 하며 선교를 위해 많은 준비를 하고 있었다. 이들은 성경을 일본어로 번역하여 준비하고 있었으며, 중국에서 많은 경험을 쌓은 유능한 선교사들이 다음 선교지인 일본을 위하여 간절한 열망으로 기도하고 있었다.⁶⁰⁾

가. 초기 선교사의 준비시기

초기 선교사의 선교사역은 크게 두 시기로 나눌 수 있는데, 먼저는 1859년부터 1873년의 키리시단 금지(切支丹禁制)의 법령이 해제되기까지의 준비시기와 다음으로 1874년부터 1890년의 발전시기이다. 준비시기(1859-1873)에는, 1859년 5월에 미국 프로테스탄트 감독교회 소속이면서 중국선교에 관여하고 있었던 리긴스(J. Liggihs)와, 6월에는 윌리엄스(C. M. Williams), 그리고 11월에는 미국 개척파의 비백(G. F. Verbeck) 등이 일본에 건너왔다. 이 세 사람 도착한 곳은 나가사키(長崎)였다. 그리고 제2그룹의 선교사에는, 1859년 10월에 도착한 미국장로교회 선교의사 헵번(J. C. Hepburn)과 이 보다 1개월 늦게 도착한 미국 네덜란드 개척파교회의 브라운(S. R. Brown), 그리고 시몬스(D. B. Simmons)가 있었다. 이들은 모두 가나가와(神奈川)에 도착했다. 이상의 선교사들은 모두 기독교의 선교사와 목사로서 공식적으로 일본에 건너온 최초의 사람들이었다.

60) 사와 마사히코, 일본기독교사, 86.

1873(명치 6)년까지 대부분의 프로테스탄트 교회의 교파는 선교사를 일본에 파송했다. 1871년에는 선교사가 28명이었는데, 1873년에 이르러서는 87명으로 증가했다. 1882년까지 209명의 선교사가 일본에 상륙한 것으로 집계되었으나, 사망이나 귀국 등으로 71명이 돌아가고 일본 내에는 138명의 선교사가 남아 있었다.⁶¹⁾

당시의 개신교 선교사들의 헌신적인 활동으로 인해 1890년에 이르러서는 일본전국의 개신교 신자수가 크게 회복되어 3만4천명에 이르렀고 가톨릭은 4만4천5백5명에 이르렀다. 이 같은 상황에 이르게 된 것은 선교사들의 신앙이 단순한 정통신학에 기초를 두고 있었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일본에 파송한 초기선교사들의 특징을 J. F 하우즈는 다음과 같이 소개하였다. 첫째는 전도에 있어 개인적인 회심을 강조했다는 점으로 구원의 확신에 대하여 깊이 있게 가르쳤다. 둘째는 성경에 대한 절대적인 신앙을 분명하게 가지고 있었으며 성경 전체가 하나님의 말씀이며 오류가 없음과 그 말씀의 권능을 깊이 신뢰했다. 그리고 셋째는 도덕적인 엄격성을 지닌 것으로서 성결한 삶을 살았고 이러한 삶은 그리스도를 닮아가려는 순수한 신앙 열정 때문이었음으로 판명된다. 넷째는 전도를 증시했는데 이들 선교사들은 모두 예수그리스도의 지상명령인 “가서 제자 삼는 사역”을 잘 알고 있었으며 이를 위해 완전히 헌신한 자들이었다.⁶²⁾ 이러한 개신교 선교사들의 분명한 전도자적 모습으로 인해 일본기독교의 불씨는 다시 살아날 수 있었고 아직도 그 맥을 이을 수 있게 된 것이다.

야나기다에 의하면, 일반적으로 초기의 선교사들은 단순한 보수적 신학과 목표를 가지고 있었다. 초기 선교사들은 뉴잉글랜드의 청교도적 신앙의 부흥을 추구한 대각성 운동에 기초해서 기독교를 이해하며 받아들인 사람들이 많았다. 이 대각성운동의 결과로 싹트게 된 해외전도 열정에 힘입어 보내진 사람들이었던 것이다.⁶³⁾ 오오하마는 초기의 선교사가 복음의 변증을 문화적 우월성에 있어서 시험하려고 했다고 서술하고 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그렇게 되었다 하더라도 그들의 동기는 일반적으로 볼 때 순수했으며 선교적인 것에 기인하고 있었다고 생각된다. 초기 선교사가 종사한 주요한 활동으로는 성서번역, 교육, 의료 전도 등을 들 수 있다. 야나기다는 성서번역에

61) 오가다 마모루, 한일 문화비교와 기독교사 (경기도: 도서출판 갈릴리, 2002), 94.

62) 유기남, 일본을 알자, 73.

63) 柳田友信, 日本文化史緒論 (東京: 聖書時報社, 1965), 10.

대해서 다음과 같이 서술하고 있다.

1872(明治 5)년 9월, 요코하마에서 열린 제1회 선교사 회의에서는 미국성서협회의 사업으로서 각 교파가 공동으로 신약성서의 일어 번역을하기로 만장일치로 가결했다. 이것은 실로 의미 깊은 위대한 결의였다.⁶⁴⁾

1864년(65년이라고도 함)에 발라(J. Ballagh)에 의해서 세례를 받은 개신교 최초의 일본인 회심자는 카나가와의 야노였다. 그리고 1872년 3월에, 요코하마(横浜)에서 일본 최초의 개신교 교회인 기독교 공회가 세워지기까지 11명(나가사키(長崎)에서 5명, 요코하마에서 6명만이 세례를 받았다. 이 시기에 있어서 교회성장은 더딘 것이었다. 그러나 선교사에게 영향을 받은 사람들은 기독교에 대해서 적극적이면서도 새로운 마음을 가지게 되었다. 나중에 트레버(Hugh Trevor)는 야마바야시의 견해를 다음과 같이 정리하고 있다.

이러한 성장의 결핍은 선교사의 순회나 전도의 제한, 일본인과의 커뮤니케이션의 불통, 키리시단(切支丹)금지령의 존속, 일본사회의 모든 계층사람들이 갖고 있었던 기독교에 대한 뿌리 깊은 편견이 원인이 되어 나타난 것이었다. 그렇지만, 선교사에 대한 새로운 태도가 영향력을 가진 사람들 사이에 싹트기 시작했다.⁶⁵⁾

이 시기에 복음은 일차적으로 옛 무사의 자제들에게 호소하는 힘을 갖고 있었으며, 다음으로 지방의 사람들에게도 영향을 미쳤다. 서양의 교육을 받기를 원하는 학생들은 외국인으로부터 영어를 배우고 싶어 도시로 몰려오기 시작했다. 선교사 집에서 시작된 이러한 수업들은 나중에 미션스쿨의 전신이 되었다.

다음으로 처음으로 기독교를 받아들인 사람들인데, 이는 많은 사람들에 의해 지적되고 있듯이 메이지유신 개혁에 의해 해체되어 몰락한 무사계급 출신, 더구나 주로 좌막부계의 번(藩)이나 도쿠가와 혹은 구마모토 번과 같이 유신의 때에 패배해서 명치정부에 대해 호감을 가질 수 없는 계보에 속하는 무사계급 출신의 청년들이었다.

64) 오가다 마모루, 한일 문화비교와 기독교사 95.

65) Ibid., 97.

그리고 그 후에 지방에 교회가 건설될 즈음이 되면, 소자본가, 중부농 등이 기독교를 받아들이는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이 시기에는 개신교회나 가톨릭교회 모두가 박해를 받았다. 가톨릭교회의 박해에 대해서는 야나기다는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1867(慶應3)년 나가사키(長崎)에서 신도 68명을 체포했지만, 외국 영사 및 프랑스공사 등의 항의에 의해 석방했다. 하지만 1868(明治元年)에, 유신정부는 신도국가주의로 기울기시작하여 신정부 정책의 첫 시작으로, 키리시단 간부 24명에게 유죄를 선고해 귀향보내고, 나가사키 주변에 숨어있는 키리시단들을 체포하기 시작했다. 1870(明治3)년 1월 1일 이후에는, 한 마을의 노약자 3,414명을 체포하여 유배를 보냈다. 각 번(藩)은 학대와 고문으로 신도의 개종을 압박했으며, 유배 도중 죽게 된 사람이 64명에 달했다.

1868년에서 1872년에 걸쳐서 많은 개신교신자가 정부의 탄압을 받았다. 그런데 한 가지 사건을 통해서 일본은 신교의 자유를 인정하게 된다. 이에 대해 야나기다는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1871년 말 구미에 특명전권대사 이와꾸라(岩倉具視) 일행이 파견되었다. 하지만 방문하는 나라에서 기독교박해에 대한 국민들의 항의와 여론의 비난에 직면하게 되었으며, 중요한 조약 개정과 관련한 교섭은 조금도 진전되지 않았다. 이와꾸라(岩倉)대사 일행은, 이러한 사실에 놀라게 되었고, 결국 키리시단 체포자들을 석방하고, 신교를 자유롭게 할 수밖에 없다는 취지를 정부에 전했다.⁶⁶⁾

오오우치는 메이지 정부의 신도교화(神道敎化) 정책의 실패를 들고 있는데, 1873년 2월 21일 해외로부터의 압력에 의해 정부는 2백년 이상 계속된 키리시단 금지령을 철폐하게 되었다. 이로써 크리스천은 공적으로 전도가 가능하게 되었던 것이다.

나. 초기 선교사의 발전시기

66) Ibid., 98.

1874년부터 1890년의 발전의 시기에 야나기다가 말한 것처럼 세 가지 주요한 변화가 일어났다. 첫째 변화는 전도의 기반이 옛 사족(士族) 계급으로부터 지방도시나 농촌의 중농지주를 포함한 광범위한 중견 서민층에까지 확대된 것이었다. 둘째는 전도의 리더십이 선교사의 직접 지도로부터 일본의 젊은 층 전도자의 자립전도로 바뀌었다는 것이다. 셋째는 요코하마, 구마모토, 삿포로 지역으로부터 발전한 제 교파의 형성이었다. 이러한 3가지 변화는 일본의 개신교 각 교파의 형성과정에서 일어났고, 일본의 개신교 각 교파의 특징을 대표하고 있다.⁶⁷⁾

한편 일본에 온 선교사들은 자신의 교파적 배경을 뒤로하고 선교적 효과를 거두기 합동하여 네비우스 선교 원칙에 의해서 일본교회를 세우는 데 주력하였다. 네비우스 선교원칙이란 첫째, 폭넓은 순회를 포함한 선교사의 개인전도, 둘째, 모든 활동에 있어서의 성서 중심, 셋째, 자립 전도, 넷째, 자치, 다섯째, 모든 크리스천을 위한 조직적인 성서 연구회, 여섯째, 성서의 원칙에 따른 엄격한 훈련, 일곱째, 다른 단체와의 협력 관계, 여덟째, 소송 등에 관한 불간섭, 아홉째, 그 나라 국민의 경제 생활상 문제에 있어서의 가능한 범위에서의 원조이다. 즉 네비우스 선교방법은 자급, 자치, 자전의 방식일 뿐만 아니라 성서 연구의 시스템이기도 하다.⁶⁸⁾

이 시기의 특징은 일본 국내에서 세 가지의 교파가 형성되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이들 교파는 '3밴드(band)'⁶⁹⁾라고 불리며 일본의 모든 교파의 기초를 형성하고 각 교파의 특징을 대표하는 것이다. 이들 밴드는 각각 요코하마, 구마모토, 삿포로라는 공회를 결성하게 되었다. 그 특징은 다음과 같다.

요코하마 밴드는 1872년 1월에 선교사와 외국인 거주자들 사이에 행한 주일 미팅에서 기원했다. 일본어 성경을 연구하는 학생들은 그들 스스로 그런 미팅을 원했고 기도 모임을 시작하였다. 이것이 요코하마 밴드의 시작이었고 일본 그리스도 교회라고 불리는 요코하마 지역은 초기부터 교회를 형성하는 것이 중심 활동이었다. 초대 기독교회였다. 이 밴드는 장로교 선교사가 주축이 되었고 종파를 초월에 구애받지 않았다. 1872년 9월에 개최된 초대 집회가 요코하마에서 열렸고 신약성서를 번역하는

67) Ibid., 99.

68) 네비우스 선교전략에 대하여는 전호진, 한국교회 선교: 과거의 유산, 미래의 방향 (서울: 성광문화사, 1993) 참조.

69) 3밴드란 일본의 기독교 교파를 말하는 데 '밴드'의 뜻은 맹약이다.

목적을 가지고 있었다. 1877년에 일본에 5개의 장로교와 4개의 다른 예수교가 1개의 통합교회로 합쳐졌고, 일본에 복음을 확장시켜 나갔다. 이런 교회의 빠른 성장은 일본인 리더와 복음전파자를 배출하게 되었다. 이부카, 카지노수케, 마츠클라, 카이세키, 우에무라 등이 대표적 설교자로 활동하였다.⁷⁰⁾

여기에 참가한 교회는 9개이며, 신자는 623명이고, 최초의 정식 목사로 오가와, 오후노 등의 목사님이 취임했다. 또한 같은 해, 일치 신학교가 신설되어 본국의 전도자 양성이 본격화 되었다. 요코하마 밴드는 후일 회심의 장소이며 기도의 장소인 일본 교회의 모체를 만든 밴드이다.⁷¹⁾

구마모토 밴드는 구마모토 요가코를 필두로 시작하였는데 요코이 쇼난이 외국 유학으로부터 복귀하여 서구의 문물을 배워야 함을 강조하였고 미래를 위해서 젊은이들을 훈련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깨닫고 나서 학교설립에 뜻을 품게 되어 1871년에 세워졌다. 구마모토 지역의 교회활동은 젠스(L. L. Jones)에 의해서 시작되어 구마모토 번은 구마모토 양 학교 교장으로서 그를 초대했다. 젠스는 영국의 라구비 중학교의 인격교육을 본 딴 새로운 교육시스템을 도입했다. 그는 초기 3년간은 기독교 대신에 실학이나 시민사회적인 직업윤리를 가르쳤다. 그로부터 3년 후 일주일에 하루 밤은 자택에서 성서연구회를 열어 학생들을 초대했다. 처음에는 15-16명 정도가 출석했는데 1년 후가 되자 출석인원이 5-60명으로 늘게 되었다. 그리고 이를 기초로 일요일예배를 시작하였다. 오노 시즈오에 의하면 1875년 동계 휴가까지 신자는 3-40명 정도 더 늘었으며, 기도회나 성서연구가 매일 밤 뜨겁게 가지게 되었다. 구마모토 지역은 강렬한 국민주의와 독립정신의 특징을 가지고 있는 곳으로서, 이 지역에서 오자키, 가네모리 등의 크리스천 지도자를 배출되었다. 1876년에는 35명의 학생들과 신앙고백에 대한 서명을 하게 되었다. 이들의 특색은 국민주의와 독립정신이었다. 그러나 이 사건은 학부모의 반대가 있었고 양(羊)학교는 그 해 여름 폐쇄되었다. 이 때 젠스는 약 30명의 기독교학생을 동지사에 위탁했다. 이 동지사는 1875년에 니이지마에 의해 시작된 것으로, 구마모토 양학교(洋學校)의 영향을 받아 조합교회의 중심 학교가 되었다.⁷²⁾

70) Lee Kum Sam, "The Christian Confrontation with Shinto Nationalism," VAN SOEST, 1962, 94.

71) 다케다 기쿠코, 일본선교 전략에 관한 연구, 33에서 재인용

72) Kum Sam Lee, "The Christian Confrontation with Shinto Nationalism," VAN SOEST,

삿뿌로 지역의 활동은 윌리엄 클라크에 의해 시작되었다. 그는 홋카이도 개척사 장관 구로다에 의해서 1876년 삿뿌로 학교로 초대되었다. 클라크는 일본인 학생에게 성서를 가르치고 또 인격교육에도 힘을 쏟았다. 학교규칙에 '신사가 되라'는 말이 있는 것을 통해서도 그의 학교교육의 방향을 짐작해 볼 수가 있다. 그리고 클라크는 미국에 귀국할 때 학생들에게 '소년들이여 야망을 가져라 주 안에서'라는 유명한 말을 남겼다. 이 지역에서 우찌무라, 니이도베, 미야 등의 크리스천 지도자들이 배출되었다. 삿뿌로 지역에서의 교회활동이란 것은 학교 안에서 시작된 것이기 때문에 특별한 교파를 형성하지는 않았다. 그리고 이 지역은 개인주의적 색채가 강한 것이 특성이었다.

1874년부터 1890년의 발전의 시기에 야나기다가 말한 것처럼 3가지 주요한 변화가 일어났다. 첫 번째 변화는 전도의 기반이 옛 사족 계급으로부터 지방도시나 농촌의 중농지주를 포함한 광범위한 중견 서민층에까지 확대된 것이었다. 둘째는 전도의 리더십이 선교사의 직접 지도로부터 일본의 젊은층 전도자의 자립전도로 바뀌었다는 것이다. 셋째는 요코하마, 구마모토, 삿뿌로 지역으로부터 발전한 제 교파의 형성이었다. 이러한 3가지 변화는 일본의 개신교 각 교파의 형성과정에서 일어났고, 일본의 개신교 각 교파의 특징을 대표하고 있다.⁷³⁾

일본의 초기 선교사는 단순한 복음신앙을 가지고 있었으며, 당파적 경향은 거의 없었다. 일본에서는 성서연구가 선교사의 가정에서 열리기 시작했다. 그리고 이러한 초기 선교사의 가정에서의 성서연구회는 이윽고 교회로 발전하게 된다.

일본에서의 의료전도는 일본인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기회로 자리를 잡았지만, 회심이나 국가적으로 기독교를 받아들이는 수준까지는 미치지 못했다. 미션스쿨에 있어서의 교육은, 그 시기 일본의 많은 선교단체에 의해 이루어져 왔다. 이것은 일본의 교회가 개인주의적 경향을 가지게 되는 점과 관계가 있다고 볼 수 있다. 일본의 미션스쿨은 아직까지 중류계급의 자제가 많았는데, 당시의 미션스쿨이 서민계층의 자제를 위한 것이 아니었다는 것을 말해준다. 이 부분에도 일본의 교회가 중류계급의 경향을 가지게 된 발단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청교도적 신앙의 개인주의적 영향을 받아 온 일본의 프로테스탄티즘은 유교의

1962, 97.

73) 오가다 마모루, 한일 문화비교와 기독교사, 99.

영향을 받은 무사의 자녀에게 인기가 있었다. 이러한 자녀들은 청교도적 기독교가 가지는 도덕상의 엄격함이나 윤리성에 매력을 느꼈다. 그러나 이러한 개인주의적 경향은 일본 교회가 집단회심을 하도록 하는 데는 장애적인 요소가 되었다. 잉글하트(C. W. Inglehart)는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교육중심의 전도방식을 취해 온 일본의 개신교는 무사의 자제, 중류의 상층계급의 지주, 그리고 상류계급의 자제를 포함한 중류와 상류계급에 전도의 기반을 가지고 있었다. 중류와 상류계급 중심의 일본전도는 교회로부터 대중을 배제시키는 결과를 낳았다. 이처럼 복음이 일본의 대중에게 확산되어져 가기 위해서 초기의 일본 선교사는, 서민계급 사이에 전도의 기반을 마련하는 노력이 필요하였다.⁷⁴⁾

1885년경의 일본의 서구화주의의 움직임은 서양형 기독교가 들어오는 데 영향을 주었다. 그 결과 일본에서 기독교는 서양문화와 동등한 것처럼 받아들여져 왔다. 아윈 셰이너(Irwin Scheirner)는 이에 대해 다음과 같이 지적하고 있다. “서양에서는 세속적 요소와 종교적 요소를 구분하기가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기독교는 서구화의 성격을 포함하고 있으며, 서구화는 기독교로의 회심의 필요성을 시사하고 있다.”⁷⁵⁾

일본에서는 이 시기에 서구화주의의 일시적 영향과 신도국가주의의 점차적인 형성으로 기독교가 일본의 민족주의와 조화를 이루는 것이 불가능하였다. 일본의 황실은 신도국가주의의 정신적인 기반에 의해 유지되고 있었기 때문에 기독교에 대해서 좀처럼 호의적이지 않았고, 오히려 반 기독교적 기치를 내걸었다. 당시의 일본정부는, 일본국민의 이데올로기를 천황과 신도국가주의를 연결한 제국주의로 통합하려고 하고 있었다. 1880년대의 일본의 기독교는 부흥을 경험하고 발전단계에 있었지만, 일본정부의 절대주의적 경향은 기독교에 어두운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었던 것이다. 특히 일본 신자들은 서양식 기독교를 받아들임으로 외세라는 인상을 주었다. 그 결과 일본의 기독교는 불신자가 볼 때, 외국의 종교라는 이미지로 비쳐지게 된 것이다.⁷⁶⁾

메이지 정부와 지방의 번주들이 우수한 선교사들을 초청하여 교육을 맡길 수밖에

74) Ibid., 105.

75) Ibid., 106.

76) 권운일, “21세기를 향한 일본선교”, 10.

에 없었던 것은 선교 전략적인 차원도 있지만 개화 초기에는 교사의 자격을 갖춘 사람으로 선교사 외에는 파견될 사람이 없었기 때문이다. 또한 선교사들은 고용 계약서에 기독교 선교를 금한다는 조건을 철폐하지 않으면 계약할 수 없다고 주장함으로써 기독교 진리를 전할 수 있는 기회를 갖고 들어 왔다. 개국을 하지 않으면 안 되었을 때, 메이지 정부가 내걸었던 것이 화혼양재(和魂洋才)이다. 즉 서양종교인 그리스도교 때문에 서양의 과학기술은 수용하지만 그리스도교는 거부한다는 일본의 반기독교 선언이었다.⁷⁷⁾

초기 선교사의 시기에 일본에서는 비교적 순조로운 교회 성장이 이루어졌다. 그 이유로서 초기의 선교사들이 가지고 있었던 단순하면서도 정통적인 신학, 그리고 복음전도에 대한 열의, 서구화주의의 영향을 꼽을 수 있겠다.⁷⁸⁾

3. 침체기와 대부흥기(1900-1950)

일본선교에 있어 위기가 있었다. 그것은 국가주의와 군국주의 운동이었다. 즉, 1889년, 제국헌법과 황실전범이 발표되었고 1890년에는 국가주의, 절대주의 운동이 나타났다. 천황을 절대군주로 모시는 국가주의는 하나님을 유일신으로 믿는 기독교와는 대치되는 것이었다. 이와 때맞추어서 나타난 반미운동은 당시의 기독교회에 큰 영향을 끼쳤다. 왜냐하면 많은 일본인들이 기독교를 서양문화와 동일시했기 때문이다. 특히 대부분의 상류계층 일본인들이 교회를 떠났고 이 타격은 매우 컸다. 따라서 교회는 10여 년간 때 아닌 침체기를 맞이할 수밖에 없었다. 이에 얹힌 데 덮친 격으로 독일의 자유주의 신학⁷⁹⁾이 일본교회의 단순한 복음신앙과 전도열정을 식혀버리는 결과

77) 이것은 일본 고유의 정신에다가 서양의 학문 내지 기술을 섭취한다는 문화정책의 근본원리이다. 서양기술이 일본보다 뛰어난 것은 인정하지만 형이상학적인 면 즉 정신적인 면에서는 서양보다 동양, 즉 일본이 앞선다는 심리적인 열등감에 의해 나타난 것이었다. 후루야 야스오, 오키 히데오, 일본의 신학, 권영국 역, 84-88.

78) 오가다 마모루, 한일 문화비교와 기독교사, 107.

79) 독일의 자유주의 신학사상을 소개했던 독일 보급 복음선교회는 1885년에 일본에 들어와 전도하는 일이나 교회 개척에는 관심이 없고 책이나 잡지를 만들거나 설교나 강연을 통하여 튀빙겐 학파의 성서 비판학 등, 그들의 신학사상을 소개하는 데만 열심을 냈다. 이러한 사상의 침투는 복음주의나 정동주의 교회가 뿌리를 내리기 전이었기 때문에 일본 기독교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 김수진, 일본 개신교회사, 201.

를 가져왔다. 이것은 지금까지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런 일본교회의 성장은 정체상태로 침체기를 맞이하게 되었다. 일본의 교회는 1883년 -1890년 미증유의 발전기를 거쳐, 1891-1900년의 10년간은 미증유의 침체기를 맞이하였다. 헌법이 신교의 자유를 공인한 때부터 아이러니컬하게도 신도 수는 썰물처럼 감소하였고, 전도는 벽에 부딪쳤으며, 또한 새로운 탄압이 시작되었다. 급각도로 상승하고 있던 교인 수는 1890년의 34,000명에서 다음해인 1891년에는 갑자기 31,631명으로 역전되었으며, 사후의 10년간 3만대에 그쳐 1900년에도 36,207명을 헤아리는데 지나지 않았다. 특히 서구화시대에 가장 큰 발전을 이룬 조합교회의 쇠퇴가 두드러졌다. 미션스쿨은 급격히 쇠퇴하여 신도 수는 격감하고, 점차로 폐쇄하는 학교가 속출하였다.

도쿄 미션 컨퍼런스(Tokyo Mission Conference)에서 제시하고 있는 통계표(<표 2>)⁸⁰⁾는 3년의 간격은 있지만 당시 교회의 성장 상황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다.

<표 2> 명치 15-33년의 교회성장

연도	세례교인	기독교인수
명치15	1,179	5,634
18	3,309	10,542
21	7,387	24,131
24	3,513	32,334
27	2,854	36,453
30	2,691	37,658
33	3,195	43,273

자료: Tokyo Mission Conference, 990-991

1888(명치 21)년 경까지 교회는 세례자 수도 기독교인 수도 순조롭게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1891(명치 24)년 이후가 되면 퇴조를 보이고 있다. 세례자도 적어지고 기독교 인구도 순조롭게 성장하지 못한 것을 알 수 있다.⁸¹⁾ 이 시대에는 일본에 민주

80) 오가다 마모루, 한일 문화비교와 기독교사, 황바울 역, 114.

화의 바람이 불어와 의무교육이 확대되고 교육제도가 정리되어 갔다. 이러한 변화는 일본에 기독교와 대규모 전도를 통한 영적 각성 운동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시기에 있었던 러일 전쟁(1904-1905)의 영향으로 인해서 전국적인 영적 운동이 되지는 못했다.

아쉬운 가운데 민주주의 영향을 받아 교회는 순조롭게 성장해 갔다. 1912년 79,000명에서 1926년에는 두 배 이상인 166,673명으로 증가했다.⁸²⁾ 수적인 부흥과 영적인 부흥을 가져오게 한 요인은 개신교 지도자들의 탄생이 있었다는 점이다. 이들은 능력 있는 말씀과 삶으로 그들의 신앙자세를 견지하였으며 각지에 말씀을 전파하였던 것이다. 이러한 개신교 지도자의 모습은 진정한 제자훈련의 모습에서 나타날 수 있었던 부분이다.

일본의 부흥은 초교파 전도에 힘입고 있었다. 1900년을 맞아 정치적 상황도 다소 호전됨에 따라 일본의 개신교 교회는 교파를 초월한 대대적인 전도활동을 전개하였다. 그리고 복음동맹회 대회에서는 20세기 대거 전도대회를 일으키기로 결정하였다. 이는 교회의 지도층에 의해 제창된 부흥 운동이었으며 초교파의 색채가 짙은 것이었다. 이런 까닭으로, 일본의 부흥의 주체는 각 지역교회 전체라고 하기보다 초교파의 전도회 중심이라고 하는 편이 좋을지도 모르겠다. 그리고 프로그램 중심의 부흥운동으로서, 자발적인 평신도가 출현하여 시작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⁸³⁾

일본의 복음 전도를 통한 각성 운동은 복음적인 교회의 연합과 양적인 교회성장을 가져오기는 하였으나, 일본의 교회의 연합과 양적인 교회성장을 가져오기는 하였으나, 일본의 영적 세계의 토대를 흔들어 놓는데까지는 미치지 못하였다. 일본의 토양을 기독교화 하기까지 일본의 영적 세계에 깊은 영향을 미치지지는 못하였던 것이다.

그러나 이런 부흥운동 가운데도 조금씩 성장한 개신교는 1900년 신도가 4만을 넘어섰다. 이 시기(1910-1930), 다이쇼 민주주의의 영향으로 일본의 교회는 비교적 순조롭게 성장하였으며, 교인도 증가하였다. 오오우치는 ‘다이쇼오기의 기독교’를 역사

81) Ibid., 114.

82) 유기남, 일본을 알자, 76.

83) 일본의 부흥운동은 초교파 운동이며, 교회 지도자 중심으로 기획된 전도회 등의 프로그램 중심으로 추진되어 왔다. 이러한 사실은 초교파의 협력이 막다른 곳에 이르거나, 대전도회 등의 프로그램 기획이 잘되지 않는 경우는, 필연적으로 부흥의 불꽃이 약해지게 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었다. 오가다 마모루, 한일 문화비교와 기독교사, 136.

적으로 개관할 때 다음의 7가지의 특징을 들고 있다.

첫째, 이때까지 활약해 온 것은 메이지의 기독교도였으나, 그들과는 다소 다른 역사적 성격의 제2세대의 기독교의 출현. 둘째, 각자가 지니는 교파, 교회로서의 특징, 성격의 명확화. 셋째, 일본의 교파교회 상호간에 공동의 정신이 넘쳤고, 그 연대의식의 배후에는 초교파적인 세계적 운동이 있었던 것. 넷째, 역사적 사회적 호조건(好條件)의 혜택을 입어, 각 교파공동작전이 이루어지고 외국의 협조와 원조를 받아 교회가 전도의 교회로서 본질적 기능을 수행한 것. 다섯째, 이 시기 후반에 사회문제가 불가피한 문제로서 제기된 것. 여섯째, 겉으로 드러난 점에 있어서는 여러 장애요소에도 불구하고 비교적 순조롭게 진전해 나간 것. 일곱째, '성결계', '복음' 라든지 '순복음계'라고 불려지는 일군이 눈부시게 발전한 것 등이다.

1910년의 에든버러에서의 세계선교 대회 후, 1913년에 존 모트(John R. Mott)는 일본에 다시 왔다. 그때의 일본의 인구는 51,287,091명으로, 그중 약 96퍼센트에게 아직 전도가 되지 않고 있었다. 모트의 영향으로 인해서 전국적인 협동 전도가 1914년에 시작되게 되었는데, 이는 교파에 구애받지 않고 "모든 교회 및 성도, 목사 및 그 외 사람에 대하여 헌신기와 노력의 일치를 요구할 만한 시기에 이르렀다"고 하면서 그 열매를 거두기 위하여 기획된 것이었다. 이러한 전국 협동전도는 1914년 3월부터 1918년 5월까지 전국적으로 실행되었다. 이 전도기간 중 일제히 전도 집회를 가진 것은 아니었으나, 전국적인 규모로 행하여졌다. 수백만 매의 전도지가 배포되고 4,788회의 전도 집회에 약 777,119명이 참가하였으며, 결신자의 수는 27,350명이었다. 이러한 다이쇼전도는 지난 10년간 행하여 온 전도의 결과에 비교하여 볼 때 교회성장에 대단한 성과는 남기지 못하였으나, 불신자 세계에 끼친 영향력만은 대단한 것이었다.⁸⁴⁾ 그러면서 붙여진 이름이 '다이쇼 민주주의'라고 하니 복잡하면서도 매우 자유스러운 분위기였던 것만은 틀림없다. 이런 와중에 일본 내 개신교는 평안한 시기가 계속되었다.

전도의 불꽃은 이것으로 끝나지 않았다. 전국 협동전도가 끝나고 수년 지나자 같은 종류의 전도가 다시 시도되었다. 1924년 11월부터 시작된 전국 기독교 교회운동이 그것이다. 이 시기에는 기도를 발화점(0)으로 하는 부흥운동이 일어나고 있었다.⁸⁵⁾ 고

84) Ibid., 142-143.

85) 눈에 띄는 부흥으로서는, 1919년11월에 동경의 요도바시 교회에서 매일 아침 5시30분부터 부흥을 기원하며 아침 기도회를 지속하고 있었는데, 칸다의 전도관이나 아사쿠사의 전도관도

바야시⁸⁶⁾는 당시의 다이쇼의 부흥과 쇼와의 부흥을 연관 지어 다음과 같이 서술하고 있다.

이러한 영적인 조류가 그대로 동경 가시와기(柏木)의 성서학원에 흘러 들어가 학원의 강사가 이시다 성회에서 받은 은혜에 대한 감동을 하고, 또 이를 듣는 자들은 성령에 깊이 감동되어 은혜를 받고 기도의 불길이 타올라서 이미 타오르기 시작된 부흥의 길이 다시 한 번 일본 각지에 확산되게 되었다. 이것이 다이쇼의 대 부흥인 것이다.⁸⁷⁾

이로 인해 1912년 79,000명에서 1926년에는 두 배 이상인 166,673명으로 증가했다. 이러한 부흥의 원인을 볼 때 가장 큰 원인으로 분석되는 것은 러일전쟁 후에 신학교육을 받은 사람들이 새 시대에 맞는 전도와 목회활동을 시작했다는 것이다. 즉, 개신교 지도자들의 탄생을 있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이는 선교와 전도에 있어서 준비된 사람이 중요한 요소임을 말해준다.

이러한 1910-1930년의 시기에는, 특출 난 기독교 지도자가 일본에 나타나 눈부신 기독교 활동을 전개하였다. 그 예로 나카타, 우찌무라 간조, 카가와 도요히코, 구세군 야마무로를 소개한다.

먼저, 나카타(1870-1939)는 1917년 설립된 일본의 성결교회의 지도자였다. 그의 강렬한 개성과 카리스마적인 종교적 권위가 이 교단의 급성장의 열쇠라고 말하여 준다. 또한 이 교회는 시민계급에도 복음을 전했다. 그들의 전도에 대한 정열은 대단한 것이었다. 1896년에 미국으로 건너가 시카고의 무디 성서학원에서 공부했으며, 1898년에 새로운 확신을 얻어 귀국했다. 그와 카우만(Charles E. Cowman)은 1910년 4월에

이에 동조하여 5시30분부터 아침기도회를 시작하였다. 같은 해 11월 13-16일에 걸쳐 일본 전도대의 아키야마 등이 요도바시 교회 성회를 열었다. 성회가 끝난 밤 아키야마, 히로우에, 고히라 3인은 철야기도회를 갖고, 날이 밝으면 나가노현 이이다시에서의 성회로 향했는데, 이 성회 전에도 산에 있는 이이다 교회 성도인 하야시의 빈집을 빌려 삼일 간 모든 죄를 회개하면서 한마음으로 기도하였다.

86) 당시 전후 형제단 성공회 목사

87) 1930년 5월 20일 아침식사 후부터 현저하게 일어난 부흥의 역사는, 쇼와의 부흥으로서 성결교단을 중심으로 일어난 부흥이다. 부흥의 불길이 격렬하게 타오르기 시작한 부흥도 앞에서 다이쇼의 부흥과 같이 기도가 발화점이 되었던 것을 알 수 있다. 오가다 마모루, 한일 문화비교와 기독교사, 146.

동경의 칸다(神田)에서 중양복음 전도관을 개관하였다. 이곳에 사사오와 E. 킬버른(Earnest A. Kilburn)이 참여했다. 이들은 1905년 11월에 동양선교회를 조직하였다. 동양선교회는 처음에는 전도조직이지 교회조직은 아니었다. 그러나 각지의 전도관에 여러 교파의 신도들이 와서 훈련을 받고 있었는데, 시간이 지나며 어쩔 수 없이 교회조직이 되었다. 다른 교회에 출석하고 있어도 전도관과는 기독교교리나 집회방법이 상당히 상이했기 때문에 혼란을 느끼는 사람도 나오게 되었고, 그래서 나카타처럼 독자적인 기독교 교리를 전하는 교회를 조직하는 것이 필요하게 되었다. 이 교회가 바로 동양선교회 성결교 교회로서, 1917년 10월에 정식으로 조직되었다. 이들은 사중복음(四重福音: 거듭남, 성화, 신유, 재림)을 주창하면서 발전해 나갔다.

둘째로 들 수 있는 지도자는, 우찌무라 간조(1861-1930)이다. 그는 무교회⁸⁸⁾의 창설자이다. 1861년 일본의 조슈 다카사키에서 출생했다. 그리고 1930년에 세상을 떠나기까지 그는 세계적인 예언자이며 전도자였다. 그는 삿포로 농학교에서 과학과 종교를 통하여 서구문명에 접하고, 다시 4년에 걸친 미국 유학으로써 동서문화의 접목을 꾀하기도 했다.⁸⁹⁾ 하나님에 대한 신앙은 1891년 1월의 교육칙어 봉독식에서 있었던 불경사건으로 유명하게 되었다. 1890년(明治 23) 10월 30일에 발표된 교육칙어는 기독교에 대한 국가주의 세력의 결정적인 카드라고 할 수 있다. 스미타니는 절대군주인 천황이 신민에게 의지하고 기준으로 삼을만한 윤리를 가르친 것으로 신민은 이에 대해 순종하고 따라야 했던 것이라고 분석하고 있다. 여기에는 일본 종래의 도덕 원칙이 재인식되어 있으며 더구나 서양의 윤리도 단순한 유교윤리도 배제되어진 가운데 유교적 윤리를 서양윤리로서 체계화한다고 하는 형태를 취하고 있다. 하지만 문제는 신분제적 윤리의 내용과 함께 이 윤리의 권위의 기초에 있었다. 많은 외국인에게 있어서 교육칙어를 공손히 지키고 받드는 태도는 기묘하게 보였다. 그것은 천황으로부터 나온 것이기 때문에 권위 있는 것, 신성한 것으로 여겨진 것이다. 천황이란 존재는 이때는 전후해서 점차 단순한 절대군주에서 그 위상이 격상되어 현인신으로까지 신성

88) 무교회의 의미는 “사람은 제도나 형식을 중요시하고, 그 실존성을 강조하면 할수록 정신적 생명을 무시하는 경향이 있다. 하지만 기독교인은 신앙적인 차원에서 제도적인 것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때문에 ‘무’ 교회인 것이다. 교회 그 자체가 필요하지 않으므로, 무 교회라고 하는 것이다.

89) 우찌무라 간조, 구안록, 전호윤 역 (서울: 설우사, 1993), 118.

시하게 되었다⁹⁰⁾.

우찌무라 간조는 교육칙어에 대해 이게 무언가, 여기에 머리를 숙인다고 하는 것은 천황을 신으로 예배하는 일이 아닌가, 천황은 인간이다. 인간인 천황을 예배하지 않으면 안 되는가, 우리들에게 있어서 예배드릴 수 있는 오직 한 분의 신은 천지를 창조하고 지배하는 하나님뿐이다. 그 하나님 앞에서는 머리를 숙여도 인간인 천황을 예배하는 일은 어색한 일이 아닌가 라고 생각했다. 당시의 신문들은 우찌무라가 경례를 표하지 않은 것으로서 천황에 예의를 표하는 일을 거부했다고 보도했다. 그러나 우찌무라는 이에 조금도 동요됨이 없었고 오히려 자기의 입장을 견고히 했다⁹¹⁾.

우찌무라는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사랑에 의해 맺어진 교제로서의 교회를 강하게 주창하였다. 우찌무라는 성서연구와 다수의 출판으로 인해 일본교회에 많은 영향을 주었다. 그는 재림운동으로 재림이 가깝다는 것을 호소하였다.

셋째로, 가가와(1888-1960)가 이 시대의 리더의 한사람이었다. 가가와는 빈민선교에 은혜를 입은 사람이었다. 가가는 고베신학교를 졸업하고 복음전도자의 모습으로 활발한 활동을 했고 많은 사람들을 감동시켰다. 일본의 개신교 역사에서 가가는 우찌무라와 같이, 일본교회에 큰 영향을 미쳤다. 그의 활동은 많은 분야에 미치고 있으나, 특히 사회활동과 전도를 들 수 있겠다. 가가와(는 동분서주하여 지방 마을에서의 집회에도 천명에서 2천명이 모여 그 10퍼센트 전후가 결신하였다는 통계가 있다. 그리고 결신자들이 교회에 모였으나 그곳에서 가가와⁹²⁾ 같은 메시지나 서민적인 분위기를 느끼지 못하여서일까, 세례자는 증가하였으나 결신자의수와는 비교도 되지 않을 정도로 적었다고 한다. 천국운동은 일본 기독교 연맹이 모체인 동시에 후원이 되었으나, 가가와 없이는 생각할 수 없는 것이고, 가가와와 천국의 이해와 깊은 관계가 있는 것이다. 그리고 가가와에서 보여 지는 천국운동의 실제적 결과에 관계없이 민중으로

90) 오가다 마모루, 한일 문화비교와 기독교사, 117.

91) 도히아키오, 일본기독교의 사론적 이해, 서정민 역 (서울: 한국 기독교 역사연구소, 1993), 129.

92) 가가와의 메시지에 대해 먼저 가가는 심오하고 의미 깊은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다. 그렇다고 새롭게 유행되는 신선한 얘기를 하는 것도 아니다. 그가 이야기하는 것은 종래의 것 그대로 옛 정통적인 기독교의 진리뿐이다. 정말로 평범하다. 요즈음은 여러 가지 준비를 하고 대가들의 이름이 나붙은 집회에도 사람들이 별로 모이지 않는다. 그런데 그가 집회를 열면 이렇게 대단한 인파가 모여든다. 왜 그럴까. 그의 지명도도 있겠으나, 가장 큰 이유는 진실한 면모 때문이리라. 그의 연설에는 열의가 있다. 그것이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이다.

의 전도의 노력은 평가할 만 한 것이다.

넷째로, 구세군 야마무로(1872-1940)가 있었다. 야마무라는 가난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였다. 그의 설교는 대중의 필요에 부합하는 것이었다. 야마무로는 윌리엄부스의 영향을 강하게 받았으며, 그래서 일본에서 보스의 역할을 담당하였다. 야마무로는 민중예로의 전도, 도덕적 감화, 구제활동, 사회사업에 착수하였으며, 그가 설교한 복음 메시지는 「평임의 복음」으로서 출판되었다.⁹³⁾

이 같은 일본의 교회사 속에 나타나는 전도자들의 신앙적인 모범은 모든 신앙인들에게 귀감이 되어 바른 복음전도신앙의 지표를 발견하게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선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복음을 전하는 사람인 것이다. 이들의 공통점은 전후에 신학교육을 받은 사람들이 새 시대에 맞는 전도와 목회활동을 시작했다는 것과 영혼 구원에 대한 열정이 있었다는 것이다. 즉, 개신교 지도자들의 탄생이 있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이는 선교와 전도에 있어서 준비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시사하는 바가 크다.

4. 제2차 세계 대전과 일본교회 성장의 후퇴(1950-1970)

전기(1945-1950)의 일본교회는 소위 '기독교 봄'(실제는 기독교만이 아니라 신흥종교의 급성장도 현저하였기 때문에 종교의 봄이라고 부르는 편이 정확할 것이다)을 경험하였다. 그러나 이 시기(1950-1970)에 일본교회는 성장의 후퇴현상을 나타내었다. 즉, 일본은 종교인구의 폭발 속에서 종교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더 많은 기현상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실제 타종교의 인구수를 보고 주저하거나 두려워 할 필요가 없다. 오히려 지금 일본은 영적인 혼돈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흔들리고 있음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다.

1950년대에는 연간 세례자수가 감소했다. 전교인수를 보면, 교단에서는 연간 세례자수가 감소했다. 전교인수를 보면, 교단에서는 연2.5퍼센트 증가하였으며, 성공회에서는 연6.5퍼센트, 로마 가톨릭 교회에서는 연6.4퍼센트의 성장률을 보였으나, 교단도 성공회도 전교인수에 있어서는 성장하고 있다고는 할 수 없었다. 오히려 많은 교인들

93) 도히아키오, 일본기독교의 사론적 이해, 129; 오가다 마모루, 한일 문화비교와 기독교사, 147-152.

이 교회활동에 비활동적인 경향을 띠었다. 이러한 침체와 후퇴의 이유에는 몇 가지가 있다.

첫 번째로는 전쟁 후에 오는 육체적, 정신적 결핍상태에서 탈출구를 찾고 있던 민중이 기독교회에서 그 해결책을 찾지 못한 점을 들 수가 있다. 당시 일본의 기독교회는 민중의 직접적인 욕구를 채워주지 못하고 있었다. 기독교회는 이에 대해 역부족이었으며, 영적인 침체 가운데 있었다.

두 번째 이유로는 1951년부터 1952년에 걸쳐서 점령군지배가 끝나고, 일본이 다시 주권국가가 된 사실이다. 해몬드(Alvin Dwight Hammond)는 다음과 같이 기술하고 있다. “1951에서 1957년에 걸쳐 전후기간에 있어서 기독교의 성장이 지체된 이유는 1890년 이후의 개신교교회의 성장의 지체와 거의 비슷하다. 교회성장이 후퇴한 두 시기가 모두 민족주의의 부흥의 시기였던 것이다.”⁹⁴⁾

이렇듯 일본 국민은 국가적인 자신을 회복하고 다시 전통적 가치를 재고하게 되었다. 그들 대다수는 다시 토착종교로 기울고 있었다. 일본의 기독교는 서양 선교사의 영향과 서양교회의 경제적인 원조에 의해서 서양화되어 갔다. 점령군 지배의 일본의 기독교회는 서양의 기독교, 특히 미국의 기독교를 모방하고 있었다. 주권국이 되고 민족적 자신을 되찾은 일본인은 자국의 문화 전통에 다시 마음을 기울이는데 기독교회가 변화에 따른 적응에 눈뜨지 못하여 많은 일본인 신자가 일본의 전통 문화화의 향기가 나는 종교로 향하고 있는데도 기독교회는 속수무책으로 바라보고만 있었다.

세 번째 이유는, 일본의 경제부흥이다. 해몬드는 다음과 같이 기술하고 있다.

1955년이 지나자 머지않아 일본경제는 전쟁으로부터 완전히 회복되어 세계의 여러 나라가 놀랄 정도의 성장을 계속 하였다. 일본의 경제성장률이 서독을 능가할 때 특히 외국의 여론의 평가가 높았으며, 이로 인해 일본은 자신감을 회복해 가고 있었다.⁹⁵⁾

1955년 이 시기 실제로 신자 수는 크게 늘고 있는데 비하여 예배 출석자는 극히 미미하였던 것으로 예를 들어 일본기독교단이나 성공회에서는 출석회원이 재적회원의 1/4이며 복음파 교단 중 비교적 큰 교단에서는 1/2정도로 집계되었다. 이러한 일로 일

94) Ibid., 219.

95) 유기남, 일본을 알자, 86

본의 잠재된 기독교인들을 제자 훈련시켜야 하는 요청이 긴급해진다. 한사람 한사람의 무장이 없이는 일본인을 온전한 성도로서 신앙 생활하도록 인도하기 어렵다. 2000년대의 성장하는 교회의 특징들 중 두드러지는 것이 바로 제자훈련이라는 것이 중요함을 증명해 주고 있다.

1960년대 중반 일본이 경제적인 부흥기를 맞이하자 사회적으로도 큰 변화가 일어나서 사람들의 의식도 많이 변하게 되었다. 도시화 현상으로 역사와 사회에 대한 사람들의 의식이 날카로워지면서 교회에도 큰 영향을 미치게 되어, 시골에서는 전도하기가 점차 어려워진 반면 도시에 있는 교회는 그렇게 노력하지 않아도 순조롭게 성장할 수 있었다. 이후로 1970년대 중반에 이르는 10여년의 기간동안 개신교의 신자수는 일본 전체적으로 담보 상태를 유지했는데, 교회일치주의(NCC)계통의 교회들은 쇠퇴현상을 보인 반면 복음주의적인 성향의 교회들은 부흥하는 모습을 보였다.⁹⁶⁾

5. 회복, 성장, 새로운 시대로(1975년 이후)

1975년 이후 세계가 정치적, 경제적으로 결빙기를 맞이하게 되었는데 이로 말미암아 종말 사상이 사람들의 마음을 강하게 흔들게 되었다. 이러한 시대적 흐름 가운데 일본교회는 새로운 성장의 시기를 맞이하여 일본의 대표적인 교단인 일본기독교단은 1978년을 기점으로 신자수가 20만 명을 넘어섰다. 이러한 성장의 원인으로 개척전도가 이루어지고 그 후에는 선교사와 일본인 목사가 협력하였지만 이시기에 접어들어서는 선교사와 목사와 교단이 서로 협력하여 개척전도를 함으로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이다. 교회의 성장에 발맞추어 많은 헌신자들과 신학교가 넘치게 되었으니, 이것은 복음주의 교회들의 성장을 의미하는 것이며 앞으로의 지속적인 성장을 약속하는 고무적인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⁹⁷⁾

일본 기독교단의 교세는 1978년경 최저치에서 조금씩 회복을 하기 시작하여 1987년에는 신도수가 20만 명을 넘어서고 있다. 그러나 다음과 같이 후루야가 1991년 6월 동경기독교학원·공립기독교연구소 개소10주년기념강연회에서 지적하고 있듯이

96) Ibid., 86-87.

97) Ibid., 89-91.

일본기독교단의 대다수 교회의 실정은 여전히 어려운 상황에 있다는 사실을 엿볼 수가 있다.⁹⁸⁾

새로운 시대로서 현재에 이르기까지의 이 시기에, 일본의 프로테스탄트교회에 현저한 경향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NCC⁹⁹⁾에 관계된 자유주의파 제교회의 정체나 후퇴현상과, 복음파나 오순절·카리스마계 제교회의 성장이 그것이다. 에큐메니칼파의 정체와 복음파의 성장 경향은 이 시기에 들어서 보다 현저한 경향을 나타내었고, 현재 일본의 프로테스탄트의 주류는 점차로 자유주의파로부터 복음파로 옮겨가고 있다. 이러한 사실은 일본복음동맹 발행의 일본의 복음파지는 과거 22년간의 성장률(<표 3>)¹⁰⁰⁾을 잘 말하여 준다.

일본 기독교단의 교세는 1978년경 최저치에서 조금씩 회복을 하기 시작하여 1987년에는 신도수가 20만 명을 넘어서고 있다. 그러나 1991년 6월 동경기독교학원·공립기독교연구소 개소10주년기념강연회에서 후루야가 지적한 것 같이 일본기독교단의 대다수 교회의 실정은 여전히 어려운 상황에 있다는 사실을 엿볼 수가 있다.

1991년도 판 기독교 연감에 따르면 일본에는 119개 교단이 있으며, 교회 수는 개신교가 7,266개, 가톨릭이 1,117개이며 교역자는 개신교가 10,829명이고 가톨릭이 10,330명이다. 그리고 신자 수는 개신교가 652,401명이고 가톨릭이 439,633명으로서 총 기독교인 수는 1백만 명을 약간 상회하고 있다. 한편 일본의 신학교 수는 83개이며 이중 학생이 20명이 채 안되는 곳이 꽤 많다. 그러나 일찍부터 해외 선교활동을 시작하여 34개의 선교사 파송단체가 29개 나라에 153명의 타문화권 선교사를 파송했고, 193명에 달하는 교포 교회 목회자들이 있다.¹⁰¹⁾

98) 오가다 마모루, 한일 문화비교와 기독교사, 254-255.

99) 일본 기독교 협의회(NCC)계의 제 교단가운데는 멋진 회당을 갖고 있는 곳도 많고, 기독교인의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여 미션스쿨, 매스컴 출판 등을 통한 일본사회에로의 문화적 공헌도가 높은 곳이 많다. 특히 일본사회의 지식층에 대한 영적 영향력은 강하다고 생각된다. 전쟁책임, 야스쿠니 문제, 차별문제, 빈곤문제, 국제 협력 등에 관해서는 복음파가 NCC계의 제 교단으로부터 많은 것을 배웠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NCC계에는 신학적인 문제점을 안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복음 선교에 있어서 걸림돌로 작용하는 면도 부인할 수는 없을 것이다. 구체적으로 성서의 권위에 관한 문제, 복음 선교를 단순한 사회적 책임으로만 강조하기 때문에 성령의 능력을 의지해서 단순하고 대담하게 전도하는 점이 약한 점, 그리고 다원주의 신학의 영향에 의한 신학적 혼란 등이 있다. Ibid., 254-255.

100) Ibid., 253.

<표 3> 일본의 교단 22년간 성장률

		1978년	1996년	성장률 (퍼센트)	1998년	성장률 (퍼센트)
NCC계교단	일본침례연맹	19,470	24,606	26	28,480	16
	일본복음루터교단	15,077	17,668	17	20,779	18
	일본 성공회	47,746	54,178	13	57,165	6
	일본기독교회	11,820	12,925	9	13,770	7
	일본기독교단	203,562	189,408	-7	201,063	6
복음파 50교회 이상의 교단	일본기독교개혁파	4,300	6,566	53	8,386	28
	일본나사렛교단	3,829	5,790	51	6,386	10
	일본성결교단	4,982	7,060	42	10,107	43
	하나님의 교회교단	4,668	6,099	31	10,330	69
	임마누엘종합전도단	7,497	9,442	26	11,761	25
복음파 50교회 이하의 교단	일본복음자유교회	314	1,075	215	3,070	186
	일본 OOO교회연합	335	875	161	1,872	114
		554	868	62	1,669	86
	기독교장로교회	524	743	42	1,724	132
	국제	139	403	190	886	120
이단계교단		3,884	41,695	976		
	세계기독교통일신령협 회	40,000	260,000	550	380,000	46
	원치복음	14,000	50,000	275		
	OOO교	8,645	29,702	243	88,1104	197

또한 제 3회 일본전도회의에서는 “일본, 아시아 그리고 세계에”라는 주제로 세계 선교를 향한 토의와 전략을 세우기도 했다. 역시 1퍼센트의 복음이 들어가 있지 않은 일본이라 할지라도 그들 역시 선교하는 일에 박차를 가하는 모습을 보며 큰 소망을 품게 된다. 1퍼센트의 벽이 무너지고 과거 17세기 5퍼센트의 교인이 있었던 것처럼 큰 부흥이 일어나기를 바란다.

101) 유기남, 일본을 알자, 95-97.

1980년대 후반 특히 1988년 9월에 가루이자와에서 일본복음동맹(JEA)선교 방책 위원회 주최의 '선교간담회'가 개최되었으며, 몬트고메리에 의해 "더 미니스트리"가 소개되었다. 이것은 제자화와 개척전도를 강조하는 오늘날, 세계적으로 넓게 퍼져있는 운동이다. 신자가 주님의 제자가 되고, 한 교회가 성장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세계의 모든 지역에 개척전도를 하여 교회를 늘리고, 선교명령을 수행해 가는 운동이다. 90년대에는 소목자훈련회나 교회성장연구소등의 선교기관들에 의해, 제자훈련과 소그룹활동의 중요성이 일본의 프로테스탄트 교회에도 전해졌다.

성령의 역사에 관해서도 이 시기만큼 일본의 교회가 큰 체험을 한 시기는 없었을 것이다. 전후 일본에도 오순절파 선교사가 와서 선교를 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초기 단계에서는 타종교인들에게 전도할 정도의 강력한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¹⁰²⁾

제 2 절 일본 교회의 장점과 단점

기독교가 정착하고 성장하기 어려운 일본에서 기독교는 소수지만 서서히 성장하고 발전하고 있다. 그러나 지상 교회는 완전한 교회는 불가능하다. 일본 교회는 고난 중에서 세워졌으나 역시 장점과 약점을 동시에 가진다. 유감스럽게도 일본은 정치, 경제적으로는 선진국이지만 기독교는 아직도 후진국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교육, 문화, 학문 분야 등에서 일본사회는 기독교의 저력을 누구도 무시 못 할 정도이다. 특히 일본의 대학들은 거의 다 선교사들이 시작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명성을 유지하고 있다. 물론 신학적으로는 세속화가 되었지만, 특히 일본 기독교회는 천황제도와 과격한 국수주의자들에게 대항하여 조심스러운 저항을 보이기도 한다. 헌법상으로는 종교가 충분히 보장된 사회이지만 기독교는 아직도 차별을 당하는 상황이다. 그럼에도 일본의 기독교는 영적 다이나믹과 선교와 부흥에 힘을 쓰고 있다. 그래서 한국 교회를 배우려는 겸손한 일본 기독교 지도자들과 신자들이 있으며 일본의 많은 목회자 없는 교회에 대하여는 한국교회만이 이 공백을 매울 수 있다고 하면서 노골적으로 도움을 청하는 교회도 있다. 그러나 동시에 한국인 목회자가 일본 교회를 담임하는 것을 노골적으로 반대하는 지도자와 평신도도 있다. 교회도 민족 차별의 장벽을 극복하

102) 오가다 마모루, 한일 문화비교와 기독교사, 275.

지 못하고 있다.

1. 일본교회의 장점

일본 교회의 장점은 수적으로 약하지만 1970년대 이후 꾸준히 성장하여 국내 개척운동과 선교운동이 일어나고 있다는 점이다. 일본 교회는 평신도 선교운동과 더불어 국내 교회 개척운동도 활발하다. 동시에 해외에 약 3백 명의 선교사들을 파송하고 있다. 국내 교회들은 일본이라는 특수 상황을 감안하여 연합과 협력도 비교적 순조롭게 진행되는 편이다. 1991년 시오바라에서 개최된 일본전도 집회는 대표적 연합운동과 부흥운동의 노력이다.¹⁰³⁾ 일본 교회는 많은 분열이 있지만 복음주의나 진보적 교회들은 연합운동을 전개한다. 복음주의 연합 중에서 대표적인 것은 OMF, SEND 등 초교파 선교회가 세운 교회들이 연합하여 일본복음교회협회를 형성한 것이다.

일본교회의 또 다른 장점은 일본 사회와 지성계에 미치는 영향이 대단히 크다는 사실이다. 문학, 철학, 정치, 사회복지, 사상 및 교육에서 기독교가 일본 사회에 미친 영향은 사회가 다 인정하는 바이다.¹⁰⁴⁾ 기독교는 처음부터 반민족, 반국가라는 말을 듣지 않으려고 애국 운동에 앞장서기도 하였다. 노일 전쟁과 청일전쟁에서 기독교 신자들이 솔선수범, 전쟁에 참여하였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한국교회에 못지않은 박해 속에서도 생존하고 성장한 교회라는 사실을 인정해야 한다. 반면 일본의 국수주의자들이나 천황우상화 등에 대하여 양심적 목소리를 내는 것은 기독교인들이다.

일본 기독교회는 사회변화에도 엄청난 영향을 주었다는 것이다. 여성의 지위를 향상시키고 공창이나 사창제도를 폐지하는데 기독교가 앞장섰으며, 인권운동에도 기여하였다는 것이다. 특히 대동아 전쟁을 일으킬 때도 이것을 반대한 자는 가가와 같은 목사나 기독교 지성인이 반대의 목소리를 내었다.¹⁰⁵⁾

일본의 기독교는 당시 소외된 상층 사람들로 시작하였기 때문에 지적 도덕적

103) Yui Yoshikai, "The Church in Japan," *Church in Asia Today*, Saphir Athyal, ed., (Singapore: The Lausanne Committee for World Evangelization, 1998), 26-27.

104) Ibid., 31.

105) 이 주제에 대하여는 月木昭男, 佐藤 研 編 [聖書と日本人] (東京: 大明堂, 2000) 참조.

수준이 높다는 것이 특징이다. 그래서 숫 적으로 적지만 여기에 대한 자부심이 대단하다. 그래서 한국교회를 아는 일부 지성적 신자들은 일본에 있는 한국인 신자들이나 재일동포 신자들이 도덕적으로 향락업소에 종사하는 것을 경멸하기도 한다. 특히 일본인 목회자들의 신학적 수준은 세계적으로도 손색이 없을 정도이다. 이점에서 오히려 세계 교회는 일본 교회를 더 알아주고 일본은 세계적으로 알려진 신학자를 배출하기도 하였다. 물론 신학적으로 우리가 전적으로 동의하는 것은 아니지만 우찌무라 간조는 물론 고통의 신학을 발전시킨 기타무라와 사회봉사의 가가와는 대표적인 인물이다.

2. 일본 교회의 단점

그러나 일본 교회 역시 단점을 안고 있다. 물론 지상의 교회는 완전한 교회는 불가능하다. 첫째로 일본교회는 처음부터 자유주의 신학이 강하여 성경관이 잘못되었고 기독교론도 동일하다. 이로 인하여 교회들은 신학적으로 쉽게 타협하는 역사가 있었거니와 지금도 다원주의적 신앙이 교회에 상당한 영향을 주고 있다는 사실이다. 아직도 상당수 일본교회의 신자들은 예배 후에 공공연하게 불단에 대하여 이야기하며 심지어 예수와 다른 종교를 함께 믿는 것을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을 정도로 타협적이다. 여기서 전도에 대한 적극성이 결여된다. 즉 한국 교회가 가진 배타적 구원관의 신앙이 약하다는 것이다. 이것의 직접적 원인은 자유주의 신학의 영향이거니와 우찌무라 간조의 무교회의 기독교론은 그리스도와 예수를 분리하는 것이었다. 간조의 무교회주의 신학자들은 나사렛 예수를 일종의 사회개혁자로 보기도 한다. 나아가 무교회주의자들은 성직자와 성례전을 거부한다.¹⁰⁶⁾ 이러한 신학에서 전도의 열정이 일어날 수 없다.

둘째로 자립의지의 결여이다. 경제대국 일본도 아직 교회가 약하여 자립되지 못하는 교회가 많다는 사실이다. 따라서 한국교회가 보여준 자립, 자치, 자전의 네비우스 원리를 배우지 못한 것이 아쉽다. 그 결과 교회는 경제적인 어려움을 닥치면 극복하기보다는 교회의 문을 닫아 버리거나, 목회자들이 직업을 가지고 만다. 그 만큼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로 이 벽을 넘기보다는 인간적인 방법으로 해결하고자 하는 인

106) Yoshikiri Teranozo, "Japanese Theology," Dictionary of Mission, Karl Muller et al, eds. (New York: Orbis Books, 1999), 223.

본주의적인 목회방식을 취하고 있다. 목회자들은 전도하고 양을 양육할 시간적인 여유가 없다. 그래서 일본에서 교인들의 집을 심방하는 일은 매우 드물다. 어떤 한국 선교사는 앞으로 일본의 농어촌 교회의 30퍼센트는 문을 닫을 것으로 예상하기도 한다.

셋째로 일본 목회자들의 의식결여이다. 피터 와그너는 성장하는 미국 교회의 분석에서 '건강하게 성장하는 교회는 적극적으로 사고하고 교회를 성장을 위하여 촉매자 역할을 하는 다이나믹한 지도력을 중요시한다. 이점에서 일본의 사역자들은 건강한 지도력을 가지지 못한 자들이 많다. 그 이유는 교회의 영적 침체와 구원의 감격이 없고 두 번째는 성경 관에 입각한 신학교육의 부재이다.

넷째로 목회사역을 위한 헌신자 부족이다. 일본에서 가장 시급한 것은 헌신자들의 강한 사명의식이요, 헌신의 정신이다.

다섯째로 전통적인 일본교회의 예배형식은 영적 활력이 부족한 편이다. 최근 오순절 운동으로 인하여부흥운동이 일어나지만 전반적으로 지성적 일본교인들은 예배에서 역동성이 부족하다.

제 4 장

최근 일본의 기독교와 일본선교의 장애요인 분석

일본은 460년의 천주교 선교역사와 145년의 개신교 선교역사를 가지고 있지만, 복음화율이 아직도 1퍼센트에도 미치지 못한 인구 1억 3천만에 가까운 세계 최대의 단일미전도 종족이다. 현재 일본에는 전 세계 일본사역 선교사 P.I.A.¹⁰⁷⁾ 33개국 245단체에서 파송된 3,500여명¹⁰⁸⁾의 선교사가 있으나 복음의 결실은 너무나 미약한 나라 가운데 하나이다. 그러나 일본은 지난 1980년 이후 10여 년간 복음화율이 감소추세를 보여 왔으나 1990년대 들어와 활발한 선교 단체 등의 활동의 영향으로 선진국에서는 보기 드물게 소폭이나마 매년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최근 일본 교회는 스스로 전국을 복음화해야 하겠다는 의지를 가진 교회와 선교회가 증가하고 있는 것은 고무적인 일이다. 일본 교회 역시 나름대로의 장점과 단점을 가지고 있다. 아직도 일본 자체로 일본을 복음화 한다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 보기 때문에 한국교회나 서구 교회들이 일본 선교에 동참하고 있다. 일본 교회 역시 외국 교회와 협력을 요망하고 있는 실정이다.

제 1 절 최근 일본 기독교

1. 일본 기독교회의 현황과 과제

일본은 민족적으로 단합이 잘 되는 나라로 알려져 있지만 이상하게도 교회는 그

107) P.I.A.(P: Protestant(개신교), I: Independent/Indigenous(독립/토착교단), A: Anglican(성공회))

108) 미국 1,477명, 한국 546명, 노르웨이 87명, 독일 87명, 핀란드 80명, 영국 76명, 캐나다 74명, 호주 50명(다른 자료에 의하면 일본에 있는 외국인 선교사는 2,362명), Patrick Johnstone, 세계기도정보, 601.

렇지 않다. 현재 일본에는 100개가 넘는 기독교단이 있어서 우려를 자아내게 한다. 전장에서 고찰한 바와 같이 서구의 많은 교단들과 선교회가 일본에 선교를 하였기 때문에 일본 역시 교단이나 선교회의 전시장이라 하여도 과언이 아니다. 장로교로부터 오순절 등 너무나 많은 교단들이 있다. 오히려 한국에 없는 교단들이나 자생적 교회가 존재한다. 심지어 OMF같은 선교회는 일종의 독자적 기구가 될 정도이며 서구의 복음주의 단체들도 무수히 많다. 그러나 동시에 연합 운동도 활발하게 전개되어 일본복음동맹(JEA: Japan Evangelical Alliance)은 복음주의 연합의 대표적 기관이 되었다. 일본복음동맹의 신학노선은 성경을 무오하고도 영감된 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다.

일본 복음동맹 결성은 일본 기독교회에 신학적으로 중요한 의미가 있다. 2차 세계대전만 하여도 일본 교회는 자유주의 신학이 복음주의 보다 더 강한 편이었다. 그 예가 당시 일본 교회의 3/4이 진보적 일본기독교단(소위 日基)에 속하였었고 다만 1/4만이 복음주의 계열로 분류하였다. 그런데 현재 "닛기"에 속한 교회는 1/4로 감소하였다. 이 되었다. 종전 후 3/4과 1/4의 숫자는 거의 변함이 없는 상태이다. 즉 전후에 복음주의가 8배나 성장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최근 합리적이고 지성적이라는 일본에도 오순절파가 성장하고 있다. 조용기에 대한 견해는 양극화되었다. 적극 지지하는 오순절 성향의 교회나 오순절 교회가 있는가 하면 경계하는 교단이나 교회도 있다. 그러나 오순절 영향을 무시할 수 없다.

일본에는 청년 대상의 전도 열기가 고조되고 있다. 일부 복음주의 선교단체와 교회는 노인인구의 증가에 위기감을 가지고 청년들을 대상으로 전도 캠페인을 하는 운동이 급속히 증가하고 있다. 그 대표적 실례가 바로 JEA의 청년세계대회'집회이다. 이 집회는 특히 일본의 전도자 육성에 힘을 쓰면서 '차세대 전도'라는 용어를 만들었다. 이다. 현재 일본의 많은 교회들이 노년층으로 채워져 있다. 그것은 기독교가 전래된 이후로 새롭게 전도되어진 사람들이 적다는 것을 반영한다고도 볼 수 있다. 노령화 정책에 대한 교회에서의 상황은 물론 일본사회에서도 고령화로 인한 파급효과는 심각하다. 낮은 출생률과 급격한 인구의 노령화가 미래의 성장에 제동을 걸기 시작한 것이다. 2001년 경제는 쇠퇴하였고 실업률이 증가하였다. 인간개발지수 0.924로 174개국 중 4위이고 1인당 외채 GNP의 50퍼센트, 1인당 소득은 38,160달러(미국의 121퍼센트)¹⁰⁹⁾이다.

두 번째로 일본 교회가 당면한 문제는 목회자 양성이다.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열심을 다하여 온 힘을 기울인 목사세대가 은퇴할 시기가 된 지금, 그 뒤를 이어서 교회를 맡아줄 일본교회의 리더십인 목사들의 수가 적다는 것이다. 그렇다고 은퇴연령만 늦춘다고 해결될 문제가 결코 아니다. 첫 번째 과제와 같이 차세대 전도를 통한 차세대 교회 리더십을 세워나가는 일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농어촌에는 목회자가 없는 교회가 많아서 일부 한국 선교사들이 목회자 공백을 매워주는 실정이다. 이점에서 위의 두 가지 과제는 이제 일본복음동맹만이 느끼고 있는 문제가 아니고, 일본교계 모두가 같이 고민하고 풀어나가야 할 과제인 것이다.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고신 선교부는 일본 개척파 교회와 선교협력을 맺고 일본에 목회자를 파송하려고 하는데, 일부 일본 목사들은 노골적으로 한국 목사를 반대하고 있다. 민족 차별은 일본 교회가 극복해야 할 중요한 과제일 것이다.

2. 일본 복음화 현황

일본의 복음화 현황은 2002년 11월 기준으로 인구 1억 2천 7백만 명 가운데 기독교 신자(개신교)가 54만 여명(0.41퍼센트)이고, 그 가운데 주일을 성수하고 있는 인원은 27만 여명(0.21퍼센트)으로, 한 해 성도증가는 10,454명으로 집계되었다. 전체 교회 수는 7,765개(2002년)로 전년도에 비해 40개 교회가 증가하였고, 지난 10년간 649개의 교회증가로 9.17퍼센트의 성장률을 보이고 있다.¹¹⁰⁾

그러나 아직도 8개시와 인구 2만 이상의 79개 마을, 그리고 2557개 정촌 중 1737개 지역에 교회가 전무한(68퍼센트 지역)상태이다. 한 교회당 평균 등록 신도수는 70명이지만 출석 성도 수는 35명으로 명목상의 크리스천들이 절반을 차지한다. 재일한국인은 조총련계를 포함해서 약100만 명으로 추산(2001년 법무국통계는 65만 명)하고 있으며 94개의 한인교회가 있고 총성도수가 1만 명으로 복음화율은 1퍼센트를 나타내고 있다.

2002년도에 비해 2003년 교회교세데이터 집계결과에 따르면 교회수(전도소 포함)

109) Patrick Johnstone, 세계기도정보, 599.

110) 고광선, “일본의 기독교 현황과 선교” (JEM 홈페이지 자료, 2004년 2월 1일).

7,792교회, 전년보다 20교회가 증가 한 것으로 나타났다.¹¹¹⁾ 이 중 171교회가 신규 등록이었다. 현재 일본의 주요 교단의 상황은 다음과 같다.

<표 4> 기독교계통별 교단 수 및 성장률¹¹²⁾

기 독 교	교 단	비 율	천명	성장률
개 신 교	146	0.42	538	+0.8퍼센트
독립교회	36	0.22	281	+0.9퍼센트
성 공 회	1	0.05	62	+1.6퍼센트
카 톨 릭	1	0.36	457	+0.5퍼센트
정 교	2	0.02	26	-0.2퍼센트
유사기독교	9	0.61	776	+0.1퍼센트
제 명		-0.12	-152	미집계

3. 일본 기독교의 신학과 신학교육

일본 기독교는 숫적으로 약하지만 신학수준은 세계적인 신학으로 평가되고 있다. 제2장 선교역사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초기 일본 기독교 신자들은 제거당한 사무라이 계급 혹은 지식인 계급이었다. 따라서 처음부터 일본 기독교회는 근대화와 민족주의 영향으로 기독교를 학문적 관점에서 연구한 자들도 많았다. 이것은 필연적으로 신학 수준의 질적 향상에 기여하였다. 그러나 일본 기독교회는 한국교회와는 달리 자유주의 신학이 강하였고, 이것을 결과적으로 교회성장에 영향을 주었다. 특히 일본 기독교회가 민족주의적 종교인 신도와는 투쟁에서 도리어 타협하는 계기가 되고 말았다.

전호진은 그의 저서 아시아 기독교와 일본선교에서 이렇게 밝히고 있다.

일본교회를 한국교회와 단순하게 비교하면 한국교회는 하층계급에서 시작하였기 때문에 정적인 면이 강하다면 일본교회는 청년 지식인들로 시작하다 보니 자연 지적인 면이 강하다. 이것은 교회와 신학을 형성하는데 주요 요인으로서 작용한다. 일본교회는 신학적

111) 크리스챤, 情報ブック 2003 (東京: 크리스챤 新聞, 2002), 10.

112) Ibid., 600.

으로 말하면 처음부터 자유주의 신학이 강하여 독일 신학이 일본 신학계를 장악하게 된다. 자유주의는 필연적으로 복음주의에 중대한 도전이 된다. 20세기 초기 일본교회가 자국을 배제할 것을 제창하자 예비나 탄조같은 지도자는 그러한 조치에 강력하게 항의하면서 기독교의 혼합적 성격을 외친다.¹¹³⁾

그는 더불어 일본의 자유주의 신학을 4가지로 분석한다. 첫째는 일본인 스스로가 외국으로부터 자유신학을 도입하거나 혹은 스스로 발전시켰다. 둘째로 초기부터 상당수 서구선교사중에서는 자유주의 신학을 전파하였다. 일본의 많은 대학들은 예를 들면 관서대 동지사대 아오야마 대학 등의 신학부는 자유주의 신학이었다. 이들이 바로 여기서 배운 한국의 목사들이 한국의 자유주의 신학을 전파하였다. 셋째로는 일본은 1차대전이후 독일과의 동맹국관계를 형성 하였다.따라서 독일 신학이 일본기독교에 엄청난 영향을 주었다. 특별히 발트 신학이 수십 년 동안 일본신학을 지배하였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넷째로 일본인의 타협정신은 장점이 되지만 신학적 타협주의를 초래하였다. 그리하여 지금도 일본은 종교다원주의 신학이 대단히 발전하였다.¹¹⁴⁾

하지만 최근 일본 교회에도 복음주의 신학이 발전하고 있으며 많은 신학자가 있다. 복음주의 신학교인 동경기독교 대학을 위시하여 일본 성서 신학교 등은 복음주의 신학을 가르치거니와 복음주의 신학발전에 기여하고 있다. 물론 일본 복음주의 신학은 미국의 영향을 많이 받고 있다. 특히 선교학이나 교회성장도 미국의 복음주의 신학교에서 교육을 받은 자들이 일본에서 활동, 일본 교회 성장을 진지하게 두고 있다. 대표적인 복음주의 신학자와 저서로는 우단 센의 現代福音主義神學, 福音主義キリスト教とは何か, 나카무라사토시의 日本における福音派の歴史는 주요한 저서이다.

일본 교회는 신학 수준은 높으나 신학교육에서는 교수에만 전념할 수 있는 신학자가 적거니와 신학 지망자가 적다는 것이 문제이다. 현재 일본에는 120여개의 신학교 및 성서학교가 있다. 그러나 복음주의 신학교로는 동경기독교 대학 이외는 대부분 규모나 학생 및 전임 교수가 약한 실정이다. 반면 동경신학대학과 루터신학대학 등은 역사와 교수진은 훌륭하지만 신학적으로 자유주의 신학으로 전체 일본 교회에 영향을

113) 전호진, 아시아 기독교와 선교전략 (서울: 도서출판영문, 1995), 163.

114) 全浩鎭, 日韓研究 “極東三ヶ國のキリスト教會と兩教會の宣敎協力方案”(神戸: 日韓改革主義教會問題研究會, 2002), 93.

주지 못하고 있다. 반면 고베개혁파신학교 같은 것은 학생수가 너무나 적다. 최근 오순절교회의 성장으로 오순절 신학교가 새로운 형태의 신학교육을 시도하고 있다. 성령파 신학교인 이코마 성서학원은 전원 기숙사 생활을 원칙으로 하며 야쿠자 출신 가나자와목사가 이 학교 출신으로 유명하다.

일본의 신학교육은 여하튼 아직도 한국이나 미국에 비하면 수적으로, 규모, 교수진 등에서 개선해야 할 점이 많다. 수많은 신학교 중에서 인정을 받을 만한 학교는 30개 정도에 지나지 않는다. 불행한 것은 과거 미션스쿨로 시작된 대학의 신학부는 점차로 문을 닫는 실정이고 현재 남아 있는 것은 서남대학, 관서대학, 동지사대학 신학부만 명맥을 유지하고 있다.

4. 일본 기독교회들의 전도운동

현재 일본 교회의 복음주의 신학의 발전과 복음주의 운동은 불가피하게 일본 복음화를 가속화시키는 좋은 계기로 작용한다. 최근 일본에도 복음화 운동의 일환으로 전도대회나 선교대회가 비교적 활발한 편이다. 1972년 최초의 국내선교대회를 시작으로, 1984년 경도에서 제2회 선교대회를 가졌고 최근에는 고시엔 전도대회와 비리 그래함 전도대회를 통하여 국내전도 운동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특히 청년선교단체들이 주도하는 “여리고 일본”은 매년 여름마다 실시하는 전도운동이다.¹¹⁵⁾

일본은 피선교국이면서 동시에 선교국이다. 인구의 1퍼센트도 안되는 기독교 인구에도 불구하고 일찍이 일본 교회는 외국에 선교사를 파송하였다. 47개 선교단체에 소속된 210여명의 선교사들이 전 세계 48개국을 섬기고 있다. 일본의 선교열정은 신자 인구 비율로 보면 한국 교회와 동일한 수준의 선교사를 파송한 셈이다. 한국의 기독교 인구를 1,300만이라고 발표하는 선교회도 있는데, 만약 이 통계에 의한다면 신자 대비 1만2천 선교사 수는 약 0.1퍼센트인데, 일본도 동일한 비율이다.¹¹⁶⁾

그러나 일반적으로 일본 교회는 선교에 대한 비전이 약한 편이라고 말할 수 있다. 아직도 많은 교회들은 타문화 선교 및 선교사에 대한 전반적으로 많이 부족하다.

115) 전호진, 아시아 기독교와 선교전략, 166.

116) Patrick Johnstone, 세계기도정보, 600.

일본 교회와 선교회가 세운 선교사 훈련 센터는 2곳에 불과하다. 하지만 동경 기독교 대학은 국제학과를 설립함으로써 앞으로는 해외에서 봉사할 일꾼을 키우는데 기여할 것으로 본다. 현재 일본 해외 선교협회에 16개 일본선교단체들이 회원으로 가입하였다. 일본인들이 장기 선교사가 되는데 가장 큰 장애 가운데 하나는 이들이 일본으로 되돌아 왔을 때 선교사 자녀들이 다시 사회에 적응하기가 어렵다는 점이다.¹¹⁷⁾ 일본인 목회자 몇 분이 지금 한국 교회에서 봉사하고 있다. 이들은 자기 교회의 지원은 전무한 형편이고 소수의 일본인을 상대로 목회와 선교를 하지만 대체로 한국 신자들을 목회의 대상으로 삼기도 한다. 서울의 일본인 교회는 일본인 신자와 한국 신자의 좋은 협력의 장이 되고 있다.

5. 책임적 신자와 명목상 신자가 공존하는 일본 교회

일본교회의 장점은 스스로 신자임을 고백하는 신자들은 교회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책임적 신자로서 역할을 잘 하고 있다는 점이다. 일본은 30명 미만의 소교회가 많다. 그럼에도 교회운영은 외부의 도움 없이 교회를 운영한다. 물론 목회자는 부업이 불가피하다. 동시에 사회생활에서도 윤리적 통전 성을 유지한다. 즉 일본 신자들은 기독교 원리와 배치된다고 생각하는 향락업소 등을 경영하지 않는다고 한다. 이 점에서 향락 업소를 운영하고 이것을 목회자들이 축복 기도해 주는 한국 교회를 이해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반면 일본 교회의 한 가지 난제는 많은 신자들이 사회생활하면서 신자라고 떳떳하게 공개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이유는 이미 언급한 대로 집단주의가 강한 일본사회에서 따돌림을 당하지 않기 위한 방법이다. 아직도 일본 농촌에서는 기독교 신자들을 무라하찌부로 취급한다. 이것은 선교에 심대한 장애가 아닐 수 없다. 특히 상류층 사회의 신자들은 더욱 그러하다. 지금까지 정치, 경제, 문화 등 각 방면의 리더의 위치에 있는 사람들은 공식적으로 자신들이 기독교인인 것을 말하지 않았다. 그러나 이러한 일본도 변화하고 있어서 2003년 11월 27일 일본에서는 제1회 국가조찬기도회가 행해졌다. 그것을 통해 기독교 정치인들이 용감하게 자신들의 신앙적 정체성을 표현

117) Ibid.

하기를 바란다.

제 2 절 일본선교의 장애요인 분석

어느 나라든지 기독교는 도전을 받는다. 그러나 기독교는 환란과 박해 속에서 성장하고 성숙하는데, 일본도 예외는 아니다. 일반적으로 일본은 종교의 자유가 보장된 민주국가로 말한다. 그러나 일본은 보이지 않게 기독교를 차별하고 억압하는 나라이다. 일본 기독교가 무려 150년의 긴 역사에도 불구하고 성장하지 못하는 원인에 대하여 선교전략의 결함으로 보다는 일본이라는 특수한 문화 풍토에 돌리는 것은, 대단히 적절한 분석이라고 본다. 이번 설문에서 복음의 수용지로서 일본의 복음화율이 낮은 이유를 일본 문화 토양의 문제로 볼 것인지 아니면 전략적인 문제로 볼 것인지에 대한 질문에서, 그 결과 설문 대상 선교사들의 99퍼센트가 선교 전략의 문제도 지적하고 있으나 일본인의 문화적, 영적 토양의 한계와 도전을 크게 지적하고 있다.

일본 기독교 지도자 곤도 가즈히코는 노골적으로 “일본인과 일본정신의 문제성은 기독교선도를 저해하였다”고 부언한다. 옛적부터 “일본인 정신의 현세주의, 폐쇄성, 타자감각의 결여, 획일주의, 집단주의 등은 극복하게 되지 안 된다”는 것이다.¹¹⁸⁾

변재창은 사랑의 교회 창립 25주년 기념 제자훈련 페스티벌에서 발표한 논문¹¹⁹⁾에 의하면 일본의 토양을 미리 일궈놓지 않으면 많은 어려움이 있다고 얘기하고 있다. 300년간의 무서운 일본의 역사는 일본인의 국민성에 집단 의식이 뿌리내리게 했고 이렇게 형성된 국민성이 소위 ‘본사이’(분재)처럼 자르고 묶어서 만드는 집단 의식을 지적했으며 이것은 ‘오소래’(두려움), ‘아미에노코오쇼’(자기정체성을 집단 속에서 찾고 그 집단에 의존하지 않고는 살아갈 수 없는 집단 의존증), ‘타페샤카이’(상하명령사회), ‘오모페도우라’(결과 속의 다름), ‘잇뽀시리조크’(모든 일에서 한발 뒤로 물러섬), ‘무사도’의 수치 문화 등으로 대표되는 일본인의 국민성을 들고 있다. 일본 선교의 주요 장애 요인을 다음 몇 가지로 요약 할 수 있다.

118) 近藤勝彦, 傳道の神學: 21世紀キリスト教傳道のために (東京: 教文館, 2002), 36.

119) 변재창, “일본선교 보고와 전망”, 88-89.

1. 화혼양재

일본 선교에서 가장 중요한 장애 요소는 기독교회 내부의 문제나 선교전략상의 실패 보다는 수용자인 일본인의 문화와 의식 및 가치관에 둔다. 그 중에서도 일본의 문화관으로 표현되는 단어는 화혼양재이다. 즉 서구의 기술과 문화는 받아들이면서도 철저히 일본의 혼을 지킨다는 폐쇄적 문화적 민족주의를 든다. 요시노 고사쿠는 이것을 문화 내셔널리즘이라고 표현한다.¹²⁰⁾ 일부 학자들은 이것을 일본의 정치적, 종교적 원리주의로 말하기도 한다.¹²¹⁾ 일본은 아시아에서는 가장 먼저 근대화와 서구화를 한 나라이거니와 역시 서구에서 민족주의를 먼저 배운 나라이다. 그러면서도 서양 문화의 뿌리가 되는 기독교는 철저히 배제하고 다만 서양문화의 외형적 열매를 최대한 수입하였다. 이점에서 세계의 많은 학자들은 일본을 특이한 나라로 정의한다. 그 대표적 학자가 사무엘 헌팅톤의 일본 론이다. 그의 일본 론은 우리의 흥미를 끌기에 충분하다. 그가 분석하는 일본은 다음과 같다.

첫째로, 일본에는 다른 나라에 존재하는 디아스포라(국외 이산자)조차 존재하지 않는다. 다른 나라의 디아스포라는 자기 문화를 지키려고 노력하는데 일본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다. 둘째로 일본은 최초로 근대화에 성공한 중요한 비 서구의 나라이면서도 서구화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서구화하지 않고 근대화에 성공하는 것은 1870년대 이래 일본 발전의 중심 테마였다. 그 결과 만들어진 사회는 근대화의 정점에 이르렀으면서도 기본적인 가치관, 생활양식, 인간관계, 행동 규범은 참으로 비서구적이며 이런 현상은 앞으로도 계속 유지되리라고 생각한다. 셋째로, 일본의 근대화에는 또 하나의 특징적인 점이 있다. 일본의 근대화는 혁명적인 대 격동을 경험하지 않고 성취되었다. 영국, 미국, 프랑스, 러시아, 그리고 중국에는 혁명이 있었고, 독일에서조차 나치즘이라고 하는 형태의 혁명이 있었다. 일본의 근대화는 위로부터 추진된 것으로서, 메이지유신과 미군정기에 진행되었다. 사회를 분열시킬 듯한 어려움이나 유혈을 동반하

120) 이 문제는 고사쿠의, 현대 일본의 문화 내셔널리즘, 김태영 역 (서울: 일본어뱅크, 2001) 참조.

121) Winston Davis, "Fundamentalism in Japan: Religious and Political," in Martin E. Marty and R. Scott Appleby, eds., Fundamentalism Observed (Chicago: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91), 782-813 참조.

는 혁명이 없었기 때문에, 일본은 전통적인 문화의 통일성을 유지하면서 고도로 근대화된 사회를 구축하였다. 넷째로, 다른 나라와의 사이에 문화적인 관계가 없기 때문에 난제가 생겼고 또 기회가 생겼다. 일본은 자국 문화의 정체성 때문에 다른 나라들의 힘을 모아 도와주는 것을 믿지 못한다. 한편으로는 다른 사회와 문화적인 관계가 없기 때문에 다른 나라에 대해서도 공통된 문화적 배경 때문에 도와줘야 할 책임도 없다는 없다.¹²²⁾

헌팅톤의 일본 론 핵심은 일본은 철저하게 독자적 문명을 형성하여 이웃과도 통하지 않는 고립된 나라라는 것이다. 즉 대부분 학자들은 일본을 불교문화권으로 보는데 그는 신도를 독립된 문명으로 간주한다. 그의 이론대로 일본은 독립된 신도 문명을 형성, 기독교를 철저히 배제함으로 기독교 선교는 지금도 어려운 실정이다. 다른 종교에는 관용하면서도 사회 내부 구조가 기독교에는 지극히 배타적이다. 특히 국수주의자들은 물론 기독교를 더 거부한다.

2. 일본인의 배타주의와 민족주의

일본은 배타 주의적 사회이다. 이것은 기독교 선교에 장애 요소로 등장한다. 가정, 마을 국가로 형성되는 일본 사회는 자연히 외국인에 대하여는 경계심을 가지어 대단히 배타적 자세를 취한다. 특히 한국인에 대한 배타심은 더욱 심하다고 할 수 있다. 집단을 우선시하는 일본인들의 의식구조로는 집단전체의 동의 없이 새로운 사상을 받아들이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다.¹²³⁾

일본사람들은 외국인을 '외인' 또는 '외지인' 그리고 자신을 '내지인'이라고 부른다. 사전에는 외국인의 압축표현을 '외인'이라고 설명하고 있으나, 일본사회에서 내포되는 의미에는 멸시와 편견이 포함된 차별의 용어이기도 하다. 이처럼 외국인에 대한 태도는 일반적으로 말할 수 없지만 폐쇄적이고 차별적이다.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기독교는 서양 문화로 거부하지만 서구의 문물만은 잘 수용하려고 노력한다. 일본어에 혼

122) Samuel Huntington, 문명의 충돌과 21세기의 일본의 선택, 소순창, 김찬동 역 (서울: 김영사, 2001), 43-46.

123) 배인찬 "일본선교를 위한 일본인의 의식구조 연구" (석사학위논문, 장로회신학대 신학대학원, 1994), 50에서 재인용.

용되는 서양언어는 대표적인 사례라 하겠다. 일본은 외국 것을 잘 모방하여 자기 것으로 만드는 천재적 재능이 있다. 이것은 “외국형의 내 것”으로 말한다. 즉 일본의 문화와 종교는 철저히 유지하면서도 서양 기술을 받아들이는데, 이것을 화혼양재라고 한다. 이렇게 일본인의 기묘한 이층구조에 대하여 한 독일의 철학자가 재미있게 묘사하였다. 즉 일본인들의 정신 구조를 다음과 같이 표현하였다고 한다. 2층집에 살고 있는 일본 학생들이 2층에서는 플라톤에서 하이데거에 이르기까지 유럽사상을 말한다. 그런데 막상 1층에 내려가면 일본적으로 생각하거나 행동하거나 한다. 그래서 유럽인 교사는 2층과 아래층을 왕래하는 제자는 어느 것이 진짜이냐고 묻는다는 것이다.

여기에 이시하라 같은 국수주의자들은 일본 선교에 심각한 장애이다. 이러한 국수주의자들은 일본 종교나 문화를 최고의 것으로 신성시한다. 미국의 정치학자들은 이것을 일본의 종교적, 정치적 원리주의로 표현한다. 전호진은 일본 원리주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민족주의나 원리주의는 자기 국가나 사회가 외부의 위협으로부터 흔들리고 있다는 위기의식에서 등장한다. 즉 정체성의 위기에서 민족주의와 원리주의가 등장하고 발전하였다. 일본도 예외는 아니다. 그러나 일본 원리주의는 다른 아시아 종교 원리주의와 질적 차이가 있다. 아시아 종교 원리주의는 세속주의나 현대화에 대한 위기의식에서 자기 종교로 국가를 다시 회복하고 재건해야 한다는 도덕적 사명감을 가지고 정치에 압력을 가하거나 정치에 대항한다. 그러나 일본은 정치가 종교를 이용하거나 지배하여 종교를 정치에 이용한다. 종교를 통하여 민족의 아이덴티티를 정립하고 애국심을 가지려고 하지만 기존의 종교를 기반으로 하지 않고 체계화되지 않은 신도와 민족주의를 결합하여 일종의 국수주의적 혹은 극우파적 민족주의를 발전시킨다. 그래서 미국의 정치학자 데이비스는 일본의 원리주의를 종교와 정치적 원리주의로 표현하면서 제도적 원리주의와 산만한 원리주의로 구분한다.¹²⁴⁾

3. 현실주의적 종교관과 가치관

일본인들의 종교관이나 가치관은 철저히 현실주의적으로 내세가 없다. 이것의 원인은 아마도 자연의 모든 만물이 신이 되는 범신론적 신관 때문이라고 본다. 따라서

124) 전호진, 일본의 종교적, 정치적 원리주의 (2004년 4월 26일 일본복음선교회 강의안), 3.

기독교에서 말하는 유일신 하나님의 개념은 일본인에게서는 생소하게 느껴지기 쉬울 것이다. 이러한 신관의 차이는 기독교를 수용하는데 가장 큰 장애요인이 될 수밖에 없다. 일본인의 범신론 사상에 의한 절대적인 신 개념의 결핍은 신 앞에서 범죄 한 인간의 모습을 느낄 수 없고 인간이 종교적인 책임이 무엇인지 또한 이를 수행하지 못할 때 어떤 결과가 오는지 깨달을 수가 없다.

일본인들에게 있어서 신이란 고통과 빈민, 빈곤과 욕구불만의 상태에서 사는 사람들에게만 필요한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 그런데 일본은 자연의 혜택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절대적인 신에게 복종할 필요가 없으며 그들의 신에게 복종하지 않아도 신은 그들을 축복하고 다른 국민보다 더욱 사랑하며 혜택을 주고 가까이 교제해 준다고 믿고 있다.¹²⁵⁾ 이런 일본인들의 인간 중심적 신관을 갖고 있는 일본인에 대해 이사야 벤다산은 “일본인에게서는 종교가 없다는 것은 거짓이며, 일본인은 일본교라는 종교의 신도이다. 그것은 인간을 기준으로 하는 종교인 까닭에 인간학은 있지만 신학은 없는 종교인 것”이라고 했다.

이렇듯 일본종교는 인간 중심이기에 신을 기뻐하고 제사하는 일은 있어도 인간을 초월한 신에게 명령을 듣고 복종하는 요소는 전혀 없다. 또한 다신론 적 신관은 온 우주에 단 한분 밖에 없는 하나님을 성자인 예수님 역시 800만의 신 가운데 하나로 여기려는 것이 일본 땅의 복음화에 큰 장애요인이다. 이것은 유일신 사상을 정확하게 전달하지 않으면 그들의 변질적인 성향이 기독교까지 쉽게 파고들게 되는 것이다. 이것은 그들의 종교적 의식에 있어서 참으로 큰 결핍돌이 되기 때문이다. 복을 주는 신은 무조건 다 믿으려는 종교관이 유일신 사상을 거부하기 때문이다.

오늘날 일본의 종교상황은 매우 복잡하고 혼잡하다. 일본은 현재 물질만능주의와 800만의 우상숭배 및 범신론사상, 그리고 천황제 및 조상숭배(신도, 신사)등과 더불어 패전이후 1960년대부터 한해 100여개씩 생겨나는 각종 이단들(옴진리교, 창가학회, 통일교 등)과 신흥종교들로 인해 영적으로 혼탁한 상태이다. 제3차 종교의 봄이라고 할 만큼 신흥종교들이 많이 나타나, 매스컴과 서적들을 통하여 일본인들의 정신세계를 더욱 혼란하게 하고 있다. 신흥종교는 하나같이 일본인의 마음 깊은 곳에 지금도 살아 있는 샤머니즘적 세계관을 움직여 병 고침을 실현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며, 일본

125) 택정언, 韓·日 兩敎會에 있어서 社會主義에 관한 歷史의 比較 연구 (석사학위논문 연세대 연합신학대학원, 1969), 49.

인의 관습인 조상숭배를 교묘히 이용해 포교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러한 신흥종교의 특색을 일본인 신흥종교 연구자인 사끼 아끼오가 종합한 것을 보면 “현세이익 본위이고 주술적 성격이 강하고, 미신적이다. 그리고 샤머니즘적 요소가 보이고 대중성이 있다.”고 한다. 이러한 신흥종교들도 복음 전파에 큰 장애 요소로 등장하고 있다. 위의 사실을 통해 일본인의 일상생활을 지배하는 것은 어떤 신이라기보다 인간중심적 종교관에서 보듯 신앙심이 아니라 물질숭배이며, 이것은 기독교뿐만 아니라 불교도, 신도도, 유교 뿐 아니라 신흥종교까지도 물질주의라는 동일한 적에 패배하고 있는 것이라고 존 위로노프는 표현하고 있다.

기독교 선교에 가장 큰 장애는 “신앙에 관계없이 일본국민 전부를 신자로 간주하는” 신도이다. 일반적으로 근대화된 사회에서는 종교가 정치로부터 분리되어 개인적인 일로서 여겨지며 각 종교는 서로 부분적인 진리를 나눠 갖고 협력을 추진해 나가고 있는 것이 대세이다. 그러나 오늘날 일본은 종교와 국가의 밀착관계가 계속되어 오고 있으며 오히려 더욱 심화되는 경향이 있다.

4. 종교 다원주의의 도전

일본인의 종교관이나 가치관은 현실주의적 혹은 실용주의적이며 사회적으로 타협을 잘하는데, 이것이 종교에도 나타난다. 모든 종교를 동일하거나 유사하다고 생각하며 심지어는 한 사람이 여러 종교를 동시에 믿는 다원주의적 사고방식은 배타적 구원을 강조하는 기독교는 자연 어렵게 된다. 전호진은 이 문제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말한다.¹²⁶⁾

타협주의적 일본인들에게 배타적 진리와 구원을 강조하는 기독교는 생리상 적합하지 아니하다. 오야마 박사는 “한국교회가 성장한 것은 한국인 특유의 배타적 기질이 배타적 구원관, 배타적 진리관을 가르치는 기독교와 어울렸다. 그러나 일본인들은 새 종교를 혼합하는데, 신도는 이의 대표적인 예이다”라고 말하였다. 오야마 박사의 지적은 상당히 예리한 분석이라고 보았다. 일본인들의 이러한 타협적 기질은 최초의 철도부설에서 잘 나타나고 있다. 명치시대때 동해선 철도부설로 통신성은 민간위주의 철도를 고집하다

126) 전호진, 일본의 종교적, 정치적 원리주의, 161.

가 결국 절충하였는데, 일본인들은 종교나사상도 외래의 것을 수입하여 타협시키는 기질이 농후하다는 것이다. 일부 일본인 신자들은 성경을 해석하는데도 자기들의 적성에 맞는 구절들만 취하여 다시 조립하는 것이다. 일본인들의 이러한 타협주의 정신은 인간관계를 중시하는 반면 신과의 관계는 등한하다는 약점을 들어낸다. 따라서 일본인들에게는 하나님은 유일하신 절대 계약자라는 언약사상은 없다고 시인한다. 모순된 말이지만 일본인들은 신에게 서약은 하지만 신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다.

일본교회는 교파주의를 그대로 모방하면서도 신학적으로는 일본화 하는 경향이 많다는 것을 의미한다. 특히 일본인들의 의식구조는 이것과 저것의 분명한 선언적 판단을 유보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것이 신학에도 나타나서 기독교의 절대성을 강조하는 것이 한국교회에 비하여 약하다. 과거 일본 교회 지도자들 중에는 십자가와 다른 종교를 혼합하려는 시도도 있었다. 천주교 신자인 엔도 슈사쿠의 침묵은 다원주의의 대표적인 소설작품이다. 도쿠가와 시절 기독교를 박해하던 때에 한 천주교 신부는 신앙을 변절, 불교로 개종하는 장면이 나온다. 엔도 슈사쿠에 의하면 하나님은 박해 중에도 침묵하는 신이라는 것이다. 이 작품은 20여개 이상의 언어로 번역 될 만큼 인기가 있는데, 한국 교인들 중에도 상당수 그의 작품을 읽는다. 영국의 다원주의 신학자 존 힉의 글이 일본어로 많이 번역되었으며 심지어 그를 전문으로 연구하는 신학자가 있을 정도이다. 다원주의 신학이 얼마나 일본 교회에 해로운지는 일본 기독교 지도자들이 존 힉에 대한 항의에서 잘 나타난다. 존 힉(John Hick)이 일본을 방문하였을 때 일부 지도자들이 힉에게 정중한 가운데 한 지도자는 그에게 “당신의 신학은 그렇지 않아도 어려운 일본교회를 죽일 수 있다”고 항의하였다는 것이다.

5. 영적 장애

최근에는 일본의 종교단체법 개정의 영향으로 낙심자, 미성년자에게 종교를 권유하는 것이 법적으로 금지되어 선교사역 위축이 우려되며 엔고현상과 선교사역의 열매가 없다는 이유 등으로 서양선교사들이 매년 10퍼센트 정도씩 철수를 하고 있는 실정이다. 일례로 1889년부터 일본선교를 시작했던 미국남부침례교회는 3년간 일본에 파송된 선교사 30퍼센트 철수를 결정하고 150-160명 중 120명만 남게 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일본교회 내에서도 성령운동파와 복음주의파 등의 교단의 벽이 두텁고 대립과 반목 등으로 교단교류가 없고 성령의 운동의 경우 심각한 경우에는 이단시 하는 등의 교회가 하나 되지 못하는데도 많은 선교의 장애요소가 되고 있다. 교베대학부 교수인 行澤一人은 일본선교 부진의 원인으로 5가지 설을 말하였다.¹²⁷⁾

첫째, 태만설로 일본의 크리스천과 교회가 지금까지 그다지 열심히 전도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것이 태만설이다. 여기에는 메이지유신 이후의 일본에 있어서 그리스도교 수용이 오로지 지식인 우위로 되거나, 또는 근대화라는 그리스도교의 문화적 측면이 강조된 형태로 행해졌기 때문에 대중적인 확산과 전도의식이 교육되지 않았던 배경설명이 첨가되는 경우가 많다. 혹은 복음파의 시점에서는, 일본선교가 너무 사회운동 지향적인 데다가 자유주의적이어서 순수한 복음 선교가 되어오지 않았다는 것이 지적될지도 모른다.

둘째, 영성 결핍설로 일본의 크리스천, 교회가 지식적 측면 또는 도덕적 측면에 지나치게 비중을 두어서 기도나 영력, 또는 카리스마적인 은사의 중요성에 눈을 열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것이 영성결핍설이다. 이것은 오로지 카리스마파의 시점에서 지적된 요소이다. 이 설에도 태만설과 같이, 메이지유신 이후의 그리스도교 수용의 형태에 큰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셋째, 영적 전쟁 결여설로 영성 결핍설과 관계되는 것으로, 일본인들은 사실상 우상 문화의 지배하에 있다고 하여도 과언은 아니다. 일본도 악령이 많은 사회라는 점에서 아시아 문화권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일본 교회도 영적 전쟁이 요구되지만 지적 수준이 높아 그런지는 몰라도 여기에 대한 인식은 비교적 부족한 편이다. 최근 일부 일본 교회도 빈 야드 등 미국교회의 영향을 받아서 악령 추방을 위한 기도회를 가지기도 하지만 아직은 약한 편이다. 일본도 사실상 한국과 유사한 곳 문화가 있으며 많은 미신이 있다. 오가다 마모루는 일본은 합리주의 영향으로 일본의 많은 교회들이 악령, 표적, 기적, 성령의 은사 등을 강조하지 않는다고 개탄한다.¹²⁸⁾

넷째, 대망설로 극적인 영적 수확이라는 의미에 있어서 부흥이 일어나는가 어떤가는 오로지 하나님의 주권과 뜻에 달려있는 것이고, 인간적으로 전도부진의 원인을

127) 行澤 一人, HAZAH, 2002년 6월호, 51.

128) 오가다 마모루, 312.

이리저리 생각하는 것 자체가 이상하며, 수를 운운하는 것 자체가 틀린 것이다. 오히려 우리에게 결핍된 것은 부흥을 하나님께 기대하는 열렬한 기도라고 하는 것이 대망(待望)설이다. 이 설에 의하면 교회의 사명은 오로지 하나님의 뜻에 맞는 태도를 지상에 있어서 열매맺어가는 것이라고 생각된다.

다섯째, 문화 적응론 결여설로 일본 기독교회에 대한 비판의 이론은 일본 교회는 서구 교회를 너무 그대로 모방한 나머지 일본화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예를 들면 동명교회, 개혁주의 교회, 복구 계통의 교파교회들은 서구의 모델 그대로 일본에 유입되어 모방되었다는 것이다. 즉 서구 교회의 복사판이라는 것이다. 이점에서 우찌무라 간조의 일본식 무교회 사상이 일본 국민들에게 어필하였는지 모른다.

6. 진화론 사상으로 인한 장애

여기서 한 가지 더 소개 할 장애요인 중에는 일본사회에 미치는 진화론의 문제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진화론은 어느 국가에서나 퍼져 있는 학설이지만 그 학설에 대해 그렇게 비중을 차지하지는 않고 있는 것이 현실이며, 더욱이 한국 같은 경우는 창조론을 믿지 않는다고 해서 진화론을 믿는다고 하기는 어렵다. 물론 교과서에 두 가지 학설이 실리지는 않은 상황이고 여전히 진화론적인 표현들이 많이 난무하지만 이것이 한국사회와 교회에 크나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생각되어 진다. 하지만 일본에서의 진화론은 상당히 심각한 복음의 장애요소로 작용하고 있다는 의견들이 나오고 있다.

호사카교고는 2002년 12월 JEM 성탄 단기 선교 팀을 위한 선교 세미나 중 시스이 교회에서 진화론에 대한 내용을 나누었다. 진화론을 처음 대하였을 때의 상황 차이는 심각했다고 한다. 주일학교에서 사립의 미션스쿨에 진학한 호사카의 진화론에 대한 이해와 주일학교에서 공립 중 고등학교로 진학한 아들들의 진화론에 대한 이해에는 커다란 차이가 있어서, 그들이 교실에서 배우는 것이나, 친구들로부터 비웃음을 받는 것에는 어리지만 신앙의 위기에 직면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것이 일본의 공립학교에서 교육을 받은 아이들의 현실이다. 중학교에 들어가서 주일학교에 나오지 않게 된 아이들 중에는 수험이라든가 과외활동으로 바빠

졌다고 하는 표면적인 이유가 있지만, 대부분의 주일학교 교사나 목사님들도 그렇게 말한다고 한다. 그러나 이외에 창조론과 진화론의 대립이 저변에 있을 것이라고 호사까는 아이들의 경험을 통해 그렇게 생각한다. 부모들도 창조론과 진화론의 차이 때문에 계속해서 주일학교에 보내는 것은 허락하지 않고, 중학생이면 공부가 제일이고, '학교에서 가르쳐 주는 것이 진리이기 때문에'라고 생각한다. '옛날이야기에 시간을 허비할 만큼 여유가 없다'는 정도라도 반대의 이유가 될 것이다. 바로 이것이 현실이라고 생각 되어진다고 한다.

일본의 창조 과학 회에서는 "좋은 땅에 씨앗을 뿌리는데, 일본은 진화론과 우상숭배에 의해서 빼돌려진 토양이다. 복음의 열매를 풍성하게 맺기 위해서는 토양을 개간해야 한다. 그 노력을 하지 않고 씨앗을 뿌려도 좋은 열매는 맺지 못한다"는 것이다. 진화론에 대해서는 일본은 조선진국이라고 한다.

일본이 이것을 학교교육에 받아들인 것은 1877년이고, 이는 진화론이 발표된 지 겨우 18년 후였다. 사람이 원숭이에서 진화되었다는 등의 생각이 왜 일본에서는 그렇게 빨리 받아들여졌던 것일까? 라는 의문에 호사까는 일본의 창조과학회의 의견을 따르고 있다. 즉 고사기라고 하는 일본의 매우 오래된 책에 국가의 유래를 이야기하는 신화로서, 그 1장 '국가탄생'에 '삼위일체의 보이지 않는 신이 이 나라를 만들고, 그 나라의 형태가 아직 갖추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나타났던 신들이 있어서' 이 신들의 후예가 대대 천황으로 이 나라를 다스려왔다고 쓰여 있다.

1867년에 일본에서는 정치기구에 커다란 변혁이 있었는데, 오랫동안 사무라이가 지배해왔던 정치가 천황과 그를 둘러싼 집단의 손에 넘어갔던 것이다. 명치천황은 1852년에 태어나서 그 때 천황은 아직 15살로 어렸고, 한동안 일본전체가 혼란스러웠다. 사회기구 그 자체가 뒤집어진 것과 같은 일이었기 때문이다. 그러한 천황이 일본의 주인으로서 역사의 무대에 등장했던 시기에 진화론은 일본에 들어왔다고 한다. 이것은 이 대 변환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신의 자손인 천황의 신분과 원숭이의 자손에 지나지 않는 국민과의 비교는 상황에 아주 잘 맞는 이야기였을 것이라는 것이다.

진화론이 발표된 지 겨우 18년 만에 아직 아무것도 검증도 되지 않았던 시기에 일본전체에서 공교육에 받아들인다는 난폭한 일을 했던 것은 어린 천황을 모시는 사람들이 자신들의 기반을 다지기 위해서 신의 자손과 원숭이의 자손이라고 하는 상황

에 좋은 이야기를 가져다 맞추었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 이야기가 일본에서는 사실로써 계속해서 가르쳐졌고, 태평양전쟁 때에는 신의 자손을 위해 싸우다가 죽으면 원숭이의 자손이라도 신의 자손의 범주에 들어갈 수 있다는 형태로 이용되어졌던 것이다.

현재 일본에서는 99퍼센트 가까운 사람들이 아직도 이 진화론을 믿고 있다고 한다. 학교에서 가르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아무도 의심하지 않는다. 그리고 진화론은 과학, 창조론은 기독교이고 종교라고 믿고 있다.¹²⁹⁾는 것이다.

일본선교의 장애요인 중에는 다신론 적이며, 범신론적인 것도 큰 영향을 미치지만 그러한 것은 학교교육에서는 오히려 부정되고 있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12살 정도의 연령에서 가르쳐지는 진화론의 영향이야말로 복음에 대한 의혹과 조소의 벽을 이 나라 가운데에 쌓아서, 사람들의 마음에 복음을 받아들이기 어렵게 하고 있다고 호사까는 말하고 있다.

이런 진화론적인 사상은 요즘 일본에서 엽기적인 행각으로 벌어지는 청소년 범죄에도 크게 영향을 주는데 그것은 범죄를 해도 피해자에 대해 죄의식을 느끼지 않는다고 하는 것이다. 즉 원숭이의 자손이기에 존엄성을 느끼지 못한다는 것이다.

이 진화론 사상의 심각성을 인식 지금 교회의 사역의 한 일환으로 후쿠오카 순복음 교회 김일 선교사가 주력하고 있는 사역 중에 하나가 바로 교육 사역인데 여기서도 언급되었듯 진화론적 사상이 일본의 교육에 상당히 큰 영향을 미치고 있음으로 인해 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 교육과정을 새롭게 바꾸지 않으면 큰 혼란과 함께 크리스천 청소년들의 갈등은 더욱 증폭되어질 것이며, 이것은 일본사회의 진화론적인 사고의 분위기로 일본교회의 큰 장애요소가 될 수밖에 없다.

129) 미국에서는 1925년에 처음으로 공교육에서 진화론을 가르치는 것이 인정되었지만, 그로부터 55년간 진화론은 철저하게 검증을 받아서, 1980년 시카고에서 열린 진화론에 관한 국제회의에서 완전히 부정되었다.

제 5 장

한국 선교에 대한 분석과 제안

일본선교는 역사가 오래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기독교 신자가 전 국민의 1퍼센트가 되지 않으며 그나마 출석자는 전 크리스천의 0.42퍼센트에 지나지 않는다. 일본은 선진국 가운데는 유일하게 기독교가 뿌리내리지 못한 나라이다.

현재 일본은 많은 선교사들이 활동하고 있다. 전 세계 33여 개국 245개 선교단체에서 3,500여명의 선교사가 파송되어 있다. 세계기도정보 2002년도 판에 의하면 일본에 한국선교사가 546명이 나가있는 것으로 보고되어 있다는 것을 앞에서도 언급했으나 보고되지 않은 선교사까지 고려한다면 700~800명 정도로 추정된다. 이렇게 많은 선교사들이 들어가 복음을 전하고 있지만, 복음화율이 이 정도로 낮은 이유가 무엇인가? 바로 일본인 특유의 의식구조와 사회적 상황에 기인한 것으로 수용지의 토양의 문제와 전략상의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제 1 절 한국교회의 선교 현황 과 일본선교 현황

1. 최근의 한국교회 선교 현황

본 장은 일본에서 10년 이상 사역한 선교사들에게 설문지를 통하여 한국 선교사들의 성공 사례를 분석하고자 한다. 설문 대상의 선교사 선정은 일본에서 활동하는 한국 선교사들을 통하여 비교적 성공한 케이스로 알려지면서 10년 이상 된 선교사로는 단독선교사와 성장하고 있는 일본교회에서 효과적인 사역을 하고 있는 협력선교사를 선정하였다. 설문에 응답한 선교사는 많지 않으나 객관성과 정확성이 있다고 자부한다. 예를 들면 제자화 프로그램으로 성공한 케이스로 P선교사의 응답에 많이 의존하였지만 P선교사 외에도 제자화 훈련으로 성공한 한국 선교사가 많은 편이다. 따라서

본장에서 설명되는 성공 사례는 결코 논리적 비약이나 주관적 판단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따라서 설문지를 통하여 조사한 내용을 바탕으로 한국 선교사들의 사역활동을 분석하고 효과적 전략을 제시하고자 한다.

먼저 한국 선교의 개괄적 상황을 소개할 필요가 있다. 한국 선교가 당면한 근본적 문제는 일본에서도 그대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 교회는 현재 약 12,000명의 선교사를 파송하였는데, 일본에서 사역하는 선교사는 약 7백 명으로 추산한다. 그러나 양적으로 평창한 한국교회 선교는 질적으로 문제가 많다는 여론이 비등하고 있다. 최근 선교사에 대한 인식도 그렇게 좋은 것만은 아니다. 한국 선교는 양적 선교에서 질적 선교로 전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또한 선교사들이 지나치게 대도시에 집중되어 선교사의 전략적 배치가 이미 많이 논의되었지만 아직도 큰 변화가 없는 상황이다. 일본에서 사역하는 한국 교회 선교사들은 이미 언급한 일본 선교의 장애를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선교사이냐고 물으면 답은 부정적일 수밖에 없다.

2003년 12월 동경에서 JEM의 이사장 전호진과 본 연구자는 일본복음동맹의 세 지도자와 좌담회를 가졌다. 이 좌담회에서 노골적으로 일본 지도자들은 한국교회 선교사들이 일본 교회와의 협력이 부족하다고 지적하였으며 선교사들의 자질에 대하여서도 조심스런 언급을 하였다. 특히 한국인 선교사의 90퍼센트가 재일한국인 교회에서 사역하고 있고 10퍼센트만이 일본교회와 협력하고 있다. 동시에 동경과 오사카 등의 대도시에 집중되어 있는 것이 현실이다.

2. 한국 교회의 일본선교 현황

한국과 일본은 역사적으로 이웃 나라이면서도 먼 나라가 되는 불행한 과거사가 있다. 따라서 우리에게만 반일감정이 있고 일본은 동시에 한국에 대하여 우월감을 가지고 좋지 않게 보는 것도 사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한 것은 한국교회는 일본 선교에 대한 관심은 많다는 것은 한 선교사의 연구 조사에서 나타났다. 여기서 그 선교사가 조사한 내용의 소개는 생략한다.

한국교회의 일본선교는 20세기 초기부터 재일 유학생 대상으로 시작한다. 1906년 동경에 한국 YMCA가 창설 되어 후에 동경 한국인 교회가 시작된다.¹³⁰⁾ 여기서 해방

전에 일본에는 한국인 중심의 재일 대한기독교회가 형성되는데, 따라서 1970년대까지 한국교회의 일본 선교는 재일대한기독교회를 중심으로 이루어진다. 이것은 불가피하게 재일 교포 중심의 전도가 됨을 의미한다. 1968년에 사실상 한국교회가 일본에 선교사를 파송하려는 시도가 있었다. 김의환은 OMF 선교사로 일본에 가려고 하였으나 일본 정부는 한국 선교사는 불허하여 좌절되고 말았다. 여기서 일본의 한국 차별정책이 드러난 셈이다. 즉 한국인들은 일본인을 가르치는 선생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논리이다. 이 논리는 지금도 일부분 남겨져 있다.

일본 선교가 본격화된 것은 70년대이며 80년대 후반과 90년대 초반 많은 선교사들이 일본으로 건너갔다. 그러나 실제로 이들의 90퍼센트가 재일 교포나 한국인 대상의 선교라는 점에서 일본의 선교의 한계이기도하다.

그러나 이들의 사역은 다양하다. 교단 파송의 선교사들은 교회 개척 및 협력사역을 하고 있다. 이들 선교사들의 80퍼센트 이상이 제자훈련을 실시 중에 있는데 그 성과는 매우 큰 것으로 스스로 분석한다. 한국 선교사들이 소속하거나 협력하는 선교회들은 한국 자생의 선교회와 해외선교회들이 주를 이룬다. 주요 단체로는 CCC, OMF, YWAM 등이 있으며 일본교단과의 협력사역은 GMP, 인터콥, JEM, 바울선교회, 각 교단선교부 등이 있다. 한국인 선교사 중에는 일본의 신학교에서 가르치는 사역을 하는 자들로부터 교회를 직접 담임하는 선교까지 다양하다.

최근에는 일본교회에서도 한국인 사역자들에 대한 요구도 대단히 다양하다. 찬양 사역자, 교회개척 동역자, 협력사역자, 제자훈련사역, 기도원사역자 등(특히 일본어 가능자), 미전도 지역 개척목회자, 피아노반주자, 주일학교사역, 청년부사역, 컴퓨터 사역, 설교사역(무목 교회 등)등의 사역을 요청한다.

본 연구자가 섬기고 있는 JEM도 활발한 사역을 진행하고 있는데 한국 교회 안에 일본선교를 위한 정보제공과 정보교류, 선교사 훈련, 매주 목요 기도회와 선교회지인 Mission Japan을 발행한다. 그리고 일본 단기 선교여행과 현지 훈련을 안내하기도 한다. 최근 이사 조직도 전문가들과 흠자자들로 재구성 하였다. 인터넷홈페이지(www.kjem.com)를 운영하며 일본어 회화반도 가동하였다. 일본 선교에 관한 한 일본 복음 선교회는 일본 선교 전문 기관으로 많은 선교 정보도 제공한다.

130) 김수진, 한일교회의 역사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1989), 196-198.

제 2 절 일본에서 성공한 선교 사례들

일본은 선교가 어려운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본 선교회가 선교사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선교사들의 사역은 비교적 성공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¹³¹⁾ 이 사례들을 통해 이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대안도 제시하고자 한다. 응답한 선교사들의 대표적인 선교활동은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1. 제자훈련

한국 교회의 일본 선교에 영향을 준 가장 대표적인 것은 제자훈련이다. 한국 교회는 일부 목회자들이 제자훈련이 대단히 발달하였는데, 이것을 배운 한국 선교사들이 목회자 중심의 일본 교회에 큰 자극을 주었다. 평신도를 제자화해 사역자로 키우는 프로그램인 제자훈련은 그동안 묻혀져 있던 평신도 잠재력을 활용하는 한 방안이 된 것으로 평가 받고 있는데 이것이 일본에서도 효력을 본 셈이다. 특히 서울 사랑의 교회가 실시하는 제자화 프로그램은 일본 교회에 상당한 영향을 주었다. 이 교회는 지금도 국제 제자화 훈련원을 통하여 일본 지도자들을 초청, 훈련을 시키고 있다. 샌다이 라브리 교회는 사랑의 교회 제자훈련으로부터 큰 영향을 받은 대표적 교회이다.

특히 일본에서 사역하는 B선교사의 제자화 훈련은 좋은 반응을 얻었거니와 대부분의 한국 선교사들도 인정하는 바이다. B선교사는 1990년부터 13년간 8회에 걸쳐 398개의 교회, 521명의 일본인 목사들을 대상으로 제자훈련지도자 세미나를 개최했고, 제자훈련교재를 번역하였으며 매년 일본 소목자 훈련회에서 주최하는 전국 제자훈련 컨벤션을 통해서도 일본교회의 지도자를 깨워 왔다.¹³²⁾ 이 훈련의 열매들이 일본에서 맺혀질 즈음 훈련의 과정을 지켜보던 일본인 목사들의 입으로 전파되어 자신들에게도 제자훈련을 가르쳐 달라는 요청을 받게 되었다.

131) 2003년 3월부터 6개월 정도의 기간을 통해 일본인 대상사역을 중심으로 성장하는 한국인 선교사들을 대상으로 주력하는 사역과 선교지로서의 일본의 풍토의 문제와 전략상의 문제를 설문하였으며, 앞으로의 비전을 통해 가능성 있는 전략들을 도출해 내었다. 또한 객관적으로 추천 받은 선교사를 대상으로 하였다. 이것은 차후에 전략집의 자료로 사용예정이다.

132) 변재창, “일본문화 토양에서의 제자훈련의 문제점과 그 대안”, 선교 타임즈, 2004년 1월호, 88.

제자훈련이 시작된 1990년 이후 일본에서는 어떻게 현지에 적용시켜야 할 것인가에 대한 필요에 의해 동경을 중심으로 한 관동지역에서 제자훈련에 동참하려는 목회자들이 모이기 시작했고, 그 결과 '소목자 훈련회'를 중심으로 북해도에서 오키나와까지 전국의 각 지역까지 확산되었다.

소목자 훈련회는 침체되어 있는 기독교인의 신앙을 바르게 닦아주어 제자로서의 삶을 살게 하는 것에 목적을 두고 있다고 B선교사는 말한다. 훈련 자들은 소그룹 성경공부를 통해 소목자와 기독교 지도자로서의 자질을 갖추게 된다. 초기의 소목자 훈련회는 제자삼는 사역의 과정의 하나로 '전도 양육 훈련 파견'이라는 프로그램을 내놓았다. 이것은 이론을 가르치는 세미나 형식이었고 말씀 묵상훈련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훈련을 숙제로 처리했다. 실제 전도할 줄을 전혀 모르는 목회자들이 대부분이었기 때문에 아무리 이론을 가르쳐도 새 신자가 늘어나지 않는 문제가 있었다. 그래서 만든 것이 '전도 실천 학교'이다.

소목자 훈련회의 제자훈련의 단계별 프로그램은 체질개선 코스(제자코스-전도·기초양육코스-소목자 코스-전도학교-디보션(QT)지도자학교-소목자 예비학교-하비스트 페스티벌 학교 순으로 진행된다.

지금 가장 집중해서 훈련시키고 있는 것은 말씀묵상과 함께 내적치유를 하는 것이다. 일본인들이 선호하는 베스트셀러의 5위 안에는 항상 치유에 관련된 것이 있다는 것은 주목할 만하다.

2. 찬양 사역

한국 선교사들의 찬양 선교도 좋은 반응을 얻고 있는 전략 중의 하나이다. 찬양은 감수성이 예민한 민족인 일본인들에게는 복음을 접할 수 있는 좋은 전략으로 입증되고 있다. 더욱이 최근에는 흑인영가에 대한 관심이 높아져서 교회 내 가스펠을 보러 오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다. 그러한 경향을 활용해서 각 교회들이 찬송에 대해 더 많은 투자와 개방을 실시하고 있다. 특히 한국을 비롯한 세계 각국에서 찬양사역자들이 일본으로 콘서트 형식으로 공연을 통하여 복음을 전하는 횃수가 늘어나고 있다. 후쿠오카)의 경우 매년 12월이 되면 한국의 찬양사역자들이 공연장을 빌려서 찬양콘

서트를 열고 있다.

일본의 젊은이들은 지금 가스펠 송을 배우고 부르기를 좋아하는 것이 거의 유행처럼 번져가고 있으며, 연령을 초월하여 주부들까지도 배우고 있다. 놀라운 것은 수백, 수천의 젊은이들이 복음 송 배우기를 원하고 있는데 바로 이들 대부분이 미 신자들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지도자가 턱 없이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뜻도 의미도 모르면서 복음 송을 일어로, 영어로 부르는 모습이 너무나 진지하다. 2000년 11월 3일에는 전국 가스펠 송 경연대회가 동경 나까노 ZERO HALL에서 열렸다. 놀라운 것은 우수 참가그룹의 대부분에 불신자 젊은이 그룹들도 함께 끼여 있었고 최우수 팀에도 불신자가 대부분이었다. AKO'S FAMILY라는 복음 송 그룹은 주기적으로 요요기공원 야외 음악당이나 공회당, 교회 등지에서 그 동안 준비한 콘서트를 발표하고 있다. 지난 여름에는 뉴욕에 까지 가서 콘서트를 하고 왔다.

찬양 선교로 성공한 케이스는 P선교사와 다수가 있다. 찬양 사역이 유리한 것은 사람들을 쉽게 접근할 수 있고 쉽게 감동시킬 수 있다는 이점이 있다. 즉 일본 교회로부터 초청을 쉽게 받을 수 있다. 그래서 이 선교사는 지금까지 830여개 교회를 순회하며 찬양사역자 및 전도사로 사역, 일본에서 찬양사역자로서 가장 왕성한 사역을 하고 있다. 주목할 만한 것은 P선교사와 L선교사가 지금 가스펠 송 모임을 통해 접촉하는 많은 미 신자들이 복음에 대해 조금씩 귀를 기울이고 있다는 것이다.

3. 홈리스 사역

최근 일본에도 홈리스가 많아서 상당수 한국 선교사들이 이들을 위한 봉사선교를 하여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경제대국에서 홈리스들은 거의 집단을 이루며, 조직적으로 삶의 한 형태라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많이 몰려 살고 있다. 동경 우에노 공원에는 한 주간 몇 차례의 홈리스 예배가 있고 요코하마, 산야, 아사쿠사, 오사카, 고베, 등지에서도 홈리스 예배가 부흥의 불길을 타고 있다. 최근 들어 수많은 이들이 주님을 만나고 새롭게 인생을 시작하는 역사가 일어나고 있다. 99년 12월에는 요코하마의 홈리스 집회에서 구원 받고 새 사람이 된 홈리스들이 일본의 명문대학인 동경대학 축제 행사 때 강사로 초대되어 복음으로 변화된 모습을 담대히 간증하고 예수 그

리스도를 전도하는 역사가 있었으니 참으로 놀라운 변화임이 틀림없다.¹³³⁾ 여기에 일본의 홈리스 전도는 대부분 한국인들이 관여 하고 있다는 것도 놀라운 일이다.

성공적인 홈리스 사역의 사례는 동경에 있는 H선교사와 K선교사이다. H선교사의 경우 우에노 공원에서 매주 거리의 부랑자들에게 식사를 대접하고 또 전도 집회를 개최해서 큰 화제가 되기도 했다. 1989년부터 시작된 이 전도 집회는 첫해에 15명, 1990년에는 48명, 1995년에는 156명(야회집회 230명), 1997년에는 232명(야회집회 1200명), 2000년에는 257명(야회집회 1000명)으로 증가하고 있고, 2003년에는 342명(야회집회 650명)으로 매년 그 수가 증가하고 있다.

홈리스 들에게 베푸는 이러한 사랑은 일본의 일간 스포츠신문에 “불황반영 1000명 초과하는 행렬이 이어져”라는 제목으로 기사화되기도 하였으며 일본 TBS다큐멘터리(99. 7. 4)에서는 “김치로 사랑을 - 어느 한국인선교사의 시도”로 방영되기도 하였다. 또한 많은 일본신문에 한국인 목사가 일본인을 구제하고 새로운 삶의 소망을 주는 것으로 소개되었다. 이 홈리스 사역을 통해 실질적으로 많은 신학생들과 전도사들이 배출되기도 했다.

4. 청소년 및 청년 사역

일본에서의 청소년 사역과 청년 사역은 “너는 청년의 때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가 가깝기 전에 너의 창조자를 기억하라”(전 12:1)의 성경 말씀처럼 기업이나 국가 뿐 만이 아니라 기독교에서도 장래를 생각해 볼 때에 아주 중요하다. 일본교회의 특징 중에 하나가 바로 젊은이들과 청소년들이 부족하거나 거의 전무하다는 것이다. 이것은 더욱이 점점 고령화 되어가고 있는 일본교회의 심각한 문제이다. 그리하여 일본교회의 이미지는 어둡고 힘이 없으며, 매력이 없게 비춰지고 있다. 가끔 단기 선교여행 팀과 일본교회를 방문하면, 젊은이들이 교회에 방문했다는 것만으로도 큰 위로와 활력이 되는 것을 보게 된다. 그러기에 청소년들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하는 선교는 상당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

일본의 인구는 2003년 통계에 의하면 약 1억 2천 7백만인데 그 가운데 고등학교

133) 김광석, “일본선교에서의 전문인 선교” (JEM 의 MJTC 9기 강의 중, 2003).

학생수는 약 4,717,193명이고, 기독교인 학생은 약 5,501명으로 보고 있다. 한국인 선교사로서 지금 유일하게 Hi-ba(High School born againers)¹³⁴⁾라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선교단체에서 사역하고 있는 A선교사가 있다.¹³⁵⁾

특별히 청소년 시기는 아이에서 성인으로 불안정한 시기로, 이 때는 신체적으로 성인으로 변화하는 시기이다. 또한 인생에 있어서 중요한 것을 결정하는 시기이며, 장래의 일, 우정, 이성, 인생의 의미 등에 대해 불안을 느끼는 시기이기 때문이다. 특히 일본의 청소년들은 한국의 청소년들과는 많이 다르다. 장래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는 일본 아이들 중에서 오히려 장래에 대해서 아무런 희망조차도 가지고 있지 않은 것이 이들의 현주소다. 많은 상담을 통해 안 선교사는 이러한 현상들을 자주 발견 한다고 한다. 물론 요즘 한국의 청소년들도 장래 보다는 현실에서 좀더 편하고 만족한 삶을 살려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지만, 일본의 청소년들은 긍정적으로 표현한다면, 현실 가능한 장래 희망을 갖고 있고, 부정적으로 본다면, 너무 현실적이라 비전을 갖고 있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런 시기에 그리스도를 만나 하나님께서 그 자신에게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인생을 인도하시는 분이심을 알려주며, 믿음으로 문제가 해결된다는 사실을 알게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기에 일본에서의 청소년 사역의 중요함을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Hi-ba 사역은 정기 모임과 캠프, 특별집회 등으로 진행되고 있다. 정기 모임은 관동지역 17곳, 관서지역 6곳에서 매일 정기적인 모임을 가지고 있으며, 모임을 통하여 제자훈련을 실시한다. 캠프는 고등학생들에게 가장 중요한 프로그램으로서, 치바 이치노미야라는 곳에 아름다운 캠프를 마련해 놓고 여기에서 마음껏 찬양하며, 간증하며 학생들에게 결단케 한다. 봄, 여름, 겨울 캠프가 있으며 여기에는 교회를 다니지 않는 학생들도 참가하는 프로그램이다.¹³⁶⁾

청년 사역의 대표적인 것은 이이다 가츠야가 시무하는 오사카의 J-HOUSE의 사역이 주목할 만하다. 이 교회에는 JEM이 파송한 2명의 선교사가 가세하여 젊은이들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 많은 청년들을 전도하였다. 여기서 이 프로그램을

134) 미국의 학생전도에 경험을 가지고 있었던 케네스 월터 클락(Kenneth Walter Clark)과 부인과 함께 1950년 12월 12일에 일본에 와서 1951년부터 시작된 선교단체이다.

135) 안부자, "일본에서의 청소년 사역", 해외선교, 2003년 3, 4월호, 17.

136) Ibid., 18.

간단히 언급한다면, 각 캠퍼스에 동아리 형식으로 핑키 클럽이라는 모임을 통해 만난 미신자들을 주중 금요일에 핑키파티로 초대한 후 자연스러운 교회와의 접촉을 통해 편안하게 복음을 받아들이게 한다는 것이다. 특히 한국인 선교사가 함께 사역한 이후 세례자가 점점 증가하는 추세이다. 이 선교사들의 주목할 사항은 평신도 선교사이며, 사역 교회로부터 일정한 사역비를 지원 받는다는 것이다. 이 교회의 선교비전은 2050년까지 일본 인구의 33퍼센트가 뜨거운 크리스천이 되는 것으로 그리스도의 커다란 마을이 생기는 것이며, 오사카에 1만 명의 교회를 세우고, 전 세계에 최저 1000개의 교회를 세우는 것이다. 여기에는 한국인 선교사가 부흥의 불쏘시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5. 미디어 사역

21세기 선교는 미디어 선교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특히 인터넷이 급속하게 발달해 가는 한국과 조금은 더디지만 지금 그 뒤를 바짝 따라 오고 있는 일본의 인터넷 시장을 볼 때 더욱이 기독교 문화가 열악하고 정보들이 부족한 일본의 기독교에서는 미디어라는 매개체를 통한 선교는 아주 중요한 전략 중의 하나다. 현재 일본의 교회는 점점 고령화 되고, 무목 교회들이 늘어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에 성장하고 있는 교회들의 정보들을 공유하므로 열악한 환경 조건에 있는 교회들에게 함께 부흥하고 성장하는 것뿐만 아니라 턱없이 부족한 목회자의 빈자리들을 조금이라도 대신해 줄 수 있는 한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러므로 인터넷 강국인 한국교회가 주목할 만한 선교 전략이며, 장차 파송되어 나갈 젊은 예비 선교사들이 주목할 만한 사역이라 하겠다. 특히 평신도 전문인 선교사들이 많이 필요한 부분이기도 하다.

제자훈련으로 일본 전역의 교회들로부터 주목 받고 있는 샌다이 라브리 교회는 인터넷사역과 비디오사역에도 주력하고 있다. 일본의 교회는 거리상 시간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교회들이 너무나 많이 있는데 이러한 교회들이 인터넷상으로 라브리 교회의 건강한 교회성장을 배우고 일본전역의 교회를 깨우는 사역을 위해 온 교회가 매달려 이일을 준비하고 있으며 라브리 교회의 모든 노하우를 인터넷으로 공개하려고 한다. 라브리 교회의 건강한 사역 자료와 비전을 공유하고 소개하며 일본교회를 돕기

위해 인터넷사역을 시작하는 것이다. 이것을 도우는 한국인 선교사는 P선교사이다. 또한 동경의 히라노 고이치 목사가 담임하는 호라이즌 채플 또한 비디오 예배를 통한 사역을 하고 있다. 여기에서도 J선교사가 그 현장에서 사역하고 있다. 미디어 선교는 일본 목사와 한국인 선교사들이 좋은 팀을 이루어서 선교협력의 모델이 되기도 한다. 미디어를 발전시킨 일본 교회들은 한국 선교사뿐만 아니라 서양 선교사들과도 파트너십을 형성, 목사가 없는 교회에 비디오로 예배를 제공하고 있으며 앞으로 이것을 확대할 것이라고 한다.

6. 전문인사역

오늘날 세계선교는 마지막 미완성 과업을 향하여 지구촌의 '미전도 종족 선교'에 초점을 맞추어 진행되고 있다. 세계국가의 2/3 지역이 선교제한 지역이다. 전문인 선교사를 통한 '창의적 접근'으로의 시도가 필요함이 절실하여 세계선교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자리 잡고 있다. 일본의 선교 전략가인 데츄나오 야마모리는 21세기가 시작될 때 세계 비 그리스도인 인구 중 83퍼센트가 전통적인 선교사에게 문을 닫는 나라들에 거하게 되리라고 추산하였다. 그는 이 수십억의 사람들에게 손길을 뻗치기 위해서는 새로운 전략들을 창출하고 또 이를 수행할 새로운 부류의 선교사가 필요하다고 말한다. 그것은 바로 전문인 선교사라는 것이다. 1994년 USAT(미국전문인선교협의회)가 채택한 전문인선교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전문인선교사는 자신의 기술이나 전문성을 소유하고 타문화권에서 접근하여 거주하면서 현지인을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삼는데 최우선권을 두며 가능한 곳에서는 교회를 개척하고 견고하게 하는 그리스도의 증인이다.¹³⁷⁾

전문인선교사를 선교전략적인 측면에서 광의적으로 정의한다면, 실질적으로는 전문인이 아닐지라도 선교 전략적 측면에서 전문인선교사를 재 정의할 필요를 느낀다. 즉 보다 넓은 의미에서의 전문인선교사이다. 이 경우는 비록 어떤 분야의 전문인은 아니지만 '신분상의 전문인'인 경우도 전문인선교사의 범주에 넣는 것이다. 실제로 전

137) 고광선, "일본의 기독교 현황과 선교", 11에서 재인용.

문인이 아니거나 특정 분야의 깊은 지식이나 경험이 없더라도 전도와 양육 등 교회개혁에 은사와 많은 경험이 있는 경우 선교사 신분으로 도저히 들어갈 수 없는 창의적 접근지역에 외형상으로 전문인 신분을 가지고 가서 선교할 수 있는 것까지를 포함하고 있다. 이는 선교전략적인 필요와 그 효과 때문이다.

일본에서의 전문인 선교사가 갖는 의의는 일본은 크리스천 인구가 매우 적다. 이것은 일반인의 기독교에 대한 인지도가 낮고 또 사회전체에 대한 크리스천의 영향력이 그리 크지 않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것은 자신과 다른 것에 대해서 폐쇄적이고 서로 관계를 중요시하는 나라에 있어서는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이러한 나라에 있어서는 사람이 말하는 내용보다 말하고 있는 사람 쪽에 주목하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크리스천이 사회전체에 영향을 끼치기 위해서는 우선 사회적으로 인지된 존재가 되어, 신뢰 관계를 맺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 그래서 사회와 큰 접점을 가진 기업이라든가 전문분야 종사자의 형태가 힘을 가진다. 또 크리스천의 절대 인구가 적다는 것은 풀타임으로 일하려고 해도 받쳐주어야 할 크리스천이 적기 때문에 재정 부담이 소수 크리스천에게 집중되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결론이 나온다.

일본에서도 전문인 선교사들이 사람들을 만나기에는 용이하고, 또한 일본사회에서 인정할 만한 전문직이라면, 대화상대로 먼저 호의적이라는 이점이 있다. 일본 선교의 가장 큰 문제점은 일본인들이 직장생활에 최 우선권을 두고 있다는 것이다. 일본인들은 옛날부터 성실하게 일하는 것을 가장 좋은 모범적인 것으로 생각한다. 그러나 일본 회사는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더 많은 시간을 직장생활에 요구하는 것과, 직장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총력을 기울일 수밖에 없게 한다. 이로 인해 일본인들의 직장생활의 시간은 말할 수 가 없을 정도로 길다. 이러한 결과로서, 아버지로서 남편으로서의 역할을 다 하지 못하도록 직장의 경영진은 계속 직장에 순종하도록 요구하고, 심지어는 “단신후닌”이라는 가족의 생이별을 당연시하는 사회가 되었다고 훗가이도에서 전문인 자비량 선교사로 사역하는 이 아브라함 선교사는 말하고 있다.

전문인 선교로 성공한 대표적인 것은 평신도인 K선교사가 발전시킨 VIP클럽이다. 이것은 전 대한항공 동경지부장을 역임한 K씨는 4차례에 걸친 일본현지 근무를 통해 수차례 교회를 개척하였으며, 성경공부 모임을 인도하여 현재 사랑의 교회의 일본 선교를 위해 전문인 선교사로 사역하고 있다. 1993년도 성경공부 모임으로 시작한

작은 그룹이 1998년도부터 4개로 확대하여 모임을 하기시작하면서 명칭을 VIP 클럽으로 정했고(사 43:4), 그는 1998년 8월부터 이 모임에 참가하게 되었으며 1998년 12월 23일 VIP CLUB Christmas Festival 강사로 지명되어 600여명의 일본 비즈니스맨들 앞에서 파워포인트로 40분 동안 복음제시를 함으로서 폭발적인 반응을 가져 왔으며, 그 후 VIP 클럽 발전에 커다란 기폭제가 되었다. 이 모임의 강사로서 일본의 전도 역사의 새로운 한 페이지를 열었다고 하베스트 타임¹³⁸⁾의 나카가와 이사장이 방송 중 언급하듯 큰 반응이 있었다. 이 선교사의 복음 전달의 특징은 직접적으로 전도가 불가능한 일본에서도 파워포인트를 이용하여 직접 복음을 제시하고 불신자들로부터 긍정적인 반응이 있었다는 것은 복음 전달의 선진화의 필요성을 체험하게 한 대목이 크게 주목받는 계기가 되었다.

또한 홋카이도의 L선교사는 지역 밀착형의 구체적인 사역으로 전문인 선교사로서의 특성화된 사역을 통해 일본사회에 깊숙이 스며드는 사역을 하고 있는데 소호 사업자교류회, 마을 만들기 위원회, 사회복지책정위원회 IT 어드바이저, 교육위원회, 각종종교교류회를 통한 활동에 참여, 각종 흥미그룹에 참여 등을 들 수 있다.

7. 개척교회 사역

지구촌에 아직도 남은 1만여 미전도 종족 가운데 교회 개척을 통한 선교사역의 완성은 모든 교회와 선교단체들의 마지막 목표지점이다. 일본에서의 '개척교회'의 의미는 일본인 목회자를 아직 초빙하지 못한 교회나 일본인 목회자가 있어도 자립하지 못한 교회를 말한다. 아직도 10만 이상의 8개 도시와 읍, 면의 2천 4백 개 도시 중 1천 7백 개 소도시에 교회가 전혀 세워져 있지 않으며, 무목 교회가 점점 늘어나는 지금의 일본기독교의 현황은 일반적인 개척교회의 의미를 좀더 넓게 적용시키지 않으면 안 될 상황이다. 선교는 교회가 없는 땅에 교회를 세우는 것이다 그것의 목적은 바로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그 첫 번째인 것이다. 개척교회 사역은 일본 땅에 제일 중요한 사역임을 강조함은 새삼스러울 것이 없다.

한국 선교사가 개척하는 것은 날로 증가하고 있다. R선교사와 북해도에서 개척

138) 일본의 크리스천 방송으로 크리스천 출연진들이 간증 등을 하는 유명한 프로이다.

한 P선교사는 한국 선교사가 개척한 성공 케이스로 손 꼽힌다. 개척 10년 만에 매주 일 100여명의 일본인 성도들이 모여서 감격의 예배를 드리며 좁은 예배당 안에서도 뜨겁게 기도하며, 찬양하며, 훈련받으며, 하나님과 사람들을 섬기고 있다. 이러한 개척 성공은 너무나 많기 때문에 자세한 것은 생략한다.

8. 일본 교단에 소속 선교사역

일본 선교에 특이한 것은 한국 선교사들이 완전히 일본 교단에 속하여 그 교단의 통제를 받는 선교형태이다. 이것은 다른 나라에서 보기 어려운 케이스일 것이다. 대부분 선교지에서 한국 선교사들은 원주민에 대하여 가부장적 입장에 있다. 그런데 이것은 도리어 일본 교회에 종속되는 것을 의미한다. 2장에서 살펴본 대로 일본인의 의식구조에는 '혼네와 타테마에'라는 것이 있다. 그 만큼 속을 드러내지 않는 것이 그들의 문화적 토양이다. 그러나 일단 한 번 마음을 열고 친밀감이 느껴지면 의리를 지켜 절대 배신하지 않으려는 성향도 있다. 그러기에 일본인들 안에 신앙이 들어가기 시작하면 모든 것을 드리고 희생해서라도 섬기려고 하는 경향이 있다고 한다. 이런 상황에서 가장 좋은 연합의 모습이 바로 일본에서 신학을 한 후 목사 안수를 받고 교단에 소속되어 그들과 함께 일본의 교회를 섬기는 것이다. 이것은 좋은 현지화의 모델이라고 할 수 있다.

일본 교단에서 안수 받고 그 교단에 소속되어 일본인대상으로 개척하고 사역하는 선교사는 그리 많지는 않다. 그러나 그럼에도 좋은 모델이 되고 있는 선교사로서 먼저 K선교사와 N선교사 그리고 S선교사 등 날로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어떤 교단에서는 목사안수가 어려워 몇 번 떨어지는 선교사도 있다. 이 경우 한국의 파송교회나 선교회가 선교비를 어느 정도 일본교회가 나머지를 책임진다. 한국 선교사들이 맡은 교회 중 준 농촌교회가 있는데 이런 곳은 배타성이 강하기 때문에 큰 어려움이 있기도 하다.

9. 기타 주목할 만한 사역

설문을 작성한 선교사들이 주요하게 다루는 사역 중에는 교육사역이 있다. 이것은 일본의 토양을 개간하는 작업으로 아주 중요한 사역이다. 지금 일본선교의 새로운 변화는 교육대국을 자부하던 일본학교 교육이 무너져가고 있다. 실제로 후쿠오카의 K 선교사는 교육사역을 하는 전도로서 유아부터 노인까지의 교육시설을 이용하여 선교하는 선교 타운을 소망하고 있다. 일본은 고령화 사회이다. 그리고 일본교회의 소자화에 따른 아이들이 즐고 있는 일본의 상황에서 유아에서부터 노인까지의 교육시설에 대한 비전은 일본사회를 잘 고려한 전략됨을 알 수 있다. 이것을 통해 부흥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고 한다. 이것을 성경에 기초한 교육으로 바로 잡아 갈수 있는 길을 보여주고 그러한 바른 교육을 받은 학생들이 내일의 일본, 아시아 선교의 주인공이 될 것을 기대한다. 또한 일본인의 90퍼센트 이상이 가벼운 신경증으로부터 정신적 인병을 앓고 있는 것을 듣게 되는데 앞에서 언급한 제자훈련을 통해 성공적인 사례를 보이고 있는 B선교사는 제자훈련 속에 말씀묵상훈련과 함께 내적 치유에 대한 부분을 다루고 있다. 지금 이 사역은 큰 효과를 보고 있다고 한다. 이 부분은 설문의 대상으로 선정된 많은 선교사들이 주목하고 있는 사역으로 향후 중요하게 다루고자하는 사역 확대로서 치유사역을 들고 있다.

제 3 절 한국 선교사들이 개선해야 할 점

이상 설문지를 통하여 한국 교회의 선교에 대하여 우리 선교사 스스로 자체 평가를 하였는데, 비교적 잘 되는 부분을 소개한 셈이다. 그러나 선교는 설문지에서 스스로 문제점도 솔직하게 고백하고 있다. 한국 선교사들의 장점은 영적 다이나믹, 기도, 서구 선교사들보다 나은 일본어 구사, 전도의 열정, 새로운 프로그램 개발, 봉사선교 등을 지적한다. 선교사들을 통하여 한국교회의 제자화 훈련, 영적 생동력을 일본에 수출하는 긍정적 효과는 부인할 수 없다. 하지만 한국 선교사들이 극복하거나 개선해야 할 사항들을 선교사들은 대략 다음과 같이 말한다.

첫째로 90퍼센트의 한국 선교사들이 이미 언급한대로 일본인 대상이 아니라 한국인이라는 사실이다. '한일 선교 지도자 좌담회'¹³⁹⁾에서도 일본 지도자들은 이 점을

139) JEM주최 2003년 12월 19(금) 동경, 오차노미즈 크리스천 센터, 전호진 선교학 박사, 백종운 목사, 조영상 일본선교사, 가네모토사토루(도쿄미션연구소 소장), 미추모리 하루오(CIS이

충고하여 주었다. 재일한국인 교회사역 역시 선교 전략 차원에서는 아주 중요한 부분이나, 선교의 본질적 의미는 원주민, 즉 본토인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우선 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둘째로 한국 선교사들은 너무 공격적 자세로 일하여 일본인들을 당혹하게 한다는 반응이 많았다. 일본인들은 예수와 노를 너무 급하게 노골적으로 하는 것을 자제한다. 그런데 한국 선교사들은 주의 주장이 너무 강하고, 너무 직설적으로 표현하고 행한다고 답한 것이 47퍼센트나 된다. 일본인들은 회의 문화가 발전, 회의에 너무 많은 시간을 할애하더라도 서로를 다치지 않고 서로에게 모두 만장 일치시키려는 노력을 한다. 이것이 바로 일본의 조화 혹은 화해의 문화이다.

셋째로 언어 문제이다. 73퍼센트의 선교사들이 언어에 아직도 부족함을 느낀다고 시인하였다. 반면 10퍼센트가 문화이해가 부족하다고 답하였다. 우리는 일본어를 배우기 쉬운 것으로 말하지만 존경어가 많은 일본어는 그리 쉬운 것만은 아니다. 일본에는 많은 목회자가 없는 교회가 있으나 한국 선교사들이 이 자리를 메우는 데 가장 난제는 역시 언어와 적응이다.

넷째로 일본 선교에 어려움은 재정이다. 한국 교회가 일본에 선교사를 파송하는 것을 꺼리는 것은 바로 비싼 물가이다. 선교사 중에서 모국에서 100퍼센트 후원을 받는 선교사는 불과 11퍼센트고 대체로 현지에서 70퍼센트 후원을 받는다고 답하였다. 이것은 일본이라는 독특한 선교지에서 만이 가능하며, 재정적인 부담 등이 현지에서 해결 가능성도 시사하고 있으며, 한국선교사들이 선교사로서 재정 원칙을 어떻게 돌 것인가도 생각해 보아야 하겠다.

제 4 절 효과적인 일본선교를 위한 제안

설문지에서 미래 일본 선교의 가능성에 대하여 부정적이지만은 않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일본은 수용성이 낮은 나라이다. 여기에서 효과적 선교전략이 요구된다. 일본도 수용성이 높아지고 있는 나라이다. 그러므로 앞으로 21세기 효과적 일본선교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제안한다.

첫째는 기존 선교사들의 활동에서 현지의 토양에 맞는 전략적이고 특성화된 사역이 입증된 셈이다. 즉, 제자훈련, 찬양사역, 홈리스 사역, 청소년 사역, 미디어 사역, 전문인 사역, 개척교회사역, 일본교단 소속으로서의 사역은 더 발전되고 강화되어야 한다. 둘째는 이들의 공통된 특징은 일본선교를 위하여 철저히 준비했다는 것이다. 앞으로 일본에 갈 선교사는 완벽한 준비가 요구된다. 셋째, 일본의 문화를 충분히 숙지하고 천천히 인내하며, 한국식의 빠른 열매를 기대하기 보다는 그들의 템포에 맞추었다는 것이다. 그들의 문화를 이해함으로 그들의 눈에 맞추어 복음을 만나도록 한 것과 전문인 선교사로서 또는 선교사로서 목회적인 바른 철학을 가지고 바른 신앙을 할 수 있도록 가르치고 실천케 했다는 것이다. 성급한 열매를 기대하여서는 안 된다. 넷째, 사역을 준비하면서 초기에 어떤 선교를 할 것 인가에 대한 계획이 철저하고 방향을 명확하게 잡았다는 것이다. 초기에 일본인 대상 선교를 목적으로 했지만 잘 준비되지 못하여 교포 선교로 방향을 바꾸는 경우가 많은 것이 일본에서의 한국 선교사의 현실이다. 지금 한국인 선교사의 90퍼센트 이상이 교포선교라는 실정을 반영해 볼 때 초기에 교포선교에 대한 비전이 있다면 이 또한 교포선교에 필요한 훈련과 그들의 문화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그러므로 초기에 선교의 명확한 비전과 철저한 준비 그리고 사역의 방향을 잡아서 어떤 사역을 어떻게 할 것인지 일본인 대상 선교를 목적하였다면, 인내하며, 끝까지 밀고 나아가야한다. 교포사역을 하다가 일본인 대상 사역을 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이다. 다섯째, 강한 선교적 의지를 가지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장기적인 안목으로 사역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더불어 협력사역을 하는 경우 현지의 리더십에 순종하며, 따름으로 현지의 리더십을 세워 주고 신도에게 크리스천으로서의 섬김의 모습을 보여 주어 겸손한 선교사로서의 바른 자세로 나아갔다는 것이다.

다음은 설문을 통하여 한국인 선교사들과 일본 목회자들이 선교사 후보생들에게 요청하는 준비와 바람들이다.

첫째로 일본인 목회자와 성도들이 도전 받은 장점 이 무엇인가를 보면서 그들이 원하는 선교사의 모습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한국인 선교사는 부지런하며 겸손하며 은사와 재능이 많으며 예절이 바르다는 것에 큰 도전을 받는다. 또한 건강한 가정을 가진 부부가 많이 있으므로 이것 또한 현지인의 부러움의 대상이 된다. 일본인과 다

르지 않는 외모와 빠른 언어 습득으로 일본인이 하기 힘든 빠른 교제와 전도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선교사는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다. 돈이나 명예가 아니라 바로 예수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선교사로서 인정받고 존경받는 것이 가장 명예로운 것이다. 둘째로 언어의 부족을 극복하거니와 강하고 직설적 표현은 피해야 한다는 것이다. 셋째로 일본과 일본 교회를 충분히 알도록 일본현지에서 문화적응과 언어습득의 시기를 적어도 2년에서 많게는 5년까지 준비하기를 권면하고 있다. 목회선교에서는 주특기 즉, 전문성을 개발, 실천, 검증해 보고 사역하길 권하고 있다. 넷째로 적어도 2년 이상 일본 교회에서 봉사하면서 일본교회의 질서와 문화를 이해함으로 좀 더 시행착오를 줄이고, 또한 일본교회와의 협력을 통해 현지의 일본교회와 진정한 파트너십을 갖고 사역하길 제안한다. 다섯째로 일본인 특유의 완전주의적인 성향을 통해 비취졌던 한국인 선교사의 즉흥적이고, 감정적인 모습에서 좀 더 준비가 잘 되어진 그리고 한국 신도의 신앙과 한국 교회의 큼에 대해 우월감을 가지지 않으며, 사람 관계를 성급하게 갖으려 하지 말고 천천히 신뢰를 쌓는데 중점을 두며, 편지를 쓰는 문화이므로 편지 답장에 많은 에너지가 필요하지만 이런 훈련들이 조금씩 되어지면서 그들의 문화에 잘 적응하는 일본이라는 나라를 이해하고 사랑하는 선교사로 비취지길 바라고 있다.

제 6 장

결 론

본 논문은 앞으로 21C 일본선교의 가능성을 제시하기 위해 일본인을 대상으로 하는 한국 교회 선교사들의 선교 비전과 전략을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었다. 본 논문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1장에서는 본 연구자가 사례를 통한 일본선교의 전략과 가능성을 연구하는 목적과 연구방법에 대해 밝히었고, 2장에는 복음의 수용지로서 일본인에 대한 이해로서 일본인의 종교상황과 일본인의 의식구조를 통해 그들의 복음의 토양의 문제를 알아보았다. 결국 일본의 토양은 복음에 수용적이지 못하다는 것이 선교사들의 일반적 견해이다.

3장은 일본의 기독교의 역사적 사실들을 초기 선교사의 시대, 개신교 선교와 개국, 침체기와 대 부흥기, 제2차 세계대전과 일본교회의 성장의 후퇴, 그리고 일본기독교의 회복과 성장과 새롭게 변화되어지며, 도전되어 지는 것을 다루었다. 아울러 일본교회의 장점과 단점을 취급하였다.

4장은 최근의 일본선교의 동향을 분석하여 변화하고 있는 일본의 영적 상황과 그에 대응하는 전략적 방법의 모색과 장애 요인 분석을 하였는데 의식구조와 신관에 의한 장애요소와 영적 장애요소로서 교베대학부 교수인 行澤 一人의 글을 근거로 하여 태만설, 영성 결핍설, 영적전쟁에 대한 결여설, 그리고 대망설, 문화 적응론, 결여설을 다루었고, 다원주의를 통한 장애요소와 특히 일본에서의 진화론 사상이 미치는 복음을 수용하는 데 있어서 장애요인을 분석하였다.

5장은 최근의 한국교회의 선교현황과 새롭게 전망될 패러다임 전환에 대한 부분과 전략적 재배치와 전진 재배치에 대한 부분을 다루었으며, 한국의 교회들이 지금 작은 교회들이 모여 선교에 대해 눈을 뜨며, 적극적으로 나아가려는 상황들을 나누었으며, 또한 한국교회의 일본선교역사를 고찰하여 지양해야 할 부분을 분석하였고, 21

세기 일본선교의 전략을 도출하고, 한국의 역할을 모색하였다. 또한 본 연구자가 가장 중점적으로 다루었던 부분으로 일본에서 사역하고 있는 일본인 대상 단독 혹은 협력의 형태로서 섬기고 있는 선교사들의 사례를 통해 그들이 어떤 전략을 가지고 어떻게 접촉점을 찾아 복음을 전하였는지를 분석하였으며, 일본교회가 바라는 한국인 선교사에 대해 설문을 통해 조사하였다.

대상 선정에 있어서는 객관적으로 일본교회와 선교사들 간에 인정할 만한 대상을 선정하는데 최선을 다하였다. 그 사례는 제자훈련과 찬양사역과 홈리스 사역, 그리고 청소년, 청년 사역, 미디어 사역, 전문인 사역, 개척사역, 일본이라는 선교지의 상황을 고려한 일본교단 소속의 사례들을 통해 일본에서 어떤 사역들이 복음을 만나도록 하는지 연구하였다. 또한 효과적인 일본선교의 제안을 위해 일본목회자와 성도들의 설문을 통해 일본선교에서의 한국인 선교사들에 대해 어떤 이미지를 갖고 있으며, 그들이 도전받는 것과 좀더 보완되어 지길 바라는 사항들을 알아봄으로 일본선교 후보생들과 일본에서의 한국인 선교사가 잘 적응 해 갈수 있도록 준비되어야 할 것에 대해 제시 하였다.

이상과 같이 본 연구자는 사례를 통해 몇 가지를 제시할 수 있었는데 복음의 수용지로서 일본은 그 토양을 새롭게 개간해야하며, 이것과 함께 그들의 문화를 이해하며, 인내하는 가운데 선교의 접촉점들을 찾아내어 이것을 토대로 하여 좀더 전문적인 전략들을 시행하고 있으며, 많은 시행착오 끝에 이런 안정된 성장이 이루어지는 모습을 보게 되었다.

이렇듯 일본의 기존 교회보다 공통적으로 안정된 성장을 하고 있는 교회라 할지라도 다 똑같지 않다는 것이다. 하나님은 그들의 각각의 성품을 사용하고 계시고 은사를 사용하신다는 것이다. 그러나 그들의 공통점은 언어와 일본 문화에 대한 이해가 깊었다는 것과 끝까지 견고하게 서 있는 일이(고전 15:58) 선교지에서의 큰 도전이지만 그래도 끝까지 인내하며, 더 큰 비전을 본다는 것이다.

일본은 경제적으로 잘 사는 나라이지만, 그것 때문에 상대적으로 선교사들의 생활이 어렵고, 또 어떤 면에서는 물질적인 유혹에 빠지기 쉬운 나라이기도 하다. 또한 열매가 금방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쉽게 포기하는 경우도 많이 있다. 한국교회의 일본선교에 대한 인식부족도 선교사들을 어렵게 하지만 이제 예전에는 볼 수도 없었던

성령의 강한 바람이 일본 열도에 세차게 불어 닥치고 있는 것을 기대하며, 조금씩 변화되어 가는 21세기 일본의 기독교의 부흥을 기대한다.

한국교회의 일본 선교에 대하여 부정적 견해를 말하기도 하지만 한국교회는 직접, 간접으로 일본교회에 제자화 훈련, 부흥운동 등에서 영향을 주고 있다. 동시에 일본과 한국교회가 동반자 관계로 협력을 하는 징조가 나타나고 있다. 그럼에도 한국 선교는 수정할 것과 보완 할 것이 있다. 한국 선교사들이 소개하고 참여하는 선교활동은 긍정적으로 평가를 받으나 아직도 선교사들 간의 협력부족, 언어부족은 해결해야 할 과제이다.

맥도날드의 마케팅 전략은 초기에 저렴한 가격으로 제품을 공급하다가 5퍼센트의 벽만 넘으면 다시 원래의 가격을 올려서 판매한다고 한다. 바로 5퍼센트의 벽을 넘으면 일반 마케팅 시장에서는 선점했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이 일본 복음화도 비록 현재 전 인구의 0.42퍼센트에 불과하지만 이제 성령의 바람을 타고 0.42퍼센트가 2퍼센트로, 5퍼센트로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나가기 시작한다면 '나카마 하즈레' 즉, 집단에서 뒤 떨어지는 '왕따'가 되지 않으려고 너도나도 교회로 발걸음을 옮길 것이고 이렇게 급속도로 교회가 부흥한다면 순식간에 옛날 일본의 전인구의 10퍼센트의 부흥이 있었던 그때가 다시 올 것이며, 더 나아가 20퍼센트 30퍼센트의 복음화가 이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본에서 일어날 수 있다고 소망한다.

그 후에는 하나님이 준비해 두신 일본의 풍부한 경제력과 한국의 뜨거운 선교 열정을 총동원 하여, 아시아에서 유일하게 기독교 배경이 없는 선진국인 일본을 모델로 하는 많은 개발도상국들이 복음으로 돌아 올 것이며, 예루살렘에서 시작된 복음이 원점인 예루살렘까지, 지구를 한 바퀴 돌아서 땅 끝까지의 복음 전파의 사명이 훨씬 앞당겨 지리라 믿어 의심치 않는다.

일본은 지금 옥토로 변해 가고 있다.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부족 하다. 이제 좀더 철저한 훈련과 사전 준비를 통해 일본으로 나아갈 때 저 죽어가는 1억 2천 7백만의 영혼이 주를 보게 될 것이다. 그리고 예배가 없는 그 땅에 많은 예배 자들이 나올 것이다.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주님의 모습은 선교사가 어떤 태도로 선교에 임해야 할 것인가를 보여주고 계신다.

부록1

전국교회교세 데이터(2003년)

도도부현(都道府縣)	인구	교회수	교회수 증가	1교회당 담당인구	교회원수	1교회당 실제성도수	예배인수	예배자 평균	크리스천 비율
홋카이도(北海道)	5,675,309	403	-1	14,083	15,339	51	9,535	32	0.41
東北	9,838,324	540	3	18,219	15,308	41	10,858	28	0.22
아오모리현(青森縣)	1,497,036	74	0	20,230	2,245	38	1,302	24	0.19
이와테현(岩手縣)	1,421,796	53	0	26,826	1,503	34	965	24	0.12
미야기현(宮城縣)	2,347,166	136	1	17,259	5,701	55	3,727	36	0.3
아키타현(秋田縣)	1,197,566	65	2	18,424	1,912	41	1,177	26	0.22
아마가타현(山形縣)	1,241,364	71	0	17,484	1,897	37	1,573	30	0.22
후쿠시마현(福島縣)	2,133,396	141	0	15,130	3,050	33	2,114	23	0.21
關東	40,081,837	2,555	-3	15,688	151,778	81	97,766	52	0.54
이바라키현(茨城縣)	2,995,583	169	-1	17,725	5,555	46	4,329	33	0.26
토치기현(栃木縣)	2,003,283	105	-2	19,079	2,989	43	1,986	29	0.23
군마현(群馬縣)	2,019,726	115	2	17,563	4,092	54	2,506	31	0.29
사이타마현(埼玉縣)	6,898,219	380	10	18,153	15,647	57	11,464	42	0.33
치바현(千葉縣)	5,920,398	321	0	18,444	13,641	56	9,508	40	0.31
도쿄도(東京都)	11,818,845	952	-14	12,415	77,497	110	47,258	66	0.94
가나가와현(神奈川縣)	8,425,783	513	2	16,425	32,357	86	20,716	53	0.55
中部	21,505,418	1,089	7	19,748	39,312	49	28,618	35	0.25
니이가타현(新潟縣)	2,476,900	101	1	24,524	3,120	43	2,247	30	0.17
토야마현(富山縣)	1,124,414	39	0	28,831	835	29	841	26	0.18
이시가와현(石川縣)	1,176,601	59	0	19,942	2,099	45	1,722	37	0.24
후쿠이현(福井縣)	828,039	43	0	19,257	1,293	40	749	28	0.21
아마나시현(山梨縣)	886,077	65	1	13,632	2,303	48	1,396	29	0.38
나가노현(長野縣)	2,204,498	152	-4	14,503	4,740	40	3,135	28	0.28
기후현(岐阜縣)	2,109,804	87	-1	24,251	2,853	47	2,500	38	0.2
시즈오카현(静岡縣)	3,764,054	232	11	16,224	8,199	50	5,489	35	0.3
아이치현(愛知縣)	6,935,031	311	-1	22,299	13,870	61	10,539	44	0.27
近畿	22,458,829	1,545	11	14,536	87,205	80	50,556	46	0.55
미에현(三重縣)	1,858,890	87	1	21,367	5,449	92	1,973	33	0.42
① 시가현(滋賀縣)	1,334,621	72	-2	18,536	3,207	62	1,941	37	0.34
② 교토부(京都府)	2,563,205	215	8	11,922	11,175	73	5,973	39	0.61
오사카부(大阪府)	8,628,601	574	3	15,032	35,214	88	21,944	55	0.58
효고현(兵庫縣)	5,537,365	434	2	12,759	25,694	83	14,780	46	0.67
나라현(奈良縣)	1,448,533	86	1	16,843	3,407	52	2,224	36	0.33
와카야마현(和歌山縣)	1,087,614	77	-2	14,125	3,059	54	1,721	30	0.4
中國 / 四國	11,929,091	815	1	14,637	28,581	49	16,823	29	0.33
돗토리현(鳥取縣)	617,078	50	-1	12,342	1,542	44	882	25	0.35
시마네현(島根縣)	762,144	52	0	14,657	1,169	34	638	21	0.22
오카야마현(岡山縣)	1,957,529	143	1	13,689	5,647	60	3,203	33	0.44
③ 히로시마현(廣島縣)	2,872,196	164	2	17,513	6,685	59	3,851	33	0.32
④ 야마구치현(山口縣)	1,528,944	90	1	16,988	2,692	38	1,707	25	0.23
⑤ 토쿠시마현(徳島縣)	831,241	52	0	15,985	1,778	44	1,037	27	0.27
⑥ 카가와현(香川縣)	1,033,248	88	-1	11,741	2,520	33	1,703	24	0.28
⑦ 에히메현(愛媛縣)	1,508,842	117	-1	12,896	4,409	54	2,560	31	0.43
⑧ 코오치현(高知縣)	817,869	59	0	13,862	2,139	53	1,242	29	0.37
九州 / 沖縄	14,795,997	845	2	17,510	31,216	54	19,006	34	0.31
⑨ 후쿠오카현(福岡縣)	4,979,227	273	4	18,239	11,564	59	7,683	38	0.31
사가현(佐賀縣)	882,639	28	-1	31,523	856	48	507	27	0.15
⑩ 나가사키현(長崎縣)	1,527,398	56	-2	27,275	1,750	46	1,021	26	0.17
⑪ 구마모토현(熊本縣)	1,870,416	85	-1	22,005	2,750	47	1,848	33	0.23
⑫ 오이타현(大分縣)	1,234,429	63	-1	19,594	1,856	42	1,143	26	0.22
미야자키현(宮崎縣)	1,184,535	66	3	17,948	1,646	38	993	26	0.21
카고마시현(鹿児島縣)	1,783,231	70	1	25,475	4,114	84	1,307	28	0.34
오키나와현(沖縄縣)	1,334,122	204	-1	6,540	6,680	50	4,504	39	0.79
전국	126,284,805	7,792	20	16,207	369,739	66	233,161	41	0.41

부록 2

단독사역 선교사 대상 설문지

韓國 宣教師 用 (일본인 교회 단독사역)

일반 정보]

1. 성 명 및 생년월일 :
2. 이 메 일 및 홈 페이지(카페)주소:
3. 사역기간:
4. 교회 이름(소속교단):
5. 현 교회주소:
6. 파송 년도 와 파송 지역 :
7. 파송 교회 또는 선교단체 :

비전과 사역]

8. 일본 선교에서의 선교사님이 현재역점을 두고 있는 사역 3-4가지 정도만 적어주세요!

8-1

8-2

8-3

8-4

9. 위의 역점을 두고 있는 사역의 필요성과 선교에서의 실제적인 효과는 어떻습니까? (제자훈련에 맞추어서 작성해 주세요!)

9-1 필요성:

9-2 실제적인 효과:

10. 선교사님의 사역에 앞으로 보충했으면 하는 부분이나 혹은 새롭게 구상중인 전략은?

일본의 교회와 기독교]

11. 현재 섬기시는 교회나 선교단체가 보편적으로 일본선교에 있어서 대체적으로 빠르고 안정된 성장을 하고 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 시기와 원인으로서는 어떤 것을 들 수 있을까요? (특별히 제자훈련에 포커스를 맞추어 주세요!)

11-1 성장(효과를 거둔) 시기:

11-2 성장원인(효과를 나타내고 있는)과 사역의 특성화된 내용:

(현지에서 특성화된 방법이나 구체적인 전략들이 있는지요?)

11-3 교회와 선교지 교회와의 협력사역의 내용과 방향:

11-4 지금 선교사님의 사례가 매우 특별한 케이스로 봐야 하는지 아니면 보편적인 전략으로 볼 수 있는지요?

12. 복음의 수용지로서의 일본 전도의 가장 큰 장애요인을 든다면 어떤 것을 들 수 있습니까? 또한 이 장애 요인이 선교지 풍토의 문제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선교의 전략적인 문제라고 생각하십니까?

또는 풍토 의 문제가 있지만 전략적인 선교로 풍토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이지요?

12-1 장애 요인:

12-2 장애 요인 이 선교지 풍토의 문제 인가? 선교의 전략의 문제 인가?

12-3 만일 풍토의 문제이지만 전략적으로 극복 했다면 가장 큰 요인은?

12-4 선교사님이 하고 계신 사역 등이 초임 선교사나 혹은 기존의 선교사님들이 전도의 전략적인 측면에서 사용한다면 어떻게 적용 할 수 있을까요?

일본에서의 한국인 선교사]

13. 일본에서의 한국인 선교사가 효과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렇다고 생각하신다면 어떤 면이,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신다면 어떤 것이 극복해야 할 점이라고 생각하십니까?

13-1 한국인 선교사가 효과적인 면은?

13-2 한국인 선교사의 극복해야 할 점?

14. 기존의 한국인 선교사들이 겪어야 했던 장애와 극복을 위해 어떠한 훈련을 받고 준비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선교사의 길]

15. 초기 정착과정에서 중요하게 고려할 점 :

16. 일본에서의 선교사로서의 사역의 긍정적인 부분과 어려운 사항은? (구체적으로 부탁드립니다.)

16-1 긍정적인 면?

16-2 어려운 사항은?

17. 초임선교사들에게 한마디 :(준비부터 정착까지의 필요사항)

재정에 대해]

18. 현재 현지에서의 재정 원칙에 대해 :

본국 후원()퍼센트 +현지(후원, 사례)()퍼센트 +기타()퍼센트 = 100퍼센트

내용:

19. 선교지의 특성상 재정 원칙을 어떻게 세우는 것이 적합하다고 생각하십니까?

20. 일본이라는 선교지 특성상 현지 후원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20-1가능하다면 어떤 방법으로 접근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십니까?

20-2 가능하지 않다면 무엇이 장애라고 생각하십니까?

21. 최근의 일본의 기독교에 대한 새로운 변화들(긍정적인 면, 부정적인 면)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21세기 일본 선교의 전망을 해 주시길 바랍니다.

21-1.일본선교의 새로운 변화들(긍정적/ 부정적 부분)

21-2 21세기 일본선교의 전망

22. 선교사님의 마지막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일본 선교사역을 효과적으로 돕기 위한 일본선교에 대한 제안이 있으시다면....)

부록 3

협력사역 선교사 대상 설문지

韓國 宣教師 用 (일본인교회 협력사역)

일반 정보]

1. 성 명 및 생년월일 :
- 2 이 메 일 및 홈 페이지(카페)주소:
- 3 사역기간:
- 4 교회 이름(소속교단):
- 5 현 교회주소:
- 6 파송 년도 와 파송 지역 :
7. 파송 교회 또는 선교단체 :

비전과 사역]

8 일본 선교에서의 선교사님이 현재역점을 두고 있는 사역 3-4가지 정도만 적어주세요!

8-1

8-2

8-3

8-4

9 위의 역점을 두고 있는 사역의 필요성과 선교에서의 실제적인 효과는 어떻습니까?

9-1 필요성:

9-2 실제적인 효과:

10. 선교사님의 사역에 앞으로 보충했으면 하는 부분이나 혹은 새롭게 구상중인 전략은?

일본의 교회와 기독교]

11. 현재 협력하시는 교회나 선교단체가 보편적인 일본교회들보다 대체적으로 빠르고 안정된 성장을 하고 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 시기와 원인으로서는 어떤 것을 들 수 있을까요?

11-1 성장(효과를 거둔) 시기:

11-2 성장원인(효과를 나타내고 있는)과 사역의 특성화된 내용:

(현지에서 특성화된 방법이나 구체적인 전략들이 있는지요?)

11-3 교회와 선교지 교회와의 협력사역의 내용과 방향:

11-4 지금 선교사님의 협력이 섬기시는 교회의 부흥에 어떤 모습으로 영향을 끼치고 계십니까?

12. 복음의 수용지로서의 일본 전도의 가장 큰 장애요인을 든다면 어떤 것을 들 수 있습니까? 또한 이 장애 요인이 선교지 풍토의 문제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선교의 전략적인 문제라고 생각하십니까?

또는 풍토의 문제가 있지만 전략적인 선교로 풍토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인지요?

12-1 장애 요인:

12-2 장애 요인 이 선교지 풍토의 문제 인가? 선교의 전략의 문제 인가?

12-3 만일 풍토의 문제이지만 전략적으로 극복 했다면 가장 큰 요인은?

12-4 선교사님이 하고 계신 사역이나 섬기는 교회의 특성화된 내용 등이 초

임 선교사나 혹은 기존의 협력 선교사님들이 전도의 전략적인 측면이나 현지에서 원하는 사역협력으로서 사용한다면 어떻게 적용 할 수 있을 까요?

일본에서의 한국인 선교사]

13. 일본에서의 한국인 선교사가 효과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렇다고 생각하신다면 어떤 면이,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신다면 어떤 것이 극복해야 할 점이라고 생각하십니까?

13-1 한국인 선교사가 효과적인 면은?

13-2 한국인 선교사의 극복해야 할 점?

14. 기존의 한국인 선교사들이 겪어야 했던 장애와 극복을 위해 어떠한 훈련을 받고 준비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선교사의 길]

15. 초기 협력 선교사로서 지금의 교회 또는 선교단체와 연결된 계기와 정착 과정에서 중요하게 고려할 점 :

15-1 연결된 계기 :

15-2 정착 과정의 고려 점:

16. 일본에서의 선교사로서의 사역의 긍정적인 부분과 어려운 사항은?

(구체적으로 부탁드립니다.)

16-1 긍정적인 면?

16-2 어려운 사항은?

17. 초임선교사들에게 한마디 :(준비부터 정착까지의 필요사항)

재정에 대해]

18. 현재 현지에서의 재정 원칙에 대해 :

본국 후원()퍼센트 +현지(후원, 사례)()퍼센트 +기타()퍼센트 = 100퍼센트

내용:

19. 선교지의 특성상 재정 원칙을 어떻게 세우는 것이 적합하다고 생각하십니까?

20. 일본이라는 선교지 특성상 현지 후원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20-1가능하다면 어떤 방법으로 접근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십니까?

20-2 가능하지 않다면 무엇이 장애라고 생각하십니까?

21. 최근의 일본의 기독교에 대한 새로운 변화들(긍정적인 면, 부정적인 면)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21세기 일본 선교의 전망을 해 주시길 바랍니다.

21-1.일본선교의 새로운 변화들(긍정적/ 부정적 부분)

21-2 21세기 일본선교의 전망

22. 선교사님의 마지막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일본 선교사역을 효과적으로 돕기 위한 일본선교에 대한 제안이 있으시다면....)

참고 문헌

1. 국내서적

- 권윤일, 21세기를 향한 일본선교, 석사학위논문, 서울신학대학원, 1995.
- 김경희, 선교를 위한 신도이즘의 종교사회학적 연구, 석사학위논문, 아세아연합신학대학원, 1983.
- 김문길, 일본문화 이해, 부산: 부산 외국어대학교 출판부, 1999.
- 김수진, 韓日敎會의 歷史,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1989.
- _____, 일본 개신교회사, 서울: 홍성사, 1993.
- 김종문 편, 일본의 문화와 종교정책, 서울: 신원문화사, 1997.
- 다께다 기꾸교, 일본선교 전략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서울신학대학원, 1993.
- 류영기, “일본선교 현황,” 해외선교, 2003년 3, 4월호.
- 민두기 편, 일본의 역사, 서울: 지식 산업사, 1980.
- 박인용, “목회자의 일본에 대한 선교의식조사 연구,” 목회와 신학, 1995년 5월호.
- 박종순, 한국세계선교협의회 총람, 서울: 한국세계선교협의회, 2003.
- 배인찬, 일본선교를 위한 일본인의 의식구조 연구, 석사학위논문, 장로회 신학대 신학대학원, 1994.
- 변재창, “일본선교 보고와 전망,” 아시아기도 (1986).
- _____, “일본에 부흥이 올 것인가?” 아시아의 로마 (1986).
- _____, “일본문화 토양에서의 제자훈련의 문제점과 그 대안,” 선교 타임즈 (2004).
- 사와 마사히코, 일본기독교사,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1979.
- 안부자, “일본에서의 청소년 사역,” 해외선교, 2003년 3, 4월호.
- 옥한흠, 선교 타임즈, 2004년 1월호.
- 유기남, 일본을 알자, 서울: 한국기독교학생회 출판부, 1992.
- 이미라, “제자훈련을 통한 일본교회 성장,” 석사학위논문, 총신대대학원, 1999.
- 이세영, “일본선교의 상황화적 접근방안,” 석사학위논문, 침례신학대학원, 2000.
- 이현모, 선교학 개론, 대전: 침례신학대학교 출판부, 2000.

- 전호진, 한국교회 선교: 과거의 유산, 미래의 방향, 서울: 성광문화사, 1993.
 _____, 종교 다원주의와 타종교 선교전략, 서울: 개혁주의 신행협회, 1994.
 _____, 아시아 기독교와 선교전략, 서울: 도서출판 영문, 1995.
 _____, "한국교회, 일본신사를 넘어 세계로 2," 목회와 신학, 1997년 8월호.
 _____, 인종갈등시대와 미전도 종족 선교, 서울: 영문출판사, 2000.
 차성화, 한국종교사상의 사회학적 이해, 서울: 문학과 지성사, 1992.
 채필근, 비교종교론,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1980.
 택정언, "韓·日 兩教會에 있어서 社會主義에 관한 歷史의 比較 연구," 석사학위논문,
 연세대 연합신학대학원, 1969.

2 번역서적

- Anderson, Norman, 세계의 종교들, 민태운 역, 서울: 생명의 말씀사, 1985.
 Chew, Jim, 타문화권 선교, 서울: 네비게이토 출판사, 1994.
 Hanks, Billie & William A. Cell, eds, 제자도, 주상지 역, 서울: 나침판, 1987.
 Hesselgrave, David J., ed 신학과 선교 전호진 역, 서울 : 도서출판 엠마오, 1986.
 _____, 현대 선교의 도전과 갈망, 장신대세계선교원 역, 서울: 한국 장로회 출판사, 1991.
 Hiebert, Paul, G. 선교와 문화인류학 정홍호, 이현모, 김동화, 이종도 역, 서울: 죠이 선교회 출판부, 1986.
 Huntington, Samuel, 문명의 충돌과 21세기 일본의 선택, 소순창, 김찬동 역, 서울: 김영사, 2001.
 Johnstone, Patrick, 세계기도정보, 서울: 죠이출판사, 2002.
 McDowell, Josh & Don Stewart, 이방종교, 이호열 역, 서울: 기독지혜사, 1989.
 Neill, Stephen, 기독교 선교사, 홍치모, 오만규 역, 서울: 성광문화사, 1992.
 NHK 세론조사부 편, 현대 일본인의 의식구조, 이정수 역, 서울: 동명사, 1991.
 Ruth, Benedict, 국화와 칼, 김윤식, 오인석 역, 서울: 을유문화사, 2002.
 존 워노로프, 일본은 망한다, 고유석 역, 서울: 우마당, 1981.
 고사쿠의, 현대 일본의 문화 내셔널리즘, 김태영 역, 서울: 일본어뱅크, 2001.

도히아키오, 일본기독교의 사론적 이해, 서정민 역, 서울: 한국 기독교역사연구소, 1993.

데라다 유이찌, 데라다 리사, 일본선교의 비밀을 벗긴다, 곽명옥 역, 서울: 베다니 출판사, 1995.

무라카미 시게요시, 일본의 종교, 최길성 역, 서울: 예전사, 1999.

오가다 마모루, 한일 문화 비교와 기독교사, 황바울 역, 경기도: 갈릴리, 2002.

우찌무라 간조, 구안록, 전호윤 역, 서울: 설우사, 1993.

후루야 야스오, 오키 히데오, 일본의 신학, 권영국 역, 서울: 대한기독교 서회, 1994.

3. 외국서적

Davis, Winston, "Fundamentalism in Japan: Religious and Political," in Martin E. Marty and R. Scott Appleby, eds, Fundamentalism Observed, Chicago: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91.

Kum Sam, Lee, "The Christian Confrontation with Shinto Nationalism," VAN SOEST, 1962.

NHK 방송문화연구소 편, 현대 일본인의 의식구조-제5판, 동경: 일본방송출판협회, 2000.

Teranozo, Yoshikiri, "Japanese Theology," Dictionary of Mission, Karl Muller et al, eds, New York: Orbis Books, 1999.

Yoshikai, Yui, "The Church in Japan," The Church in Asia, Saphir Athyal, ed, Singapore: The Lausanne Committee for World Evangelization, 1998.

平井尚房, 종교사적으로 본 신도의 특질, 동경: 출회, 1969.

全浩鎭, 日韓研究, 神戸: 日韓改革主義教會問題研究會, 2002.

宇田, 福音主義キリスト教とは何か, 東京: いのちのことば社, 1994.

_____, 現代福音主義神學, 東京: いのちのことば社, 2002.

近藤勝彦, 傳道の神學: 21世紀キリスト教傳道のために, 東京: 教文館, 2002.

野田宣雄, 文明衝突時代の政治と宗教, 東京: PHP 研究所, 1995.

柳田友信, 日本文化史緒論, 東京: 聖書時報社, 1965.

- 中村敏, 日本における福音派の歴史, 東京:いのちのことば社, 1984.
- 行澤 一人, HAZAH 6월호, 東京: マルコーシユ・パプリーション, 2002.
- 小牧者訓練院, News letter, 日本: 小牧者訓練院 發行, 1996.
- ひらさちや, . 佛教と知識百科, 東京: 主婦と生活社, 1985.
- クリステヤ ン, 情報 アック 2003, 東京 :クリステヤ ン 新聞, 2002.
- _____, 情報 アック 2004, 東京 :クリステヤ ン 新聞, 2003.

VITA OF JONG YOON BAIK

Present Position:

Senior Pastor of Gil Gal Presbyterian Church

Personal Data:

Birthdate: January 3, 1957

Birthplace: Kyung Gi Do, Korea

Marital Status: Married to Sook Lee
with 2 Children, Eun Jin and Jun Ho

Home Address: 108-2102 Walgyedong 18, No Won-Gu, Seoul, Korea

Denomination: Presbyterian Church of Korea

Ordained: March 29, 1985

Education:

B.Th: Han Young Theological Seminary, Seoul, Korea, 1982

M.Red: Presbyterian Theological Seminary, Seoul, Korea, 1984

M.Div: Han Young Theological Seminary, Seoul, Korea, 1993

D.Min: Fuller Theological Seminary, Pasadena, U.S.A., 2004

Personal Experience:

1/1985 to 12/1988: Senior Pastor of Eun Chun Presbyterian Church,
Seoul, Korea

1/1989 to 4/1990: Senior Pastor of Pyung Gang Church, Seoul, Korea

7/2001 to present Senior Pastor of Gil Gal Holiness Church, Seoul, Korea